

# 호남 누정원림

## 잠정목록 등재 학술포럼

일시: 2026년 4월 24일(금) 13:00~18:00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

주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INSTITUTE OF HONAM STUDIES, CNU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남 한국학호남진흥원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차 례

사회: 최원종

개 회	개회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13:00~13:30	축 사	김창규(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장)	
성과발표		<b>호남 누정원림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용역 결과보고</b>	
13:30~13:50		박종오(전남대학교)	1
	발표 1.	<b>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b>	37
		조태성(전남대학교)	
	토론	김현진(경상국립대학교)	51
		서자유(전남대학교)	55
	발표 2.	<b>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현황과 방향 제언</b>	59
		최정미(국가유산청 전문위원)	
주제발표	토론	조일형(한국학호남진흥원)	83
14:00~16:00		<b>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와 추진 절차</b>	85
	발표 3.	김영수(ICOMOS Korea)	
		김만호(전남연구원)	101
	토론	이은정(누정원림문화연구소)	103
	발표 4.	<b>‘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신청서 작성 과정</b>	105
		박진재(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토론	백옥연(광주광역시 광산구청)	131
	좌 장	김신중(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종합토론		김현진(경상국립대학교), 조일형(한국학호남진흥원), 김만호(전남연구원), 백옥연(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서자유(전남대학교), 이은정(누정원림문화연구소)	
16:30~17:30			



# 개 회 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백화제방의 기운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날,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주관으로 [호남 누정원림 잠정목록 등재 학술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김창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뜻깊은 학술 포럼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선생님께 따뜻한 환영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호남의 누정 원림은 조선시대 학문과 문학의 산실이자 구국의 역사적 현장 혹은 자연과 어우러진 풍류와 삶의 지혜가 온축된 인문학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호남 누정원림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오늘 학술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그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의 누정 원림이 지닌 독창성과 보편적 가치에 대해 세계인이 인정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학계, 그리고 관계 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정책과 활용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의 학술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집약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를 기반 삼아 호남의 누정 원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 용역의 예산을 지원해 주신 전라남도과 국가유산청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에서, '별서정원과 원림 문화경관'이 선정되도록 애써 주신 광주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반갑습니다.

먼저, ‘호남 누정원림 잠정목록 등재 학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호남의 누정원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사연구 용역의 결과보고회 및 학술포럼입니다.

다 알다시피 호남의 누정원림은 호남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상징입니다. 전통시대 호남의 누정원림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사유의 공간으로서, 호남인들은 이를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담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쉼과 여유의 공간이자 유희와 놀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누정원림의 이런 의미는 여전합니다. 그런 까닭에 누정원림은 곧 호남문화의 정수로서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호남 누정원림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탐색은 물론이고, 동시에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정원림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등재를 위한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이 포럼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훌륭한 학술적 성과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가 큼니다.

누정원림의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기관은 누정원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많은 성과를 축적했고, 그 결과들이 모여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연구와 교육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조태성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박종오, 최정미, 김영수, 박진재 선생님, 좌장을 맡아 포럼의 의미를 더 빛나게 해주실 김신중 전남대 명예교수님과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14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장 김창규



# 호남 누정원림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용역 결과 보고

박종오(전남대학교)

##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조사 연구 결과 보고



###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 목 차

- I. 과업 개요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상황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 IV. 전남 누정원림과 세계유산 가치분석
- V.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 추진 기본계획(안)

## I. 과업개요

3/71

### <과업개요>

- 과업명 :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 과업기간 : 2025.09.15 ~ 2026.03.20. (6개월 5일)
- 과업대상 : 전남 누정과 원림 약 601개소, 광주 누정 일부
- 과업금액 : 99,000,000원(VAT 포함)

## I. 연구 추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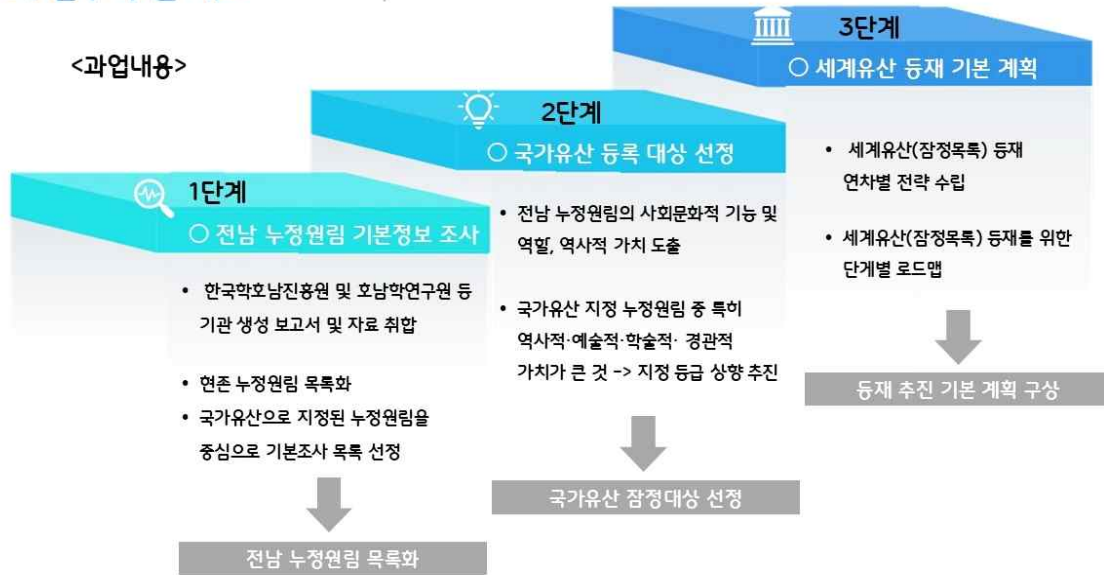
4/71

### <과업목적>

- 기초 및 상세조사를 통한 전남 누정원림의 역사문화적,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
- 국가유산 등록 대상 누정원림 선정 및 국가유산 지정 방향 설정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본 계획 및 방안과 전략 제시

## I. 연구 추진 개요

5/71



## I. 연구 추진 개요

6/71

<과업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9	10	11	12	1	2	3
착수보고회								
1차 자문회의								
기초 조사 및 분석, 예비 목록 작성								
국가유산 지정 대상 선정								
등재 기준 규명 및 등재 전략 수립								
2차 자문회의								
최종보고서 초안 완료								
최종보고회 및 결과물 제출								

## I. 연구 추진 개요

7/71

### <과업 결과(요약)>

-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정보(개요·연혁·현황 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 조사 대상 선정 : 전남지역 591개소(광주 제외) / 실제 조사 후 입력 자료 : 804개소(광주 5개소 포함)
- 전남 누정원림의 가치 평가 및 문화유산 등록 대상 선정(국가지정 13개소, 도지정 43개소 포함)
  - 전남 누정원림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가치 평가 : 무등산권, 보길도권, 강진권 권역별 가치 검토
  - 선별대상 국가유산 지정(승격)대상 선정 : 11개소 / 전남 누정원림 가치 검토를 위한 표본 선정(8개소)
- 누정원림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 기본계획 수립
  -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 연차별 전략 수립
  -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I. 연구 추진 개요

8/71

### <과업참여자>

구분	성명	소속	역할
책임연구원	조태성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 총괄책임
연구원	박종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최정미	(주)건축문화연구소 한건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이은정	(주)수호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이강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실무책임자
연구원	신태양	(주)수호	실무자
연구원	박미향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실무자
연구원	조향숙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실무자
연구보조원	이주현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실무보조
연구보조원	한철희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실무보조
연구보조원	허지현	(주)건축문화연구소 한건	실무보조

#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상황

9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상황

10/71

#### 1. 누정의 개념

- 누정 : 일반적으로 ‘루(樓)’와 ‘정(亭)’의 합성어
  - ‘당(堂)’, ‘대(臺)’, ‘재(齋)’, ‘각(閣)’, ‘정사(精舍)’ 등도 포함
- 원림 : 일반적으로 ‘자연에 약간의 인공을 가하여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삼은 것’
  - 삶의 공간을 벗어난 ‘자연’ 자체도 원림으로 상정 가능
- ❖ 이런 의미에서 ‘원림 속 누정’이 아닌 ‘누정 속 원림’이라는 시각적 전환 필요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상황

11/71

### 2.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대상 선정(1차 자료)

수록지 (現, 호남학)	발간년도	조사대상지역
호남문화연구 제14집	1985.08.	광주, 광산, 담양, 장성
호남문화연구 제15집	1985.12.	나주, 화순
호남문화연구 제16집	1986.12.	순천, 승주, 보성, 고흥
호남문화연구 제17집	1987.12.	목포, 무안, 함평, 영광
호남문화연구 제18집	1988.12.	영암, 해남, 진도
호남문화연구 제19집	1990.12.	강진, 장흥, 완도
호남문화연구 제20집	1991.12.	곡성, 구례, 광양, 여수, 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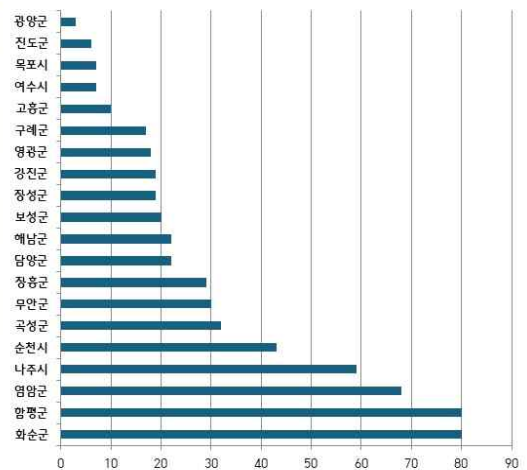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12/71

### 2.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대상 선정(1차 자료)

화순군	나주시	무안군	곡성군	순천시
80	59	30	32	43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68	19	29	80	22
강진군	보성군	구례군	고흥군	해남군
19	20	17	10	22
광양시	여수시	영광군	목포시	진도군
3	7	18	7	6
완도군	신안군	광주광역시	전남지역 591개소	
-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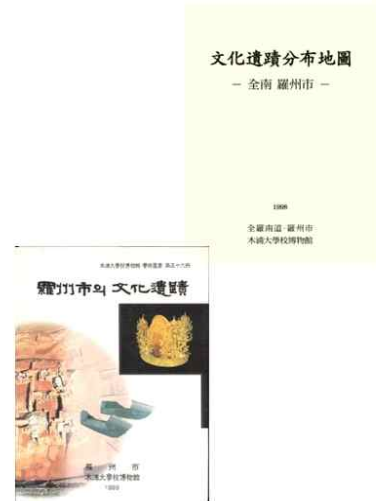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13/71

### 3.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대상 추가

- 시군 문화유적
  - 순천시의 문화유적, 강진군의 문화유적 등 13권(승주군 포함 13시군)
-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제4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2023년 발간 전라남도 16권(신안군 포함 22개 시군)
- 디지털 조사 자료
  - 순천근대건축물, 신안문화원 문화유산 자료 등 4개 시군 자료
- 문화우너 및 시군 학술조사 자료
  - 순천시사, 여수시 비정문화유산 전수 조사보고서 등 8개 시군 자료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14/71

### 3.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대상 확인(문화원)

**전남대학교**

수신자 장흥문화원장 (강희)  
 제목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사업 업무 협조 요청(장흥문화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남대학교 조남학연구소에서는 (국립국립중앙박물관) 함께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 사업은 지역인 유수한 문화유산인 누정원림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 이에 본 사업장에서 조사한 목록을 공유 하오니 귀 기관에서 보완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항목차별 누정원림 자료와 비교하시어, 수정보완(추가, 삭제(관련사항) 등) 내용을 알려주시면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하오니 간곡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요청사항

○ 공문과 목록은 귀 문화원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공문할 주소와 받은 경우 확인 후, 수정 사항은 해당에 공문서로 2024년 1월 10일까지 수정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 이메일 주소 : honamstudy@hotmail.net

○ 누정원림 관련 할간자료가 있다면 간곡히 제공 요청 드립니다.

붙임 장흥지역 누정원림 기초자료 1부. 끝

**호남학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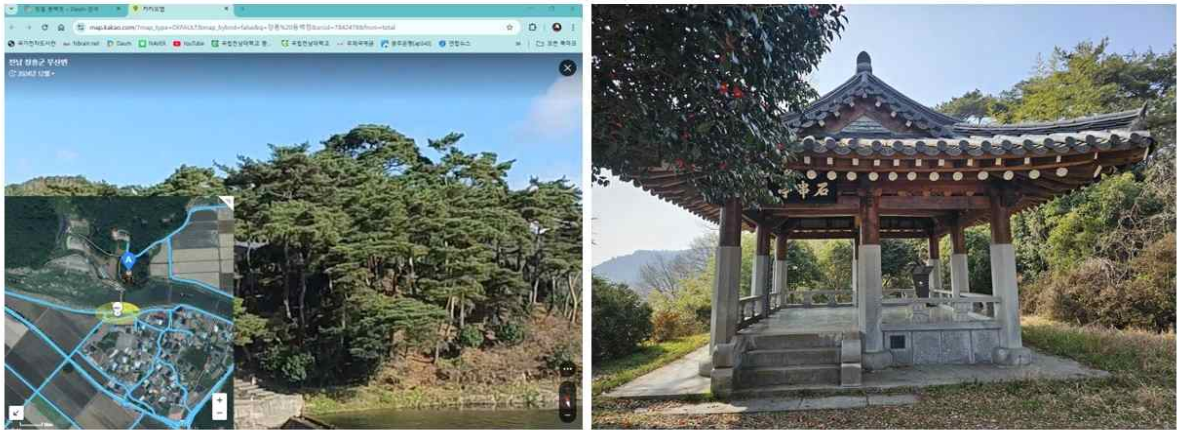
연락처 : 김수  
 학과부 : 호남학연구원  
 사무실 : 전남대학교 1100 ( 2023.12.29 ) 교수 ( )  
 부 : 6136,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로 7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http://www.honamstudy.com  
 전화번호 : 062-500-2710 / 팩스번호 : 062-500-2711 / e-mail : honamstudy@hotmail.net / 김수

문화원	확인방법
광양문화원	(책자) 광양의 정자
순천문화원	(책자) 순천의 누정
구례문화원	(수정) 엑셀파일
장성문화원	(수정) 엑셀파일
담양문화원	(책자)담양누정기행
장흥문화원	(책자)탐진강변의 정자
나주문화원	(책자)다시 누정과 누정문화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15 / 71

### 4.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대상 확인(현장조사)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16 / 71

### 5.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목록

지역	광주광역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기본자료		19	10	32	3	17	59	22
입력자료	5	22	11	38	34	18	117	47
지역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기본자료	7	30	20	43	7	18	68	-
입력자료	7	47	25	50	8	22	68	4
지역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합계	
기본자료	19	29	6	80	22	80	591(광주 제외)	
입력자료	46	30	6	93	22	84	804(광주 제외)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17/71

### 6.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정리

- 순번(지역): 표기는 지역번호-연번 형식을 취함. (예, 강진군의 경우 01-001)
- 명칭: 한글 및 한문을 병행 기술: 누정원림의 부르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 / 문화유산인 경우 지정 명칭을 그대로 사용
- 주소지: 정확한 위치 지정을 위해 번지 주소 사용(GPS 좌표 등 사용 편의)
- 창건: 누정원림의 창건과 관련된 사항: 성명, 호를 한글과 한문으로 표기, 생몰년 및 창건시기(왕력) 표기
- 중건: 누정원림의 중건과 관련된 사항: 중건시기와 중건자 성명 표기
- 건축형태: 누정원림의 건물 형태 관련된 사항: '정면00칸, 측면00칸, 00지붕, 00기와, 단층 형태'로 표기
- 현황: 현재 누정원림의 상태에 관한 사항: 현존여부: ○, ×로 표기 / 보존상태: 양호, 불량, 훼손 등으로 표기
- 현재활용: 개인재실, 개인휴게, 마을휴게, 문중재실, 문중공간, 문화유산, 사찰입구, 성곽루문, 사찰정자, 기타로 표기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18/71

### 6.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정리

번호	순번(지역)	지역구분	명칭		주소(소재지)	창건				중건			건축형태	현황		
			한자	한글		장건주체	호	생몰년	창건시기(왕력)	중건시기(왕력)	중건자	현존여부		보존상태	현재활용	
1	02-001	나주	正統樓	정수루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33-18	홍우룡	우복룡	權應	구암	1767(영조 43)~1828(순조 28)	1603(선조 36)	19세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골기	○	양호	
2	02-002	나주	錦城館	금성관	전라남도 나주시 과원동 109-5	李有仁	이유	자장	錦下	7~1492(중종 23)	1603(선조 36)	1884년(고종 11)	정면 5칸, 측면 4칸	○	양호	
3	02-003	나주	八角亭	팔각정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3	徐相德	서상덕	로	錦下	1927			정면 4칸, 측면 4칸	○	양호	
4	02-004	나주	鳳敬齋	사경재	전라남도 나주시 광안면 학사림 108-5						1927		정면 4칸, 측면 4칸	○	양호	
국가유산 정보 (국가유산, 시·읍·산, 향·리·산 포함)																
			명칭	지정	지정등록일	분류	면적	소유자	관리자	우선선정(승격) 대상	누정유산의 분류		누정	누정원림	경관	주된 사회적 기능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정수루	문화유산자료	1984-02-29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축/누정	1동	나주시	나주시								금성관 등원 출입문루
																관정
																담안공원 안에 위치
																재실
										고려 대상			○			휴식공간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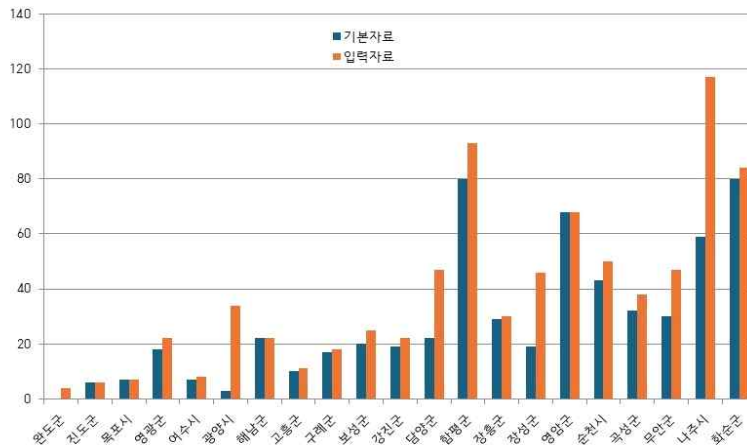
### 6.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조사 정리

현재활용	국가유산정보 (국가유산, 시·도유산, 향토유산포함)								우선선정(승격) 대상	누정유산의 분류	구분	
	명칭	지정	지정등록일	분류	면적	소유자	관리자	누정			누	
개인휴게										별서누정		
문화유산	보물	나주 금성관	보물	2019-10-25	유적건조물/정 치교박 / 국궐	1동(정정 603.19㎡	나주시	나주시		관아누정	○	
문화유산										관아누정	○	
문화유산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정수루	문화유산자료	1984-02-29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	1동	나주시	나주시	★★	관아누정	○	
기타-전망대										기타-남산시민공원 팔각정	○	
기타-유원지										기타-유원지	○	
문화유산	나주시향토문화유산	남평 영모재	향토문화유산	2019-10-07	건축물					별서누정	○	
개인재실										주거누정	○	
개인재실										주거누정	○	
문화유산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나주상계정	유형문화유산	1973-04-21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	1동	흥**	쌍계정회	★★	별서누정	○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 7.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분석

#### <누정 분포>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21/71

### 7.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분석

#### <누정 현존 여부>



- 현존 : 662개소(83%)
- 멸실 : 112개소(14%)
- 미상 : 25개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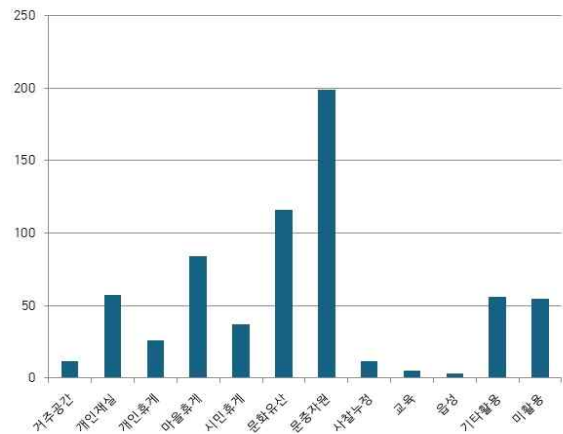
## II. 전남 누정원림 현황조사 및 기본정보 작성

22/71

### 7. 전남 누정원림의 기본 현황 분석

#### <현재 활용>

거주공간	개인재실	개인휴게	마을휴게	시민휴게	문화유산
12	57	26	84	37	116
문중자원	사찰누정	교육	읍성	기타활용	미활용
199	12	5	3	56	55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전라남도 지역에 분포하는 누정·원림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조사·분석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등재의 핵심 관건인 유형적 가치 평가의 객관적 지표 마련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지방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대상까지 검토 범위를 확대하였다.

##### 1. 조사 방법 및 대상 선정\_ 804개소 기준

###### 조사 대상 선정

전라남도 지역 누정·원림 중 목조 외기(기타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조사 현황대상 804개소를 적용·선별하였다.

###### 선정 기준

- ① 가치가 뛰어난 누정원림 보유 및 누정문화 보존 우수 사례(담양 소재원, 완도 보길도원림 등)
- ② 건축물 가치는 부족하나 인물·역사·사회적 상징성이 탁월한 사례(강진 다산초당 일원, 강진 백운동원림 등)

###### 조사 범위

등재의 핵심 관건인 유형적 가치 평가의 객관적 지표 마련을 위해 다음 세 범위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국가지정문화재 기본 대상
- 시도지정문화재 일부 사례 선별
- 향토문화유산·비지정·가치 미평가 대상까지 검토 확대

근거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25 / 71

#### 1. 조사 과정

조사 과정은 5단계로 구성되며, 유관기관(문화재원)을 통한 자료 교차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보존상태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 114개소를 선정하였다.



- 1차 선별(예비대상) : 누정문화유산의 기초 현황 자료 및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비지정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비지정 누정원림은 향토문화유산을 우선 검토 총 114개소 중 국가지정유산 12개소, 시도지정유산 43개소, 비지정 문화유산 59개소가 선정
- 2차 선별(우선대상) : 1차 선별 대상 중 가치를 인정받은 누정을 우선 선별하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우선 대상. 현 연구단계에서는 2차 선별 대상은 향후 연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표본 선정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확정 대상은 아님.

### III. 등재추진 대상 조사.분석

26 / 71

#### 1. 조사 대상 선정 개요(현장 조사)



유관기관(문화원)을 통한 자료 교차검토

현장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



(무인멀티콥터 드론 2종 조종자 자격증 보유)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27 / 71

#### 2. 조사대상 선별을 위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적용 검토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입증을 위한 등재기준 (i)-(vi) 중 전남 누정원림은 (iii), (iv), (vi)가 충족 기준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기준 (iii)	기준 (iv)	기준 (vi)
점차 사라져가는 누정원림문화의 계승 부각.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의 독보적 증거를 요구한다.	전통한옥 건축 특징과 조영원의 부각. 인류 역사의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축·경관 유형의 대표 사례를 요구한다.	누정문화 발현과 문화적 계승. 사건·전통·사상 또는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문학작품과의 직접적 연계를 요구한다.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독특한 증거"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 수원화성 사례 참조 점차 사라져가는 누정원림문화의 계승을 부각한다.	중요 사례 참조 전통한옥 건축 특징과 조영원의 부각한다.	조선왕릉 사례 참조 누정문화 발현과 문화적 계승한다.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28 / 71

#### 2. 조사대상 선별을 위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적용 검토

유형유산_건축물	무형유산_문예자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실거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조물 관리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인문·예술·예술품의 중심지로 기능. 제향·모임·문화행사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대 변화로 문화 단절 우려가 있음. 지속가능한 누정문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p>① 유교 선비문화의 표상으로서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누정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백히 남아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한국 누정문화의 범세계적 보편성을 인정받고 지속적인 문화 전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p>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29/71

#### 2. 조사대상 선별을 위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적용 검토

##### 핵심 입증 요건

문화적 가치(누정문화)가 유형유산(누정원림)에 투영되어 가시적으로 발현되는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무형적 가치가 유형적 형태 또는 장소와 강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 특정 문인·유학자·시인·학파와 관련된 인문·학술·예술 활동의 중심지
- 시문집, 일기, 그림, 기행문 등 역사적 기록에 빈번히 언급
- 제향·모임·문화행사가 지속되어 공동체적 참여와 사회적 활용이 이어지는 경우

##### 진정성·완전성 근거

사료나 그림은 옛 모습 회복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진정성과 완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건물에 옛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충수기는 구체적인 증거이며, 당대 학파와 관련한 시문집은 문학작품으로서 등재기준과 직접적 관련성을 보인다.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30/71

#### 3. 1차 선별 기준 및 선정

기본조사 현황대상 804개소 중 물리적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된 사례를 중심으로 총 114개소를 선정하였다. 전라남도 내 누정문화유산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23년도에 수행된 「제4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전라남도」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114

총 선정 개소

보존상태 및 현장조사 필요성 고려

13

국가지정유산

보물 2, 명승 9, 국가민속유산 2

42

시도지정유산

유형 9, 기념물 13, 문화유산자료 19, 자연유산 1

59

비지정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30, 미지정 29

1	2	3
<p><b>역사성과 원형성 확보</b></p> <p>19세기 중반 이전 조성 또는 문헌·지리지·고지도로 조성 내력 확인. 건축물과 경원 요소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p>	<p><b>지역적 대표성과 문화적 계승</b></p> <p>특정 문인·유학자·학파 관련, 역사적 기록에 빈번히 언급. 제향·모임·문화행사 지속 여부 포함.</p>	<p><b>현존 상태와 활용 가능성</b></p> <p>현장조사 가능, 보존관리 적합. 실측·사진측량·식생조사 등 실증적 자료 수집 가능.</p>

비지정 대상 8개소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후보신청을 위한 기초단계인 국가지정 승격 대상으로 활용한다.

현실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 많지 않으므로, 일부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문헌적 가치가 탁월하거나 향후 복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현장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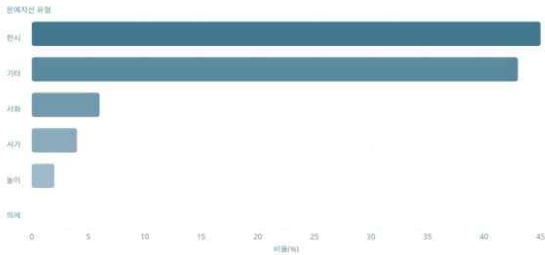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33/71

#### 3. 1차 선별대상 분석: 문예자산 분석

##### 문예자산 유형별 분포



##### 주요 문예자산 사례

###### 한시

나주 담양 화순이 대부분 차지한다. 한시가 있는 경우 시가·서화·의례가 함께 있는 예도 존재한다.

###### 서화: 강진

다산과 초의선사 관련 백운첩에 다산초당도와 백운동도가 수록됨. 복원과정의 당위성 입증에 중요하다.

###### 한시+시가

담양 식영정 일원, 담양 송강정, 면암정,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화순 침수정이다.

###### 한시+서화

강진 백운동 원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담양 소쇄원 등 이다.

문예자산은 전남 누정의 독창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가치 도출에도 직접적 관련이 있어 유의미하다. 서화의 경우 복원과정의 당위성을 입증할 중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의례 또한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가치 제고의 여지가 있다.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34/71

#### 4. 1차선별대상: 누정원림 분석

##### 누정원림 20개소 분석

1차 선별대상 114개소 중 누정원림은 20개소(18%)로, 지정국가유산이 17개소, 비지정 3개소다. 국가 지정 유산 9개소는 명승과 자연유산으로 지정가치 관점이 분명하다.

- 기능정보 1개소 제외 모두 별서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별서+기타 중복)
- 입지여건 산·계곡·마을·강·다양, 산과 계곡 중복 및 강 차경 요소 적극 적용
- 문예자산 대부분 보유, 한시 위주. 담양 식영정·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시가 병행

누정원림 + 기능정보 종합 분석

순번	지역	명칭	지정	기본정보			문예자산
				구분	기능정보	입지환경	
1	강진군	강진 백운동 원림	명승	누정원림	별서	계곡	한시, 서화
2	강진군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명승	누정원림	별서	산	한시, 서화
3	강진군	강진 여학정	문화유산자료	누정원림	별서	마을	기타
4	곡성군	곡성 영수정 일원	자연유산	누정원림	별서	강	한시, 의례
5	구례군	윤홍정	문화유산자료	누정원림	별서	산, 계곡	한시
6	구례군	빙호정	문화유산자료	누정원림	별서	계곡	한시
7	나주시	양박정	할토문화유산	누정원림	별서	마을	한시
8	나주시	나주 계운정	비지정	누정원림	별서	산, 계곡	한시
9	나주시	남파정	비지정	누정원림	별서	마을	한시
10	나주시	담학당	비지정	누정원림	기타	마을	기타
11	담양군	담양 소쇄원	명승	누정원림	별서	산, 계곡	한시, 서화
12	담양군	담양 영축원 원림	명승	누정원림	별서	들	한시
13	담양군	담양 식영정 일원	명승	누정원림	별서	강	한시, 시가
14	담양군	독수정원림	기념물	누정원림	별서	강	한시
15	순천시	순정 초연정 원림	명승	누정원림	별서	계곡	한시
16	순천시	순정 송매정 원림	기념물	누정원림	별서	계곡	기타
17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 원림	명승	누정원림	별서, 기타	강	한시, 시가
18	장흥군	송호정원림	기념물	누정원림	별서	강	한시, 기타
19	장흥군	부운정원림	기념물	누정원림	별서	강	한시
20	화순군	화순 임대정 원림	명승	누정원림	별서	강	한시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 4. 2차 선별 (제안)

**2차 선별 우선대상 (표본제시)**

1. 강진 백운동 원림 (명승)
2.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명승)
3. 담양 소쇄원 (명승)
4. 담양 영옥헌 원림 (명승)
5. 담양 식영정 일원 (명승)
6. 순천 초연정 원림 (명승)
7. 보길도 윤선도 원림 (명승)
8. 화순 임대정 원림 (명승)

- 세계유산 잠정목록 추진 대상 선별을 위해 표준모델 평가 항목 만족 여부로 선별.
- 심화조사와 등재 타당성 검토가 필요.
- 8개소는 표본 선정 예시이며 확정 대상이 아님

**1. 건축유산 조사**  
건립연대, 진정성·완전성, 보존관리 상태, 역사문화 경관 보유 여부

**2. 누정문화 조사**  
문인·학파 관련성, 역사적 기록, 공동체 참여, 문화 계승 지속성

**3. 도면자료 확보**  
위치도, 평면도 등 심화조사 필수 자료 수집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담양 소쇄원**

**1. 총괄사항**

문화유산종류	유형 문화유산	유형	문화유산
지역번호	2008-00-001	유형명	소쇄원
소재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신촌리 122	면적	131,000㎡
소재지	담양읍 신촌리 122	지정연도	1983년 11월 25일
소재지	담양읍 신촌리 122	소재지	담양읍 신촌리 122

**2. 기본정보**

구분	부속	부속명칭	비고
담양 소쇄원	서당	서당	주거
담양 소쇄원	정자	정자	정자
담양 소쇄원	정자	정자	정자
담양 소쇄원	정자	정자	정자

**3. 위치도**

**4. 현황조사**

**4. 상세정보**

**1. 관측대상**

1. 담양 소쇄원
2. 담양 소쇄원 서당
3. 담양 소쇄원 정자
4. 담양 소쇄원 정자
5. 담양 소쇄원 정자
6. 담양 소쇄원 정자
7. 담양 소쇄원 정자
8. 담양 소쇄원 정자

**2. 관측내용**

1. 담양 소쇄원 서당
2. 담양 소쇄원 정자
3. 담양 소쇄원 정자
4. 담양 소쇄원 정자
5. 담양 소쇄원 정자
6. 담양 소쇄원 정자
7. 담양 소쇄원 정자
8. 담양 소쇄원 정자

**3. 주요특징**

1. 담양 소쇄원 서당
2. 담양 소쇄원 정자
3. 담양 소쇄원 정자
4. 담양 소쇄원 정자
5. 담양 소쇄원 정자
6. 담양 소쇄원 정자
7. 담양 소쇄원 정자
8. 담양 소쇄원 정자

**4. 기타 사항**

세부조사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조사방법	필요	필요	필요

**6. 도면자료**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37/71

#### 1. 총괄사항

원도 보림도 윤선도 원림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3길 10-1
지정연월	1981. 01. 04
유형·종류	원림
문화재종류	문화유산 유형유산
문화재번호	국보 제111호

#### 2. 기본정보

구분	부호	누정원림	원림
기원	원나라(원)	서원	서원
출처	원	원	원
출처	원	원	원

#### 3. 원림사

원림은 원나라의 서원인 원림서원(元林書院)의 유적으로, 원나라의 서원인 원림서원(元林書院)의 유적으로, 원나라의 서원인 원림서원(元林書院)의 유적으로...

#### 3. 원림도

#### 4. 원림사

#### 4. 상세정보

1. 관측정보

2. 유물정보

3. 유물정보

4. 기타 정보

현상	유물	유물
현상	유물	유물
현상	유물	유물

#### 5. 도면자료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38/71

#### 1. 총괄사항

강진 백운동 원림

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백운동 10-1
지정연월	1981. 01. 04
유형·종류	원림
문화재종류	문화유산 유형유산
문화재번호	국보 제111호

#### 2. 기본정보

구분	부호	원림	원림
기원	원나라(원)	서원	서원
출처	원	원	원
출처	원	원	원

#### 3. 원림사

원림은 원나라의 서원인 원림서원(元林書院)의 유적으로, 원나라의 서원인 원림서원(元林書院)의 유적으로, 원나라의 서원인 원림서원(元林書院)의 유적으로...

#### 3. 원림도

#### 4. 원림사

#### 4. 상세정보

1. 관측정보

2. 유물정보

3. 유물정보

4. 기타 정보

현상	유물	유물
현상	유물	유물
현상	유물	유물

#### 5. 도면자료

### III. 승격 등재추진 누정원림 조사.분석

#### 5. 국가유산 승격 지정대상 도출

1차 기초조사 대상지 114개소 가운데 국가유산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지닌 핵심 후보군을 비지정승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역사성·예술성·학술성·경관성 중 하나 이상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닌 11개소를 국가유산 지정대상으로 도출하였다.

##### 승격 대상 현황

국가지정·시도지정 중 승격 0개소 - 기존 지정 유지한다	향토문화유산 중 승격 6개소 - 고흥 하구정, 구례 용호정, 나주 양백정·영호정, 순천 양백정 일원, 화순 송석정·환산정이다
비지정 문화유산 중 승격 5개소 - 나주 계은정·청주정, 영암 회사정, 장성 쌍계루이다	

본 단계는 정밀조사가 수행되기 이전의 예비 검토 단계로, 향후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지의 조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선정 기준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

- **역사성**  
시대성, 역사적 인물·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이다
- **예술성**  
보편성, 특수성, 조형적 우수성, 창의성이다
- **학술성**  
대표성, 지역성, 특이성, 명확성, 연구 기여도이다
- **공통사항**  
희소성, 보존상태, 완전성, 동종 문화유산과 비교 가치이다

### III. 등재추진 대상 조사.분석

#### 5. 국가유산 승격 지정대상 도출

번호	지역구분	누정명	주소(소재지)	국가유산 정보 (국가유산, 시도유산, 향도유산 포함)				
				명칭	지정	분류	소유자	관리자
1	고흥군	하구정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553-1	고흥 용산리 하구정	향토문화유산	주거 / 누정		
2	구례군	용호정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468-1	구례 용두리 용호정	향토문화유산	주거 > 누정		
3	나주시	양백정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42	나주 다도 풍산리 양백정	향토문화유산	주거 > 누정		
4	나주시	영호정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12-1	나주 다도 풍산리 영호정	향토문화유산	주거 > 누정		
5	나주시	나주 계은정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9-1					
6	나주시	청주정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 76 (후석마을)	나주 신석리 청주정		주거 > 누정		
7	순천시	순천 양백정 일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궁각길 47-6	순천 양백정 일원	향토문화유산	정자	육천조씨	육천조씨
8	영암군	회사정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36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축/누정		
9	장성군	쌍계루	전라남도 장성군 북아면 악수리 19			종교 신앙 불교 > 사찰 각루		
10	화순군	송석정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754		향토문화유산	제주양씨학포공파송석정중회		
11	화순군	환산정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서성리 250-6		향토문화유산		유태중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 IV. 전남 누정원림과 세계유산 가치분석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42 /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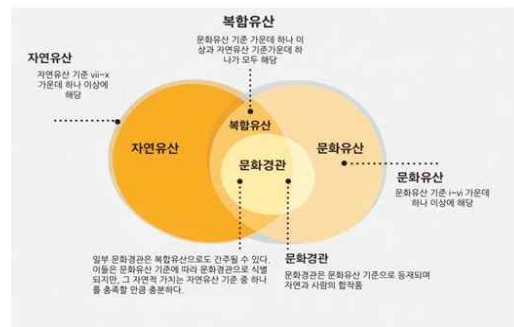
### 가. 세계유산 정의 및 범주

- 세계유산 정의

- 세계유산(World Heritage)의 개념: 인류 전체의 공동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유산.
- 역사적·예술적·과학적·자연적 관점에서 인류 문명과 자연환경의 형성과정을 대표함

- 세계유산 종류

- 문화유산: 기념물, 건물군, 유적지로 세분화 (전체 유산의 약 77.5%).
- 자연유산: 자연 특질물, 지질학적 형성물, 자연 유적지.
- 복합유산: 문화와 자연의 가치가 긴밀하게 결합된 희소 유형.
- 문화경관: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관 (정원·공원 등)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잔존형 경관, 지속형 경관)  
 연상적 문화경관 (종교·예술·문화적 연상 중심)



▲ 세계유산의 유형 분류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43 / 71

### 나. 세계유산 문화경관(WHCLs) - 정의

도입 배경	문화경관 정의 (협약 제47조)
1982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자연환경에서 주어지는 물리적 제약과 기회, 그리고 연속적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힘의 영향 아래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인간 사회와 정주지의 진화를 보여주는 동적 문화유산  사람과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으로 만들어낸 경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창조된 것도 유산으로 인식  서구의 자연-문화 대립 사고에서 벗어난 통합적 유산 개념
1992	
1993	

출처: 202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44 / 71

### 나. 세계유산 문화경관(WHCLs) - 문화경관의 세 가지 유형

01 설계된 경관 <i>Designed Landscape</i>	02 유기적 진화 경관 <i>Organically Evolved Landscape</i>	03 연상적 문화경관 <i>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i>
자연 위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조성한 경관  중요·기념비적 건물 및 건조물군과 연계  심미적 이유에 기인한 정원·공원 경관 포함  	사회·경제·행정·종교적 필요에 의해 형성, 자연과 연관되어 현재 형태로 발전한 경관  진존(와석)항·과거 특정 시점에서 진화 중결 (예 영국 블레나번 산업경관)  지속형·전통적 생활방식과 연계, 진화가 현재도 진행 중 (예 중국 훈어 하나족 더랑노)  	물리적 특성보다 문화적·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관  특정 역사적 사건, 전설, 믿음, 예술·문학 작품과 밀접한 관련  경관 자체의 유형 가치보다 연상되는 무형 가치가 핵심  
예: 독일 테사우-발리츠 정원왕국	예: 영국 블레나번 산업경관	예: 일본 기이 산지의 성지와 참배길

출처: 202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제47bis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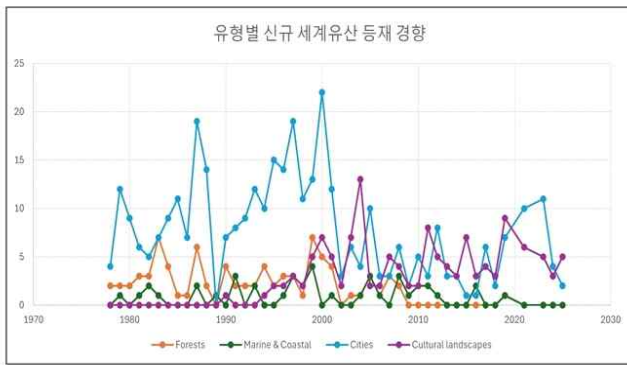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 나. 세계유산 문화경관(WHCLs) - 문화경관 등재 경향

유형별 등재 현황: 도시 유산 358건 / 문화경관 132건 / 산림 유산 84건 / 해양연안 41건

1990년대 이후 문화경관 꾸준히 증가

누정원림은 문화경관 세 가지 유형 중 '자연 위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 조성한 경관에 해당'



Year	New Properties Inscribed	Forests	Marine & Coastal	Cities	Cultural Landscapes
1978	12	2	0	4	0
1979	45	2	1	12	0
1980	28	2	0	9	0
1981	27	3	1	6	0
1982	24	3	2	5	0
1983	29	7	1	7	0
1984	22	4	0	9	0
1985	30	1	0	11	0
1986	31	1	0	7	0
1987	41	6	2	19	0
1988	27	2	0	14	0
1989	7	0	1	0	0
1990	17	4	0	7	1
1991	22	2	3	8	0
1992	20	2	0	9	0
1993	33	2	2	12	0
1994	30	4	0	10	1
1995	29	2	0	15	2
1996	37	3	1	14	2
1997	44	3	3	19	3
1998	30	1	2	11	2
1999	48	7	4	13	5
2000	61	5	0	22	7
2001	31	4	1	12	5
2002	9	0	0	3	2
2003	24	1	0	6	7
2004	34	1	1	4	13
2005	24	3	3	10	2
2006	19	1	1	3	2
2007	22	3	0	3	2
2008	27	2	3	6	4
2009	13	0	1	2	2
2010	21	0	2	5	2
2011	25	0	2	3	8
2012	26	0	1	6	5
2013	19	0	0	3	4
2014	26	0	0	3	3
2015	24	0	0	1	7
2016	21	0	2	1	3
2017	21	0	0	6	4
2018	19	0	0	2	3
2019	29	1	1	7	9
2020	34	0	0	10	6
2021	45	0	0	11	5
2022	24	0	0	4	3
2023	24	0	0	2	5
2024	26	0	0	2	5
2025	26	0	0	2	5
	1258	84	41	358	132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46 / 71

### 다. 연속유산: 산사(山寺)와 서원(書院) 사례 검토

#### 연속유산 정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공유하는 2개 이상의 구성 요소를 묶어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식. 한국 15개 문화유산 중 9개가 연속유산으로 등재됨.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년 등재

- 구성** 통도사, 부석사 등 7개 산지 사찰
- 특성** 자연 계곡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배치, 계단·문물 통한 수직적 공간 연계
- 가치** 산과 경계 없이 연결된 개방 공간 - 산의 생태계 일부로 인식, 지형 훼손 없이 확장
- 등재기준** (iii) 문화적 전통의 독보적 증거

↳ 기도처·수도처 공존하는 한국 특유의 사찰 형식

#### 한국의 서원

2019년 등재

- 구성** 소수서원, 남계서원 등 9개 서원 (600여 개 중 선별)
- 특성** 엄격한 유교적 질서와 학문 기능, 자연을 향해 열린 누각 구조
- 가치** 성리학 전통을 공유하며 다른 지역에 위치한 9개를 하나의 가치로 묶어 등재
- 등재기준** (iii) 문화적 전통의 독보적 증거

↳ 주변 경관 포함 → 유산 구역·완충 구역에 반영

**공통점** 도시와 차단된 자연 속 독립적 학문·수행 환경 | 등재기준 (iii) 공유 | 연속유산 방식으로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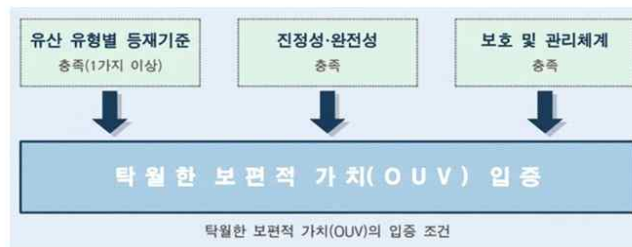
**누정원림 연계** 자연친화 배치·열린 누각 구조 → 누정원림의 특성과 일맥상통, 연속유산 방식 등재 모델 참고 가능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47 /71

### 라. 등재 기준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 OUV의 입증 요건
  - 등재기준(Criteria)
  - 진정성 및 완전성(Authenticity and Integrity)
  - 보호 및 관리체계(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48 /71

### 라. 등재 기준

구분	등재 기준	주제어
문화유산	(i) 인류 창조적 재능의 걸작을 대표할 것	유일한 유산(걸작)
	(ii) 특정 시기나 문화권 내에서 건축·기술·도시계획·조경 등에서 중요한 인간 가치의 교류를 보여줄 것	인간의 중요한 교류(교류)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전통 또는 문명의 독보적 증거를 지닐 것	문화·전통·문명의 독보성·특출함(증거)
	(iv)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기술적 집합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역사적 단계를 증명(발달단계/유형)
	(v) 문화적 전통이나 인간-환경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탁월한 인간 정착지, 토지·해양 이용의 예일 것	환경변화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변(상호작용/사용)
	(vi)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건·전통·사상·예술·문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	무형유산과의 연관(무형가치)
자연유산	(vii) 뛰어난 자연 현상이나 탁월한 자연미를 지닐 것	심미적·경관적 가치
	(viii)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대표하는 지질학적·지형학적 특징을 보유할 것	지질·지형학적 가치
	(ix) 생태계의 진화나 생물학적 과정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줄 것	생태·생물학적 가치
	(x)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한 서식지를 포함할 것	생물다양성 보존과의 연관

## 1. 세계유산 제도 개요

49 / 71

### 마. 세계유산 평가기준

구분	세부 평가요소	주요 내용	
진정성 및 완전성	① 진정성	형태와 디자인	유산의 형태·공간 구성·디자인이 원형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가
		재료와 물질	전통 재료와 공법이 보존·활용되고 있는가
		용도와 기능	유산의 본래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가
		전통·기술·관리체계	전통적 기술, 관리 방식이 계속 활용되고 있는가
		위치와 주변환경	유산의 지리적 맥락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② 완전성	언어 및 무형유산	해당 유산에 관련된 언어, 관습, 신앙 등 무형요소가 유지되고 있는가
		정신과 감정	유산이 지닌 장소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살아 있는가
		기타 내부 외부 요소	유산의 가치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사회적 요인이 관리되고 있는가
		구성요소의 충족	유산이 OUV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규모와 범위	가치와 관련된 특정 및 과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가
보호 및 관리계획	③ 보호체계	외부 영향의 통제	개발, 훼손, 방치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고 있는가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유산이 법령이나 제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④ 관리체계	경계 및 완충지대 설정	명확한 경계(boundary)와 완충지대(buffer zone)가 설정되어 있는가
		장기적 보호정책	국가·지자체의 장기적 유산보존정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관리시스템 존재	공식 승인된 관리계획 또는 관리체계가 존재하는가
		이해관계자 참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⑤ 지역사회 및 원주민 참여	인력·재정 자원의 적정성	전문 인력 및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기관별 역할이 명확한가
		위협요인 대응 및 모니터링	훼손·개발·기후변화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및 점검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⑥ 연속·복합유산 관리	참여와 동의	지역사회 및 원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전통지식 반영	공동체의 전통 지식과 관행이 관리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통합관리체계	연속유산의 구성요소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복합유산의 조정관리	문화·자연 요소가 결합된 복합유산의 관리전략이 상호 조정되어 있는가

## 2. 세계유산 등재 현황

50 / 71

### 가. 한국의 세계유산 목록

-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지속적 등재  
→ 총 17건 보유(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
- 1995년 최초 등재  
석굴암·불국사·해인사 정경판전·종묘  
→ 왕실·불교·유교 중심 유산
- 최근 확장:  
가야고분군(2023)·반구천의 암각화(2025)  
→ 고대문명·선사문화 가치 인정
-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한국의 갯벌
- 동향: 왕실·종교 중심 → 고대문명까지 다각화

유산 유형	영식	연 번	유산명	등재기준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문화유산	단독	1	석굴암·불국사	●			●								
	단독	2	해인사 정경판전				●		●						
	단독	3	종묘				●								
	단독	4	창덕궁		●	●	●								
	단독	5	화성		●	●									
	연속	6	경주역사유적지구		●	●									
	연속	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								
	연속	8	조선왕릉				●	●		●					
	연속	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	●							
	연속	10	남한산성		●		●								
	연속	11	백제역사유적지구		●	●									
	연속	12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연속	13	한국의 서원				●								
	연속	14	가야고분군				●								
	자연유산	단독	15	반구천의 암각화	●			●							
연속		16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			
연속		17	한국의 갯벌											●	

## 2. 세계유산 등재 현황

51 / 71

### 가. 한국의 세계유산 목록



## 2. 세계유산 등재 현황

52 / 71

### 나.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 잠정목록 총 13건 (문화 9 · 자연 4)
- 1994년 이후 단계적 확대  
→ 기존 후보 일부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
- 유형: 고고·성곽·전통건축·습지·지질 등 다양화
- 특장: 연속유산 확대 + 기준 vi 증가  
→ 역사사상 맥락 강조
- 한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유형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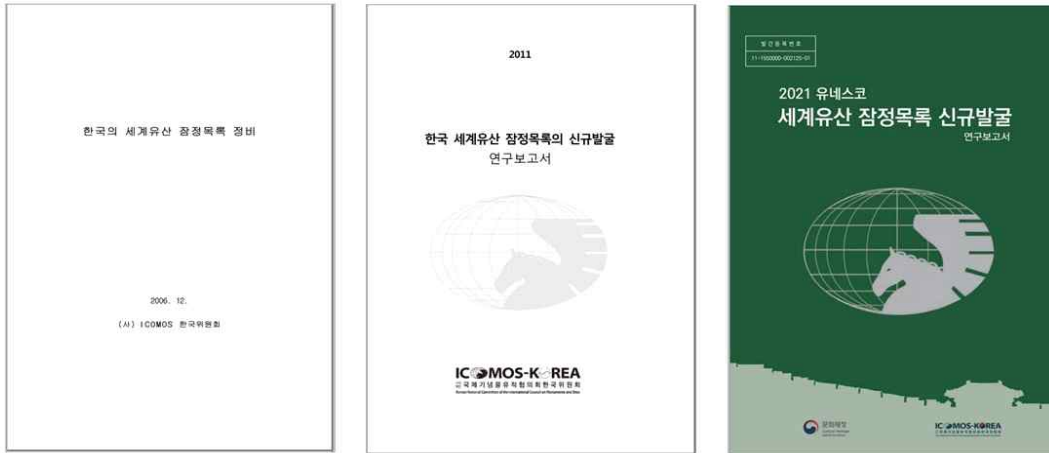
세계유산은 문화경관 확대 추세  
→ 누정원림의 잠정목록 등재 가능성 및 타당성

유형	등재 형식	연번	유산명	종류	등재기준												
					i	ii	iii	iv	v	vi	vi i	vi ii	ix	x			
문화유산	단독	1	강진도요지	고고미술	●	●	●	●	●								
	단독	2	염전	근대선교			●		●								
	연속	3	중부내륙 산성군	성곽유산			●	●	●								
	단독	4	낙안읍성	전통건축			●	●	●	●							
	단독	5	외암마을	전통건축			●	●	●	●							
	단독	6	한양도성	전통건축			●	●	●	●							
	단독	7	화순 운주사 석물·석탑군	고고미술	●		●	●									
	단독	8	양주 회암사지 유적	고고미술			●										
	연속	9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근대선교			●										
자연유산	단독	10	우포늪	식생							●					●	
	단독	1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식생							●					●	
	연속	12	남해안 일대 공룡과석지	지질								●	●	●			
	연속	13	한국갯벌(왕창)	식생													●

### 3. 등재 경향 및 선행연구 검토

53 /71

#### 가.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추진 검토



### 3. 등재 경향 및 선행연구 검토

54 /71

#### 가.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추진 검토

구분	2006	2011		2021
유산명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	담양 누정제영(樓亭題詠) 원림	보길도 부용동 원림	정원과 누정문화
유산종류	문화유산(연속)	문화유산(연속)	문화경관(단독)	문화유산(연속)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고서면·룡산면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고서면·룡산면 일대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항리 일대	전국 분포(서울·경기·충청·영호남 등)
구성 대상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독수정, 송강정, 면양정, 풍암정, 환벽당(8개소)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독수정, 명옥헌, 송강정, 면양정(7개소)	세연정, 동천석실, 낙서재, 곡수당 등 보길도 부용동 원림 일원	궁궐정원, 사찰정원, 주택정원, 마을정원, 별서정원, 누정
국가 지정현황	사적, 전남기념물, 광주광역시 기념물, 문화재자료	명승 및 시·도기념물	명승 제34호	사적·명승 등
적용 등재기준	ii, iii, iv, vi	ii, iii, vi	ii, iv, vi	iii, iv, vi

### 3. 등재 경향 및 선행연구 검토

#### 가.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추진 검토

명칭	OUV	등재기준				진정성	완전성	보존관리능력
		ii	iii	iv	vi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	16세기 이후 담양 지역의 지주이자 학자였던 사대부가 조성 거주한 정자와 정원을 대상으로 하며, 무등산 자락 계류를 둘러싼 조선시대 원림의 대표 사례로서 시가문화의 현창이라는 공통성을 지님	●	●	●	●	8곳의 유적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조성하고 향유한 원림으로, 시 창작과 자연 감상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과 조경예술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진정성이 인정됨.	각 유적은 위치 이동이나 급격한 지형 변경 없이 원형의 상당 부분이 유지됨. 문헌 기록과 제형 시의 내용이 현재의 위치와 경관과 대체로 일치함. 다만, 공주읍 조영으로 식영정 전연경관이 변화하였고, 송강정 주변은 도로 개설로 지형 변경이 발생함.	8곳의 유적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함.
담양 누정제영(濬亭題嶺) 원림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조경술을 보여주는 사가원림인 관영 정원이 아닌 한국 특유의 원림 형태와 이용 행태를 잘 드러낸 무등산 지역과 연계된 탁월한 지리적 입지와 풍수 원리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은 '일등상승'으로 불릴 만큼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	●	●	●	누정제영이 장소성과 함께 전승되고 있으며, 담양 지역 시민들의 문화 활동과 성과가 국문학 발전의 기반을 이룬 성산시대 연암정 시단이 형성되었고, 소쇄원·식영정·서암당 연암정 등이 대상으로 한 다수의 제영 시가 오늘날까지 전해짐.	원림 조경예술과 누정제영 문화가 결합되어 만경소의 가치로 표현될 단일 유적이 아닌 7개 이상 권역이 상호 연계된 연속유산으로 구성되어, 왕래와 교류를 통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함. 연작 제영 시는 원림 경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임.	일부 대상 지역은 광주도 조성과 도로 개설로 원림의 경관이 훼손되었으며, 원림 경계부에 주택이 입지해 있어 완충지대 확보에 한계가 있음.
보길도 부용동 원림	보길도 부용동 원림은 윤선도가 조성한 원림임.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 불교 등 동양 사상을 포괄하면서 자연과의 융합을 실현한 조선시대 대표적 원림유적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적극 수용한 조성 방식은 타 국가 정원과 차별되는 독자적 특성을 지님.	●	●	●	●	『보길도지』에 부용동 원림과 당시 경관·생물상·상세이 기록되어 있음. 윤선도는 「어부사시사」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보길도의 자연과 생활을 이상향으로 표현하였으며, 그가 열명한 바위와 산봉우리의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 있음.	보길도 원림은 섬 전체에 분포한 유적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집합유산임. 윤선도 개인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섬 전체의 지형과 경관을 활용한 독특한 조경술을 운연이 보여줌.	보길도는 윤선도 유적을 중심으로 일지가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 압력이 낮아 보호 구역 설정에 큰 문제는 없음. 다만 기존 복원사업이 원형 고증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향후 복원 시 철저한 고증이 요구됨.
정원과 누정문화	한국의 정원은 유교·풍수 등 사상과 결합된 공간으로, 건축·수경·식재·석물·연못 등의 요소와 함께 학문·시와 풍류 등 무형적 가치가 결합된 조선 사대부 문화의 총체적 표현임	●	●	●	●	한국 정원이 조성 당시의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진정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한국 정원이 본래의 구성요소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전문 용어를 통해 원형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지 분석이 요구되며, 동아시아 정원의 비교연구 및 세계 정원사 속에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함.	한국의 정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명승 등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유산의 가치 전달을 위해 보호구역 설정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장 또는 조정이 요구됨.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 가. 표본 선정 기준 및 대상

선정 기준

① 기존 세계유산 검토 대상 우선  
ICOMOS 한국위원회 잠정목록 연구보고서 검토 사례 우선 선별. 학술대회·기초연구·타당성 검토 등에서 세계유산 담론에 포함된 지역 및 국제 대표 사례 반복 언급 대상 우선.

② 원림의 현존성 및 공간 분석 가능성  
누정을 단일 건축물이 아닌 자연·건축·문학이 결합된 문화경관적 구조로 이해. 원림의 실재적 잔존 여부가 필수 조건. 공간구조가 일정 부분 이상 유지된 사례 포함.

③ 누정원림 중 8개소  
1차 선별 대상으로 도출된 약 114개소 가운데, 누정원림으로 분류된 20개소 잠정 검토 원림의 공간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문헌 기록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 분석 대상 선정

**표본 선정의 의미**  
-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가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초 분석 단계  
- 전남 누정원림의 가치 구조 형성 방식 파악 목적  
- OUV 충족 여부 판단이 아닌 → 가치 유형 도출을 위한 연구 설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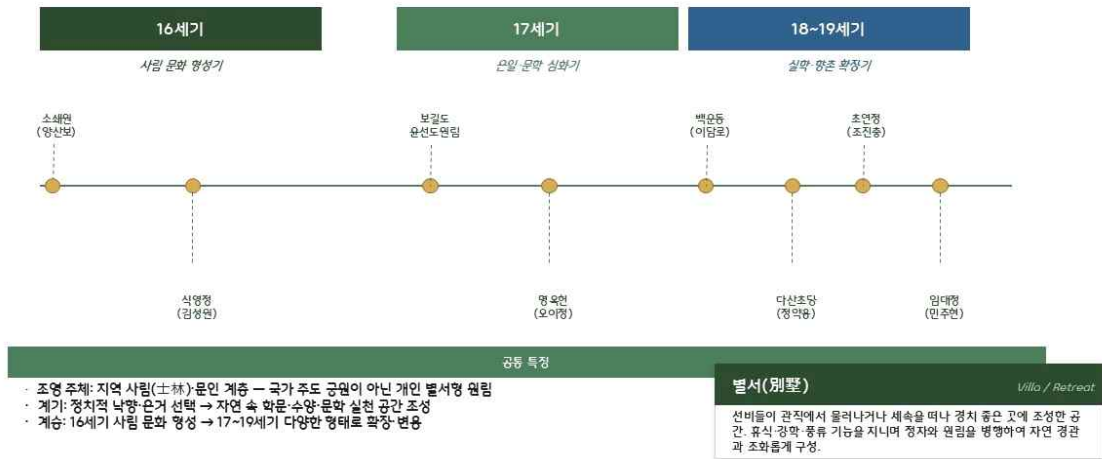
대상명	소재지	지정 현황
강진 백운동 원림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여리 546 동 33필지	명승
강진 다산초당 일원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6	명승
담양 소쇄원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123	명승
담양 명옥헌 원림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3, 511	명승
담양 식영정 일원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산 75-1	명승
순천 초연정 원림	전남 순천시 송광면 삼정리 766	명승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72-2	명승
화순 임대정 원림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601	명승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57 / 71

### 가. 표본 선정 기준 및 대상

- 조영 주체와 창건 시기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58 / 71

### 나. 권역별 특성

- 무등산권(광주·담양·회선) : 약 30여 개 누정 분포

■ 무등산권(광주 담양 회선) 누정현황(30개소)

연번	명칭	창건시기	창건자	소재	비고
1	황벽당	1551	김윤재	광주 달구 증효동	영송 제107호
2	봉암정	1614	김여보	광주 북구 증효동	주 문화재자료 제15호
3	취기정	1680	김관식	광주 북구 증효동	
4	상림정	1900	원병일	광주 북구 증효동	
5	영암정	1624	원우현	담양군 남면	
6	만수정	1624	원우현	담양군 남면	
7	고사정	1678	최후한	회선군 회선읍	
8	불암정	1948	송정순	회선군 이서면	
9	망미정	1666	정지중	회선군 이서면	
10	독수정	1393	전신만	담양군 남면	▶ 기념물 제61호 *무등산권 가장 이른 정자
11	산월정	1457	김자수	담양군 창평면	
12	죽림채	1450	조수만	담양군 고서면	
13	소쇄원	1519	양산보	담양군 남면	
14	명암정	1533	송 손	담양군 봉산면	▶ 기념물 제6호
15	관수정	1544	조여중	담양군 고서면	
16	석영정	1500	김경환	담양군 남면	▶ 기념물 제1호
17	서암정	1500	김경환	담양군 남면	
18	부흥정	1972	맹갈당씨 문중	담양군 남면	
19	수남학구당	1570	25개 성씨 회사	담양군 고서면	▶ 문화재자료 제12호
20	연계정	1577	유형초	담양군 대덕면	
21	송암정	1587	맹갈당씨 문중	담양군 고서면	▶ 기념물 제1-2호
22	동강초대	1650	조국진	담양군 고서면	
23	명옥헌	1650	오이정	담양군 고서면	
24	봉황각	1803	이동아	담양군 대덕면	
25	담곡루	1830	고광일	담양군 창평면	
26	운월정	1861	이희선	담양군 창평면	
27	송추정	1903	김규환	담양군 고서면	
28	소산정	1927	조순환	담양군 고서면	
29	연암정	1928	조유환	담양군 고서면	
30	관가정	1949	조희만	담양군 고서면	

### 무등산권 누정원림 집적 배경

- ① 자연환경적 요인**  
완만한 산지-풍부한 수계-계곡과 구름의 결합 - 별서형 원림 조성 최적 조건 제공
- ② 사림 세력의 집적**  
16세기 이후 호남 사림 성장-정착. 중앙 정치 퇴임 사대부 낙향 → 학문 공동체 형성
- ③ 향촌 자율성 강화**  
중앙 권력과 거리 유지, 문·학·문 활동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적 기반 형성
- ④ 가사문학 전통 형성**  
담양 중심 가사문학 전통이 누정 공간 매개로 확산 → 지속적 원림 조영 촉진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59 / 71

### 나. 권역별 특성

보길도권	윤선도 원림	강진권	백운동 원림·다산초당
<b>원림 구성</b>	낙서재·곡수당·동천석실·세연정 등 섬 전역 분산 배치 - '원림유적 세트'로 이해	<b>강진 백운동 원림 (이담로)</b>	
<b>조명 원리</b>	자연지형 최대 활용·수계 흐름과 시선 전개를 설계, 방자·제방·암반 등 복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출산 자락 심산유곡 입지 - 은둔형 공간 구조</li> <li>· 유상곡수 수경관, 차경 기법 - 월출산 옥판봉 차경</li> <li>· 다산 정약용 「백운동 12경」 명명으로 재의미화</li> <li>· 『백운첩』 그림·시 → 경관 구성 고증 가능</li> </ul>
<b>문학 창작</b>	『어부사시사』 창작 공간 자연 암석·봉우리에 명정 부여 -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실천	<b>강진 다산초당 (정약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유배 중 약 11년 체류, 500여 권 저술 집필</li> <li>· 실학사상 집대성 - 학문 공동체 형성 거점</li> <li>· 백련사 예정선사와 학문 교류 → 차문와 연계</li> <li>· 월출산·만덕산 산지 + 강진만 수계 복합 문화경관</li> </ul>
<b>진정성 근거</b>	『보길도지』(윤위, 5대손 기록) 『산중신곡』, 『어부사시사』 등 문과 텍스트 잔존 지명		
<b>등재 전략</b>	보길도 단독 + '윤선도 유산권'(예남 금쇄동·녹우당 연계) 방안도 검토 가능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60 / 71

### 공간구조 ① - 입지와 수계 구성

누정원림의 입지 원리	수계(水系) 및 식재 구성
<b>성리학·풍수 기반 입지</b> 산지 능선·계곡 흐름·수계 방향·배산임수 조건 고려 자연의 골을 따르는 배치 전략 - 자연 지형 훼손 최소화	<b>수계의 이중 역할</b> 연못·계류는 경관 중심축이자 동선·시선 흐름을 유도하는 구조 장치 단순 장식 요소가 아닌 공간 조직의 핵심
<b>조망 축(軸) 설정</b> 전면에 계곡·하천·연못, 원경에 산세가 시야 중심에 놓이도록 계획 정자는 시각적 중심점 역할	<b>유상곡수(流觴曲水)</b> 계곡수를 원림 내부로 끌어 굽이치게 흐르게 하는 수경 소쇄원 48명 제21명, 백운동 12경 '곡수유상', 부용동 곡수당에서 확인
<b>차경(借景) 기법</b> 담장 밖 산봉우리·계곡·하천을 원림 내부처럼 끌어들이어 공간 경계 확장 자연과 인간 공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사유 방식	<b>식재의 상징 체계</b> 매화·소나무·대나무·국화(사군자) - 절개·고결·은일 상징 연꽃 - 청정·군자의 덕목 기존 자연 식생 존중 + 선택적 상징 식물 도입.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61 / 71

### 공간구조 ② - 자연지형과의 통합 방식

누정원림은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기보다 양자의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인공 구조물은 자연을 지배·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지형을 존중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한다.

<p><b>01 공간 개방성</b></p> <p>담장을 두르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확보. 소재원의 경우도 사방 완전 폐쇄가 아닌 일정한 개방성 유지.</p>	<p><b>02 수경 요소 도입</b></p> <p>계류 끌어들이기·연못 조성, 화계·계단·곡수거·석가산·과석·화분 배치 → 사선 중심과 공간 리듬 형성.</p>	<p><b>03 외부 자연의 유입</b></p> <p>담장 밖 산세·수계를 향해 시야 개방. 차경 기법으로 원거리 산봉우리와 내부 구성 요소 시각적 연결.</p>	<p><b>04 명명(命名)·암각 행위</b></p> <p>바위·계곡·봉우리에 이름 부여 → 자연을 언어·의미 체계 속으로 편입. 이름이 문학 텍스트 속에서 재해석되는 순환 구조.</p>
--	--	--	--

자연 지형과 인공 요소가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문화경관 -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구현한 조선 시대부 문화의 유형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62 / 71

### 라. 문학·사상적 맥락과 문화경관적 성격

문학적 맥락 - 주요 창작 사례	사상적 맥락 - 복합 사상 지형
<p><b>담양 소재원 「소재원 48명」(김인후)</b></p> <p>원림의 공간 구조와 경관 요소를 시적 언어로 구체화. 계류·정자·식재·암반을 세밀하게 묘사한 연작시.</p>	<p><b>성리학적 자연관 (기반)</b></p> <p>자연 = 도(道)를 체현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장. 자연 지형 존중, 최소한의 인공 개입. 자연 지배가 아닌 의미 드러내기의 공간 조성.</p>
<p><b>담양 식영정 「성산별곡」(정철) / 「식영정 이십영」</b></p> <p>식영정·무등산 일대 풍광을 배경으로 자연 속 풍류 노래. 임억령·김성원·고경명·정철 4인 80수 집단 창작.</p>	<p><b>도교·불교적 수용 (확장)</b></p> <p>유교 기반 + 도교적 은일 사상 + 불교적 자연관의 사상적 개방성. 윤선도 부용등의 은둔 세계관, 단산초당에서 백련사와의 차문와·불교 사유 교류.</p>
<p><b>보길도 원림 「어부사시사」(윤선도)</b></p> <p>자연 속 은둔과 물어일체 경지 형성화. 섬 곳곳 자연지물에 명칭 부여 → 원림을 사상적 무대로 확장.</p>	<p><b>이중적 성격 - 은둔과 교류</b></p> <p>누정원림은 고립된 은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지식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개방적 교류의 장. 양준·학문 공동체의 중심 거점.</p>
<p><b>강진 백운동 「백운동 12경」(정약용)</b></p> <p>경관 명명을 통한 의미 부여. 「백운첩」 그림·시로 원림 경관 구성 고증 가능.</p>	<p><b>실학사상의 연계 (강진 단산초당)</b></p> <p>유배지에서도 학문 집대성. 정약용 500여 권 저술 - 누정원림이 단산 경관 공간을 넘어 지적 생산의 장소임을 증거.</p>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63 / 71

### 마. 세계유산 등재 기준 검토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 전통 또는 문명의 독보적인 증거를 지닐 것」**

논증: 조선시대 선비 문화와 생활 전통의 경관적 구현

누정원림은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선비정신과 삶의 방식이 자연 경관 속에 구현된 독특한 문화경관이다. 은거와 수양, 문학 창작, 지식인 교류를 증시한 조선시대 선비 문화의 생활 양식이 실제 공간으로 실현된 사례로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고 실천한 문화 전통을 오늘날까지 전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다.

차별성 논거 — 한국의 서원(2019 등재)과의 비교

한국의 서원	전남 누정원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리학 교육 제도와 제향 기능 중심</li> <li>· 제도적·공동체적 공간의 증거</li> <li>· 성리학 이념의 제도적 정착을 보여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사유와 자연 실천이 결합된 별서형 공간의 증거</li> <li>· 선비정신이 일상의 삶과 자연 인식 속에서 경관으로 체화</li> <li>·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독자적인 가치 영역 형성</li> </ul>

## 4.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요소

64 / 71

### 마. 세계유산 등재 기준 검토

**기준 (vi) 「탁월한 보편적 의미가 있는 사건·전통·사상·예술·문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

논증: 문화·사상이 공간 설계에 직접 반영된 설계된 문화경관

누정원림은 시가·문학 작품, 현판과 문집, 명명(命名) 행위 등을 통해 선비의 사유와 감성이 경관에 직접 투영된 공간으로, 문학적 표현과 물리적 장소가 긴밀하게 결합된 문화경관이라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 이 결합은 단순한 역사적 연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명·시문·현판 등이 경관 구성 원리와 불가분하게 통합된 설계된 문화경관의 성격을 지닌다.

핵심 논거 — 연상적 문화경관과의 차별점

× 연상적 문화경관 (Associative)	✓ 설계된 문화경관 (Designed)
<p>문학 사상이 사유에 장소와 연관</p> <p>특정 역사적 사건, 전설, 예술·문학 작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물리적 경관 자체보다 연관된 문화·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유형.</p>	<p>문학 사상이 실제에 직접 내재</p> <p>명명·시문·현판 등이 경관 구성 원리와 불가분하게 통합. 소재면 48명, 어부사시사의 명명 행위, 백운동 12경 등은 공간 설계 자체의 일부로 기능.</p>

기준 (vi)는 단독 적용이 아닌 기준 (iii)과의 결합 속에서 전남 누정원림이 지닌 복합적 가치의 증체적 성격을 논증함

##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 연구

# V.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 추진 기본계획(안)

## 1. 세계유산 등재 기본 계획(안)

6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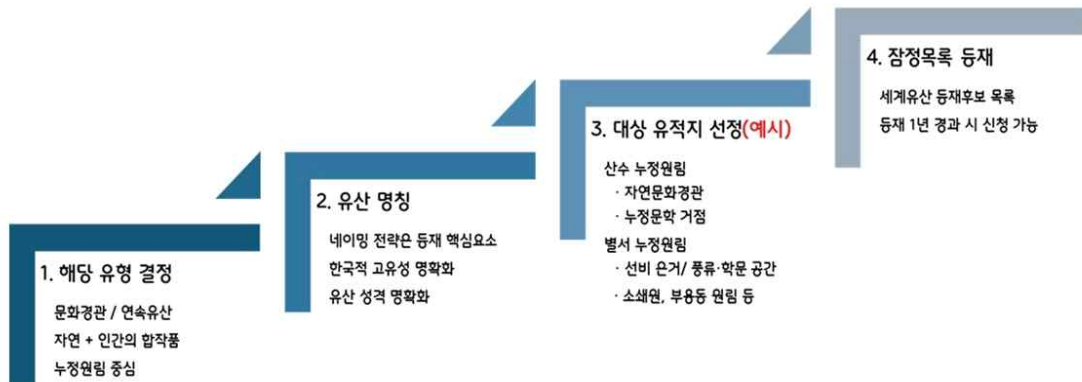
### 가. 잠정목록 등재 방안

- 가. 전남 누정원림의 자료 조사 및 잠정목록 등재 로드맵 작성
  - 기초 자료 조사 및 정밀 실태 조사 /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전남 주정의 가치 발굴
- 나. 전남 누정원림의 유형별 분류 및 유사 유산 비교 연구
  - 전남 누정원림의 유형별 분류 / OUV 논리 심화
- 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종합 전략 연구
  - 등재 기준 분석 및 적용 연구 / 연속 유산으로서의 등재 타당성 연구
- 라. 위협 요인 분석 및 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유산 구역 설정 및 완충 구역 관리 계획 수립 연구 / 위협 관리 계획 수립 지원 연구
- 마. 유네스코 제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국가유산위원회(세계유산분과) 심의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

## 1. 세계유산 등재 기본 계획(안)

67/71

### 나. 잠정목록 추진 절차



## 1. 세계유산 등재 기본 계획(안)

68/71

### 다. 연차별 연구 사업 수행

연차	핵심과업	용역수	연간예산
1차년도	학술기반 조성 및 대상 유산의 선정	5건	6.8억
2차년도	유형별 분류 및 유사 유산 비교 연구	5건	8.7억
3차년도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종합 전략 연구	5건	7억
4차년도	위협 요인 분석 및 관리 계획 수립	5건	9.3억
5차년도	유네스코 제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5건	8.7억
5개년 총계		25건	40.5억

## 1. 세계유산 등재 기본 계획(안)

69/71

### 다. 연차별 연구 사업 수행

연차	핵심 과업	연구사업 내용	세부 행사
1	학술기반 조성 및 대상 유산의 선정	1. 전남 누정원림 실태 정밀 조사 및 유산 지정 연구 - 미등록 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기반 마련 - 누정원림의 핵심 가치 도출 - 훼손 현황 및 보존 관리 실태 조사 2.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 로드맵 설계	등재 대상 후보군 기초 자료 확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2	유형별 분류 및 유사 유산 비교 연구	1. 유형별 분류 및 특징 분석 연구 : OUV 구체화 2.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실측 및 유산 구역 설정 기초 연구 3. 국내외 유사 유산 비교 연구 : 동아시아 정원 문화 속 한국 누정원림의 독창성 4.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누정원림의 독창성 및 OUV구체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대상 지역 주민 중심 세계유산 강좌 개최, 등재추진위원회 구성

## 1. 세계유산 등재 기본 계획(안)

70/71

### 다. 연차별 연구 사업 수행

연차	핵심 과업	연구사업 내용	세부 행사
3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종합 전략 연구	1. 세계유산 등재 기준 분석 및 적용 연구 2. 연속유산으로서의 등재 타당성 연구 3. 잠정목록 신청서 국영문 초안 작성에 관한 학술적 지원 방안 연구 4.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홍보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을 위한 집중 세미나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관련 전시회
4	위협 요인 분석 관리 계획 수립 연구	1. 유산 구역 설정 및 완충 구역 관리 계획 수립 연구 : GIS 활용 및 경관 시뮬레이션 2. 위협 요인 분석 및 위협 관리 계획 수립 지원 연구 3. 국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준비 및 모의 패널 평가 대응 자료 연구 4. 잠정목록 신청서 초안 작성 및 전문가 자문 : OUV, 비교 분석, 보존 관리 계획 등 상세 기술	유네스코 기준 부합 신청서 완성,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모의 패널팀 평가 시뮬레이션 개최

## 1. 세계유산 등재 기본 계획(안)

71/71

### 다. 연차별 연구 사업 수행

연차	핵심 과업	연구사업 내용	세부 행사
5	유네스코 제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1. 대한민국 정부의 잠정목록 신청서 유네스코 공식 제출 2.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 지원 및 보고서 작성 3. 잠정목록 등재 후속 조치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	외교부, 유네스코 주재 대표부의 외교적 노력, 잠정목록 등재 기념 국제 포럼

# 감사합니다



##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

조태성(전남대학교)

### 차 례

1. 서언
  2. 누정원림과 역사문화경관의 상관성
  3. 누정원림의 역사문화경관적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
    - 3.1 역사문화경관적 구성 요소
    - 3.2 작동원리로서의 ‘차경’과 ‘풍류’
  4. 결어
- \* 참고문헌

### 1. 서언

이 글은 우리의 전통 유산인 누정(樓亭)과 원림(園林)이 현대적 관점에서 매우 모호 또는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혹은 건축적 실체, 인위적 조원(造園)으로서만 정의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누정과 원림이 ‘역사적 사건과 풍류의 뒤얽힘’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관점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누정원림의 경계를 구획할 수 있게 되며, 더불어 유산으로서의 대상 선정과 가치 판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누정 개념의 엄밀화를 시도할 것이다. 기존의 조사나 연구에서 강학소, 재실, 활쏘기 장소 등 기능적 건축물까지 누정에 포함시켰던 것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은일소요처(隱逸逍遙處)’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건축물로 누정의 범위를 제한하여 그 문화경관적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자는 것이다.

둘째, 원림 개념의 확장 및 통합 시도이다. 원림을 단순히 ‘인공이 가미된 어떤 곳’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거기에 누정을 얹힘으로써 재해석되고 재인식될 수 있는 ‘탄생된 경관 그 자체’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정과 원림은 각각 분리된 객체가 아닌 ‘누정원림’이라는 합일된 역사문화경관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누정원림에 역사성 혹은 중첩된 기억의 투영을 시도할 것이다. 경관을 시간의 중

첩과 기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역사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누정원림을 당대의 사유와 풍류가 현재와 조우(遭遇)하는 문화적 텍스트로 읽어보자는 것이다. 역사문화경관은 유일무이한 역사적 작품이며,<sup>1)</sup> 이를 구성하는 지형, 수공간, 식생 그리고 그곳에 새겨지거나 남겨진 ‘정명(亭名)’과 ‘제영(題詠)’ 등은 모두 그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관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누정원림은 자연이라는 원생경관(Natural Landscape)이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통해 문화경관으로 천이(Natural Landscape)되는 과정<sup>2)</sup>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누정원림의 구성 요소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여 하나의 완결된 역사문화경관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고찰함으로써 누정원림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를 기대한다. 즉,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이 단순히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정원림이 가진 세계유산적 가치를, 이미 규정된 기준에서,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 2. 누정원림과 역사문화경관의 상관성

조선시대 여러 문헌들에서 누정은 ‘누’와 ‘정’의 합성어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그런 전통은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얼핏 관가(官家)와 사가(私家)의 성격으로도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의해 누정은 당시부터 이미 일반적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주로 관(官)의 통치적 목적을 위한 기능이었거나, 아니면 지극히 사적인 사대부 개인의 은일소요(隱逸逍遙)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읍성의 출입처나 경관이 빼어난 곳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였다.

누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기여를 남긴 연구는 ‘전남지역의 누정조사 연구(1985~1991)’<sup>3)</sup>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남의 누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초점을 두고,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향후 연구성과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누정연구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했다는 점은 아쉽다. 즉, ‘어떤 류의 건축물들을 누정에 포함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옛 문헌을 기반으로 현장조사 등 전수조사된 대상을 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 결과, 누정은 ① 시단(詩壇), ② 강학소(講學所), ③ 재실(齋室), ④ 별서(別墅), ⑤ 향약시행처(鄉約施行處), ⑥ 양로(養老)·교화소(教化所), ⑦ 사장(射場), ⑧ 종회소(宗會所), ⑨ 치수(治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한 바 있다.<sup>4)</sup> 이는 기 전수조사된 건축물들에 대한 일반적 분석의 결과일 뿐, 조사 대

1) 김규연(2020), 「역사문화경관의 계획 및 관리 요소로 재료의 보존과 구분」,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79쪽.

2) 김보람·성종상(2025),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적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제53권 5호(통권 231호), 한국조경학회, 4~5쪽. 참조.

3)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현 호남학연구원).

상 건축물들이 모두 ‘누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 글의 천착 결과가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에 있다는 점과 ‘역사문화경관’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②, ③, ⑤, ⑥, ⑦, ⑧, ⑨ 등의 기능이 주가 되는 건축물은 향후 누정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기능이 중첩적이기는 하지만 애초의 건립 목적이 ①, ④ 등에 주로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기(記)’, ‘~제영(題詠)’ 등을 통해 건립목적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누정의 범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5)</sup>

즉, 누정이 뚜렷한 한 가지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소용에 의해 몇 가지 기능이 중첩되었다고 할 지라도, 애초 누정 건립의 목적이 ‘은일소요(隱逸逍遙)’에 더욱 무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라도 누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정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림 또한 애초부터 인위적으로 ‘조영(造營)’된 공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조태성에 의하면, 원림이라는 용어는 신라시대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이때 기록에는 ‘법당 나아가 성안의 큰 건물 주위 조그마한 뒷동산’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원림은 ‘축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축조’는 ‘집 안 어딘가’ 또는 ‘울타리 안 어딘가’였다고 확인된다.<sup>6)</sup>

이로 보면 원림이란 ‘자연에 약간의 인공을 가하여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삼은 것’ 또는 “동산[園]과 숲[林]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배경으로 삼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집칸과 정자를 배치한 것”<sup>7)</sup>이라는 원림의 현재적 개념보다는 훨씬 작은 범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의는 ‘자연’을 공통 분모로 두고 ‘인공’이나 ‘집칸, 정자’를 가미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지만, 이런 경우에 누정과 원림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누정은 원림 조영의 한 요소로 전락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원림을 ‘자연에 약간의 인공을 가함으로써 그 주변이 새로운 경관으로 탄생되는 영역’이라고 설정해 보면 어떨까? 누정을 앞함으로써 원림이 생성되는 것, 누정을 앞함으로써 자신의 눈에 보이게 되는 새로운 경관 혹은 재해석되거나 특정한 인식이 투영되는 경관 그 자체를 원림이라고 설정해 보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누정은 원림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즉, 자연의 특정한 어떤 곳에 누정을 앞함으로써 새로운 경관이 탄생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경관 자체를 원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정과 원림은 별개의 경관이나 경관구성요소가 아니라 합일된 경관 그 자체로 보아야 하며, 이로부터 우리는 ‘누정원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지정하고, 그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8)</sup>

4) 김동수(1985), 「전남지역의 누정조사 보고 (1)」, 『호남문화연구』 제14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64쪽.

5) “건축물의 명칭을 통해 그 기능을 확연히 구분짓기는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누정의 개념을 일단 ‘○○樓’, ‘○○亭’, ‘○○亭舍’, ‘○○閣’으로 지칭되는 건축물로 한정시키기로 한다.”와 같이 이러한 시도의 시작은 김신중(「전남의 樓亭題詠 연구」, 『호남문화연구』 24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6, 253쪽)이다.

6) 조태성(2023), 「누정원림연구의 지향과 가치」, 『호남학』 74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68~73쪽 참조.

7) 유흥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남도답사 일번지』, 창비, 335쪽.

8) 이하 이 글에서 사용하는 ‘누정원림’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한다. 물론 ‘누정원림’이라는 용어 이외

물론 백운동원림이나 소쇄원원림, 부용동원림처럼 애초부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조원한 경우 역시 하나의 경관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원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이런 경우의 조원 행위는 조영자의 특별한 의도-그것이 사상이든 문예이든-가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 또한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의 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920년대 칼 사우어(Carl Sauer) 등에 의해 ‘문화는 동인(agent), 자연은 매개체(medium), 문화경관은 결과(result)’라는 논리로 체계화되었으며, 원생경관(natural landscape)에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의 ‘전이(transformation)’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경관 연구는 단순한 물리적 경관의 분석을 넘어서, 역사적 기억, 사회·문화적 정체성, 집단 기억,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삶의 방식 등 다양한 무형적 요소들을 포괄한다<sup>9)</sup>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경관이란 특정 지역에서 인간과 자연이 오랜 시간 상호 작용하여 형성한 경관으로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결합된 총체적 공간을 의미한다<sup>10)</sup>는 것이며, ‘지역이라는 지리학적 객체에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분리할 수 없게 통합된 특별한 사회현상’이면서 ‘지리학적 객체에 인간이라는 주체가 윤리적, 미적 활동 등 문화적 활동을 통합하면서 참가하는 특별한 사회적 현상’으로 정의<sup>11)</sup>될 수 있다.

1992년에 들어서 제1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다.<sup>12)</sup> 이후 유럽에서는 2000년 유럽경관협약을 통해 이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입법하였고, 일본에서도 문화경관 개념을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경관법」, 2016년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적 경관에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나 문화적 경관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9년 포괄적인 문화재 개념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하고 2007년에 명승, 2010년에는 역사문화환경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문화경관 개념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sup>13)</sup>

그리하여 김민동<sup>14)</sup>은 문화경관이 지역이라는 지리학적 객체에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분리할 수 없게 통합된 특별한 사회현상이며, 문화경관은 단순한 자연환경과는 다르며 문화재와 밀접

에도 ‘별서원림’ 등의 용어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관련 분야의 향후 논의를 기대한다.

9) 김보람·성종상(2025), 앞의 논문, 같은 쪽.

10) <https://whc.unesco.org/en/culturalandscape>. 김보람·성종상(2025), 같은 논문, 4~5쪽 재인용.

11) 김민동(2018),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적 경관 개념의 도입-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에서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49쪽.

12)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경관 개념을 더욱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92년부터 유네스코는 문화경관을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명확하게 정의된 경관(defined landscape designed and created intentionally by man)’, 두 번째는 인간 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발전해 온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 변화는 적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연상 경관(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이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은 진화 과정이 종식된 ‘잔존 경관(relict landscape)’과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진행 중인 ‘지속 경관(continuing landscape)’으로 나뉜다(UNESCO, 2023: 22-23). 김보람·성종상(2025), 49쪽. 재인용.

13) 김민동(2018), 앞의 논문, 같은 쪽.

14) 김민동(2018), 같은 논문, 같은 쪽.

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경관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보호의 대상이며 나아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문화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들에 ‘기억’이 개입하면서 ‘역사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이 탄생되었다. 서영애는 “시간의 중첩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중첩된 기억의 관점으로”<sup>15)</sup> 역사경관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역사문화경관은 “시간이 매개체가 되어 형성된 지역문화의 소산물”<sup>16)</sup>이라 볼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sup>17)</sup>가 중첩되어 경관에 투영된 것<sup>18)</sup>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역사문화경관은 유일무이한 역사적 작품이자 유산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그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역사적 층위를 이루며 그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경관이 지닌 가치를 후대에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경관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물리적 실체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sup>19)</sup>는 주장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견해들에 기대어 우리의 누정원림을 다시 보면, 그것들이 문화유산이자 문화경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 남겨진 술한 무형자산, 예를 들어 시와 노래, 글씨와 그림 등을 기억한다면 누정원림은 틀림없이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누정원림은 그저 빼어난 경관 어딘가 세워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당대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유가 자연스럽게 자연과 융화되면서 현재에 이르러 다시금 새로운 경관으로 탄생되는 특별한 역사문화경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의 사유와 풍류를 현재로 이끄는 문화적 매개체이자 텍스트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 3. 누정원림의 역사문화경관적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

#### 3.1 역사문화경관적 구성 요소

먼저 ‘이름’은 누정원림 구성의 핵심 요소이다. ‘이름’은 그 대상이 무엇이건 그것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 특히 누정원림에서의 이름, 즉 ‘정명(亭名)’은 그 공간이나 경관에 투영된 조영자의 사유와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상징일 수도 있다. 우선 담양의 ‘면양정(俛仰亭)’을 예로 들자면, 정명인 ‘면양’은 정자의 주인이었던 송순(宋純, 1493~1582)의 호였다. 그리고 「면양정기(俛仰亭記)」에서 순자(荀子)의 말을 빌려 ‘면양’을 자신의 호로 삼은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 15) 서영애(2015),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 산,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쪽. 김규연(2020), 앞의 논문, 80쪽. 재인용.  
 16) 김일림(2015), 「문화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의 이해-중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4), 한국사진지리학회, 115쪽. 김규연(2020), 같은 논문, 같은 쪽. 재인용.  
 17) 정광중(2015), 「꽃자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꽃자왈의 존재방식에 대한 물음과 제언」,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3), 한국사진지리학회, 16쪽. 김규연(2020), 같은 논문, 같은 쪽. 재인용.  
 18) 김규연(2020), 같은 논문, 81쪽. 재인용.  
 19) 김규연(2020), 같은 논문, 79쪽.

순자가 말하기를 “백이(伯夷)는 하늘을 우러러보아 맑음[淸]을 얻어 자기의 뜻을 길렀고, 유하혜(柳下惠)는 땅을 굽어보아 순리를 얻어 자기의 화평함[和]을 길렀다.”고 하였다. 이에 이(夷)라는 이름을 바꾸어 양수(仰叟)라고 하였고, 혜(惠)라는 자(字)를 좇아 면옹(俛翁)이라 하였다. 그런 연유로 지팡이에 양(仰)자를 새기고, 책상에는 면(俛)자를 새겼다. 때로 지팡이로 책상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양수(仰叟)여 면옹(俛翁)이여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라고 하였다. 소년 시절 나는 책머리에 이 말을 적어두고는 특별히 여겨 삼가면서 마음에서 잊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정자에서야말로 다시 느낀 바가 있으니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sup>20)</sup>

이와 관련하여 당대에는 ‘백이의 청(淸)’과 ‘유하혜의 화(和)’를 함께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유하혜의 경우 도의심(道義心)과 관련하여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sup>21)</sup> 이와 같은 도의심이 바로 당시 송순 사유의 기저였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한 가운데서 사림으로서의 도리를 지켜가고자 했던 의지의 발로가 ‘호’이자 ‘정명’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지의 발로는 문예적으로 ‘호연지기(浩然之氣)’ 또는 ‘호연지취(浩然之趣)’를 표방하게 하였으며, 「면양정가(俛仰亭歌)」, 「면양정단가(俛仰亭短歌)」라는 걸출한 우리말 노래를 통해 강호가(江湖歌)의 길[道]을 제시할 수 있었다.

순천의 ‘초연정원림(超然亭園林)’에서 ‘초연(超然)’이라는 정명은 노자(老子)의 『도덕경』에서 유래하는데, ‘세속적 유희와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보며 담담히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즉, 『도덕경』 제26장에 보이는 ‘수유영관(雖有榮觀) 연처초연(燕處超然)’은 ‘비록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담담히 머무른다.’라는 뜻으로, 초연함을 실천하는 모습을 정명으로 내세운 것이다. 초연정원림은 노자의 도가적 은일 사상을 투영하는 장소이자 사유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영(題詠)’은 누정원림의 경관이 시를 통해 하나의 추상적 풍경이자 원림의 경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창작 방식 중의 하나인데, 특히 누정과 연관되어 ‘누정제영’이라는 특별한 작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때 누정 자체에 대한 작시(作詩)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까지 명확하게 소재(小題)하여 시를 구성하는데, 그곳을 왕래하는 선비들도 이에 따라 각자의 시를 남겨 하나의 작품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은 누정제영이 단순하게 시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수준을 넘어 당대 선비들의 문예적 소통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예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식영정이십영(息影亭 二十詠)」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본래 식영정의 주인이었던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20‘개’를 선정하고 각각 시를 통해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곳을 드나들던 당대 문인 임억령, 고경명, 정철이 같은 소재(小題)로 각각 20수씩 지어 총 80수의 연작시가 되었다. 같은 경관이지만 네 사람 각자의 감수성과 시선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작품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 荀子曰 伯夷仰而視天 得天之淸 以養其志 柳下惠 俛而視地 得地之順 以養其和 遂易夷名曰仰叟 追惠字曰俛翁 因銘其杖曰仰 鏤其刀曰俛 時則以杖叩刀而歌曰 仰叟乎 俛翁乎 吾師乎 吾師乎 余少日 入黃卷值斯語 竦然異之 於心不忘 今於斯亭也 重有感焉 則不能無言矣(沈仲良, 「俛仰亭記」, 『俛仰集』 卷 7).

21) 조태성(2012), 「면과 양, 두 개의 시선」,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338쪽.

22) 제영에 관한 연구는 ‘전남’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김신중(앞의 논문, 1996)에 매우 자세하다. 특히 ‘전남의 누정 및 누정제영의 분포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작시적 특성을 넘어 이러한 제영류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꼽자면, ‘따로 또 같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쓴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들이 덧붙여 함께 창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누구든 작시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 그곳을 방문하여 또다시 같은 제목으로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어쩌면 미완성일지도 모르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충분히 그 맥을 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전에 진상철은 담양의 원림을 사례로 세계유산 등재 방안에 대해 논구한 적이 있다. 이때 유산명을 ‘담양 제영원림’이라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재기준 ii)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념물 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 예술 또는 인간 정주 등의 결과로써 일어난 발전 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이나 등재기준 iv)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사회적·예술적·과학적·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을 그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보완책으로 “무엇보다도 ‘담양가사문학권’이라는 장소와 조선시대라는 성리학적 사고의 시간에 걸쳐, 공히 인정되는 최고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형성하였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중심을 펼쳐졌던 시가문학의 산실로서의 공간정체성과 선비문화의 상호교류성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었음을 효율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해당 유산이 한국의 전형적이고 고유한 전통원림 공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정리와 행위 재현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sup>23)</sup>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언급한 ‘공간정체성’이나 ‘상호교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유형적 산물이 바로 ‘제영’과 ‘시사(詩社)’<sup>24)</sup>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지 못한 누정원림이라 할 지라도, 예를 들어 나주 소요정의 「소요정십경(逍遙亭十景)」이나 나주 만호정의 「팔경(八景)」 등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누정원림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증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25)</sup>

누정원림 개념 자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 중의 하나는 ‘곳’이 아니라 ‘개’라는 수사(數詞)일 수도 있다. 예컨대 「식영정이십영(息影亭二十詠)」에는 실제로 항상 존재하는 ‘곳’도 노래하고 있지만,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경관도 함께 노래하고 있다. ‘조대쌍송(釣臺雙松)’은 그때도 지금도 존재하지만, ‘창송청설(蒼松晴雪)’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경관이다. 즉, 구체적 경관과 심상적 경관의 혼재를 설명하는 한 방안으로서 ‘개’라는 수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3) 진상철(2011), 「한국전통원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방안에 관한 연구-전남 담양의 원림을 사례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1, 한국전통조경학회, 20쪽.

24) 시사에 대해서는 박준규(「조선조 전기 전남의 樓亭詩壇 연구」, 『호남문화연구』 24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6)의 논의가 매우 자세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시사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제외하고, 제영 자체의 논의에 집중한다.

25) “축자적으로 ‘~詠’과 ‘~景’이라는 말을 구별하자면 ‘詠’은 특별히 서정이나 서경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시가로 읊조린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데 비해, ‘景’은 서경적인 것만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김신중, 앞의 논문, 1996, 265쪽). 제영시는 또 종종 ‘팔경시’와 ‘구곡(九曲)’의 전통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이에 대한 논의는 조태성(2023), 앞의 논문, 각주 13)을 참조할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공간의 재발견을 논할 수 있게 되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관을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상 경관까지 노래에 아우르면서 ‘원생공간’이 ‘문학공간’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경관의 경계를 누정의 경계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그 자체를 원림의 경계로 삼고, 이제 ‘누정원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 또는 설화’ 등도 누정원림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조선 중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화(士禍)’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는 대재앙이었다. 그러나 호남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출사를 포기하고 은거하려는 이른바 처사도(處士道)를 근간으로 한 은일사상(隱逸思想)을 배경으로, 흔히 말하는 누정문화가 이 시기에 오히려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소쇄원(瀟灑園)은 주인이었던 양산보(梁山甫, 1503~1557)와 기묘사화의 화를 입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연관된 대표적 누정원림이다. 스승이었던 조광조의 사화 이후 양산보는 출사의 뜻을 접고 자신이 꾸민 공간에 정자들을 앉히며, 각각 대봉대(待鳳臺), 광풍각(光風閣), 제월당(霽月堂) 등이라 이름하며 소쇄원을 조영하였다. 이러한 소쇄원을 두고 서자유는 “삶의 철학이 이름들로 묻어나는 정원”<sup>26)</sup>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환벽당(環碧堂)과 식영정(息影亭)에는 정철(鄭澈, 1536~1593)의 수려한 우리말 노래인 가사(歌辭) 작품 「성산별곡(星山別曲)」 뿐만 아니라 환벽당 주인 김윤제(金允悌, 1501~1572)가 어린 시절의 정철과 관련하여 승천하는 용을 꿈속에서 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김덕령(金德齡, 1567~1596)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는 취가정(醉歌亭)과 훗날 의병정신의 근거지로 꼽혔던 김덕보(金德普, 1571~1627)의 풍암정(楓岩亭)도 사례로 삼을 만하다.

그 밖에도 수(水)공간이나 식생 등도 누정원림의 경관 구성 요소들로 다루어질 수 있다. 수공간은 크게 계류, 연못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누정원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자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못에는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기반해 군자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연꽃을 심어 감상하거나, 심지어 ‘애련정(愛蓮亭)’처럼 아예 정명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바위나 식생 또한 중요한 경관 요소 중 하나이다. 환벽당 왼편에 흐르는 창계(蒼溪)는 그 자체로 경관이지만, 창계 가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늙다란 소나무와 낚시바위 또한 ‘조대쌍송(釣臺雙松)’이라 이름하고 시로 노래할 만큼 빼어난 경관이 되기도 하였다.

### 3.2 작동원리로서의 ‘차경’과 ‘풍류’

『삼국사기』 백제 무왕 37년(663)의 기록에는 ‘망해루’라는 누정이 최초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백제 의자왕 15년(665)에는 ‘망해정’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모두 왕궁 주도 건축물이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방식의 누정 건축은 계속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삼국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에서부터는 ‘모정(茅亭)’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궁중 주도의 화려함과는 달리 누정의 모양을 가지고 있되, 누정의 화려함은 배제된, 그야말로 풀로 엮은 간소화된 건축

26) 서자유(2021), 「소쇄원의 수유미학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9(3), 한국조경학회, 33쪽.

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선종과 유학의 영향에 의해 간소화되면서도 자연에 합일되는 방식으로, 화려한 누정보다는 수수한 모정을 선호하게 되었을 것이다.<sup>27)</sup> 이 시기까지만 해도 궁중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간에 ‘경관’에 관한 고려는 누정 건축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13~14세기에 이르면 비록 훗날 도입된 명확한 차경 개념은 아닐지라도 ‘누(樓)와 정(亭)’이라는 공간이 가져야 할 구성 요건에 대해 언급되기 시작한다. 안계복은 우리 누정에 보이는 “경관 처리 기법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허(虛)’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卷之十四) 낙안군(樂安郡) 빙허루(憑虛樓) 손순효(孫舜孝)의 기(記, 1469)에 루(樓)가 비어있으면(虛) 능히 만 가지 경관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능히 선한 것을 많이 담을 것이다[樓虛則能納萬景 心虛則能容衆善]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작활연허상자위지정(作豁然虛敞者爲之亭)’이라고 하여 정(亭)은 활(豁, 개방된 공간), 허(虛, 비어있는 공간), 창(敞,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공간)한 공간적 특성을 갖는 곳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어 만약에 누와 정이 허하지 못하다면 취경(聚景, 경관을 한 점에 모으고), 다경(多景, 많은 경관으로 보이게 하며), 환경(環景, 경관을 누정 사방에 둘러 있도록 하며), 읍경(挹景, 경관을 누정 속으로 들어오게 함)의 개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sup>28)</sup>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들과 더불어 조선 중기에 이르면 명나라 인물 계성(計成)이 저술한 『원야(園冶)』로부터 비롯한 차경의 개념과 기법이 우리 누정원림 건축에 일부 도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야(園冶)』에서는 이러한 기법에 대해 “‘처한 지역에 의거하여 주변 경물을 차용함에는 일정한 법식이 없고, 경물을 볼 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선택할 만하다’고 하고, 차경의 종류로 ‘원차(遠借)’, ‘인차(隣借)’, ‘앙차(仰借)’, ‘부차(俯借)’, ‘응시이차(應時而借)’가 있다고 하였다.”<sup>29)</sup> ‘

특히 『원야』에서는 “주변 경물을 차용함에는 일정한 법식이 없고, 경물을 볼 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선택할 만하다.”<sup>30)</sup>고 하여 차경의 일반적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원차(遠借)는 먼 곳의 경물을 차용하는 법, 인차(隣借) 가까운 곳의 경물을 차용하는 법, 앙차(仰借) 높은 곳의 경물을 차용하는 법, 부차(俯借) 낮은 곳의 경물을 차용하는 법이며, 마지막으로 ‘응시이차(應時而借)’ 시절 풍경에 따라 경물을 차용하는 법<sup>31)</sup>이다.

이러한 경관기법들이 실제 사용되었음은 조선 중기 호남에 세워졌던 누정원림과 그로부터 제작된 ‘제영’의 존재로 확인될 수 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산별곡」이라는 가사작품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영정이십영」이라는 작품의 소재(小題)를 대상으로 경관처리기법

27) 조태성(2020), 「호남의 문화공간과 풍류 그리고 공감장」, 『한국시가문화연구』 45집, 한국시가문화학회, 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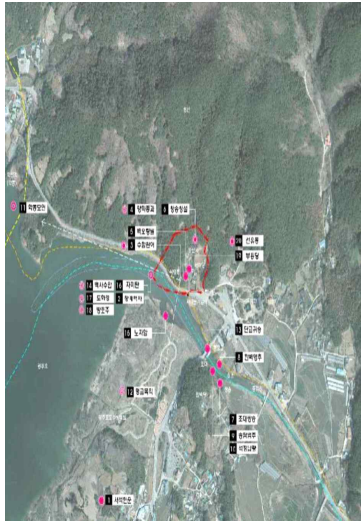
28) 안계복(1991), 「한국의 누정양식상 제특성 및 계획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권 2호, 한국조경학회, 4쪽. 인용 내용 중 한자 병기와 관련해서는 형식상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조태성(2023), 같은 논문, 76쪽. 재인용.

29) 김성우·안대회 역(1993), 『원야』, 도서출판 예경, 306~307쪽. 소현수(2011), 「차경을 통해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62쪽. 재인용.

30) 因借無由 觸情俱是. 計成, 「借景」, 『園冶』. 김성우·안대회 역(1993), 앞의 책, 306~307쪽.

31) 夫借景林園之最要者也 如遠借隣借仰借俯借應時而借. 計成, 「借景」, 『園冶』. 김성우·안대회 역(1993), 같은 책, 307쪽.

을 대입해 본 표이다. [그림 1]<sup>32)</sup>은 「식영정이십영」의 공간을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것으로, 표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 그 기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식영정이십영」의 공간

「식영정이십영」 소제(小題)		경관기법
서석한운(瑞石閑雲)	서석의 한가로운 구름	읍경+원차
창계백파(蒼溪白波)	창계의 흰 물결	읍경+부차
수함관어(水檻觀魚)	난간에서 물고기 보기	환경+부차
양과종과(陽坡種瓜)	양지쪽에 오이 심기	환경+인차
벽오양월(碧梧涼月)	벽오동의 가을달	환경+양차
창송청설(蒼松晴雪)	푸른 솔의 깨끗한 눈	환경+응시이차
조대쌍송(釣臺雙松)	조대의 두 소나무	읍경+원차
환벽영추(環碧靈湫)	환벽당의 영추	읍경+원차
송담범주(松潭泛舟)	송담에 떠 있는 배	취경+원차
석정납량(石亭納涼)	석정의 바람맞이	다경+읍경
학동모연(鶴洞暮烟)	학동의 저녁연기	취경+원차
평교목적(平郊牧笛)	평교의 피리 소리	취경+원차
단교귀승(短橋歸僧)	단교의 돌아가는 스님	취경+원차
백사수압(白沙睡鴨)	백사장의 조는 오리	취경+원차
노자암(鷗鷺岩)	가마우지 바위	다경+원차
자미탄(紫薇灘)	배롱나무 여울	다경+부차
도화경(桃花徑)	복사꽃 거리	다경+원차
방초주(芳草洲)	풀 향기로운 물가	다경+부차
부용당(芙蓉塘)	연꽃 핀 지당	다경+부차
선유동(仙遊洞)	신선이 노는 마을	환경+원차

물론 이와 같은 경관처리기법의 대입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나, ‘제영’이 주변의 경관을 어떤 식으로든 포섭하려는 시도의 결과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리해 보자면, 누정원림이 단순한 건축 공간을 넘어 거대한 역사문화경관으로 확장되는 핵심 동력의 한 축은 ‘차경(借景)’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경은 일반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외부 경관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누정원림만의 맥락에서는 누정을 통해 경관을 수용함으로써 원림의 범위를 자연 전체로 확산시키는 조영 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양 면양정의 주인 송순의 「면양정삼언가(倂仰亭三言歌)」 중 ‘산천을 끌어당기고 [挹山川]’와 ‘바람과 달을 불러오는[招風月]’과 같은 표현은 산천과 풍월을 누정의 경계 안으

32) 조흥석 외(2015), 『식영정 일원 보존 및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담양군, 182쪽. 이강수(2021), 「식영정 일원」의 원림경관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쪽. 재인용.

로 잡아당겨 자신의 경관으로 삼으려는 ‘읍경(挹景)’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의 읍경은 원림에 인공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고 자연의 승경을 그대로 누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기법이 되며, 우리 누정원림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관처리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산천과 풍월을 집안으로 들이며 병풍처럼 두르는 행위의 과정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호연한 흥취[興浩然]’는 공간적 차경, 즉 원차와 읍경인 동시에 자연과 자아를 분리하지 않는 ‘물아일체(物我一體)’라는 풍류의 정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차경을 통해 누정의 물리적 담장은 무너지고, 시선이 닿은 모든 곳이 원림의 영역이 되어 ‘경계 없는 경관’이 탄생되는 것이다.

풍류는, 이처럼 공간적 차경을 내면의 가치,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이다.<sup>33)</sup> 풍류는 시대에 따라 유불선(儒佛仙)의 사상을 포섭하며 변모해 왔으나, 누정원림에서라면 주로 ‘물아일체(物我一體)’와 ‘호연지취(浩然之趣)’로 표상된다. 순천 초연정의 ‘초연(超然)’이라는 이름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유래하여 ‘세속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에 머무는 태도’를 의미하듯, 풍류는 경관을 향유하는 주체의 정신적 지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차경이 경관의 ‘물리적 수렴’이라면 풍류는 그 경관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 동화(同化)’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누정원림은 시단(詩壇)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선 풍류의 정점에 닿았다. 왜냐하면 “풍류는 자연과 친화하는 가운데 시문과 청담을 즐기는 풍치 있고 우아한 생활태도를 뜻하는 사대부들의 여가활동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적이면서도 관계맺음을 지향하는 활동인데, 누정에는 풍류의 이러한 측면이 여실히 반영”<sup>34)</sup>되어 있다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강호가도의 구현’이라는 당대 문학의 이상적 목표와도 충분히 맞닿아 있는 지점”<sup>35)</sup>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단 활동의 주요한 매개가 ‘한시제영(漢詩題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풍류와 관련한 ‘당대 우리말 노래’의 역할과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적으로 볼 때 호남지역은 당대 ‘가사문학의 산실’이자 ‘시조문학의 백미’라고 평가받는다. 제영을 통해 경관을 ‘묘사’했다면 ‘노래’를 통해 그런 경관을 즐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문학사를 통틀어서도 면양정의 「면양정가」, 송강정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식영정의 「성산별곡」 등은 우리 가사문학의 백미라고 꼽히는 작품들이고, 해남 수정동·금쇄동에서 윤선도의 「오우가」, 완도 보길도에서의 「어부사시사」는 우리 시조문학의 명작으로 손꼽힌다. 즉, 차경을 통해 자연을 누정원림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시와 노래를 창작하는 풍류를 통해 이른바 원생공간을 문학·사유적·심상적 경관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원리의 결합을 통해 누정원림은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사유적으로 합일되는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다.

33) 이에 대해서는 조태성(2023), 같은 논문, 80~85쪽의 논의에 자세하다.

34) 최수웅·강민희(2014),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도출 방안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2,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178쪽.

35) 조태성(2020), 앞의 논문, 17쪽.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따지는 일에서도 풍류는 그저 지난 시대의 유산으로만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풍류는 여전히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풍류란 그 어의(語義)에 내포된 대로 살아 움직이는 삶의 한 단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애초 ‘현묘지도(玄妙之道)’를 의미하기도 했으며, ‘자연(自然)’이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한 양상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또 마당의 극(劇)이기도 하였으며, 마을의 굿이자 축제의 양상이기도 하였다. 굳이 지금-여기에서 풍류를 말하자면, 그것은 ‘촛불’이 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신한류(新韓流)’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풍류는 여전히 ‘움직이며’ 또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그저 옛 선비들의 유유자적한 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을 ‘본떠 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말 일도 아니다.”<sup>36)</sup> 즉, 풍류는 누정원림이 여전히 ‘살아 있는 유산’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적, 문예적 기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 누정원림이 단순한 건축적 실체를 넘어 역사문화경관으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간적 기법인 ‘차경’과 정신적 가치인 ‘풍류’라는 두 개의 조영 작동 원리가 상호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 두 기제는 때로는 인과적 관계로, 때로는 독립적 관계로 작동하며 우리 누정원림만의 특수성을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차경과 풍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누정원림의 경계는 물리적 담장을 넘어 시선이 닿는 모든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결합은 누정원림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확보하는 핵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4. 결어

이 글에서 필자는 누정원림을 개별 건축물이나 인위적인 정원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축적된, 즉 인간의 예술활동 및 사유와 자연의 승경이 뒤섞인 ‘역사문화경관’으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첫째, 누정과 원림은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자연에 누정을 앗힘으로써 새롭게 인식되고 탄생하는 합일된 경관 단위인 ‘누정원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착하였다. 누정은 원림을 생성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원림은 누정의 시선을 통해 재해석된 자연 그 자체라는 것이다.

둘째, 누정원림은 정명(亭名), 제영(題詠)과 시가(詩歌), 역사적 사건이라는 유·무형적 요소들이 물리적 경관들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문화적 텍스트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면앙(俛仰)’가 ‘초연(超然)’이라는 이름이 유가적, 도가적 은일사상을 투영하고 있으며, 「식영정이십영」과 같은 제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절의 흐름과 심상 경관까지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누정원림은 비로소 완성된 역사문화경관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누정원림의 핵심 작동 원리가 차경과 풍류의 상호작용에 있음을 밝혔다. 차경은 ‘비어

36) 조태성(2020), 같은 논문, 17~18쪽.

있음[虛]의 미학을 통해 자연의 범위를 원림의 영역으로 무한히 확장하는 공간적 장치이며, 또한 풍류는 그 확장된 공간 속에 ‘물아일체’, ‘호연지기’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채워 넣은 문예적, 사유적, 심상적 기제라는 것이다. 이 두 원리의 결합을 통해 누정원림은 기본적으로 은일소요처(遊興賞景處)를 넘어 도학적 수양과 문학적 창작이 이루어졌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누정원림은 시간이 매개체가 되어 형성된 우리 지역문화, 나아가 한국전통문화의 총체적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누정원림의 보존·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건조물 등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관 재료로서의 지형과 식생뿐만 아니라 그곳에 새겨진 역사적 기억과 사유의 층위인 ‘문화적 기억’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전승하는 방향으로, 또한 그러한 방안을 활발한 담론 형성의 과정을 통해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제안한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이 우리 누정원림의 가치를 세계적인 문화경관의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또한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담론 마당의 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송 순, 『면양집』 권 7.

김성우·안대회 역(1993), 『월야』, 도서출판 예경.

유홍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남도답사 일번지』, 창비.

조홍석 외(2015), 『식영정 일원 보존 및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담양군.

김규연(2020), 「역사문화경관의 계획 및 관리 요소로 재료의 보존과 구분」,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79쪽.

김동수(1985), 「전남지역의 누정조사 보고 (1)」, 『호남문화연구』 제14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64쪽.

김민동(2018),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적 경관 개념의 도입-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에서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4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49쪽.

김보람·성종상(2025), 「태백 탄광유산의 문화경관적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제53권 5호(통권 231호), 한국조경학회, 4~5쪽.

김신중(1996), 「전남의 樓亭題詠 연구」, 『호남문화연구』 24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53쪽.

김일립(2015), 「문화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의 이해-중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4), 한국사진지리학회, 115쪽.

박준규(1996), 「조선조 전기 전남의 樓亭詩壇 연구」, 『호남문화연구』 24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서영애(2015),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산,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4쪽.

- 서자유(2021), 「소쇄원의 수용미학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9(3), 한국조경학회, 33쪽.
- 소현수(2011), 「차경을 통해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62쪽.
- 안계복(1991), 「한국의 누정양식상 제특성 및 계획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권 2호, 한국조경학회, 4쪽.
- 이강수(2021), 「‘식영정 일원’의 원림경관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쪽.
- 조태성(2023), 「누원림연구의 지향과 가치」, 『호남학』 74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68~73쪽.
- 조태성(2020), 「호남의 문화공간과 풍류 그리고 공감장」, 『한국시가문화연구』 45집, 한국시가문화학회, 9쪽.
- 조태성(2012), 「면과 양, 두 개의 시선」,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338쪽.
- 진상철(2011), 「한국전통원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방안에 관한 연구-전남 담양의 원림을 사례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1, 한국전통조경학회, 20쪽.
- 최수웅·강민희(2014),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도출 방안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2,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178쪽.

##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토론문

김현진(경상국립대학교)

먼저 <호남 누정원림 잠정목록 등재 학술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최한 전라남도를 비롯한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주관하는 호남학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남 동부지역에 있는 순천(順天) 지역의 누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박사학위논문(2018)을 비롯해 초연정(超然亭)(2021) 등에 관한 몇 편의 소논문을 발표하였고, 또 이를 묶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의 누정이 갖는 의미를 알리고자 『순천을 품은 누정』(2022)이란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순천의 ‘누정’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전통시대부터 전해오는 순천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발현하고 있다는 것과 순천의 역사, 문화, 유학, 인물, 가문, 문학, 자연 승경 등 지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연자루(燕子樓)’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지역 누정과 비교 연구를 통해 서로의 누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담양에 있는 ‘면양정(旹仰亭)의 내력과 공간인식’(2021)을 고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 진주(晉州)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우도 지역의 누정을 비롯한 고건축의 공간의미를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영호남을 막론하고 전통문화, 지역사, 유학사, 문화사를 두루 아우르는 누정에 대한 가치와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문학(漢文學) 중심의 문헌 자료 정리와 집성 및 번역을 통한 DB 구축이 시급하며, 문학을 비롯한 건축, 조경, 인문지리 등의 분야와 학문 융합 또는 공동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학술포럼 이후에도 ‘누정’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연구가 활성화되어, 호남을 비롯한 한국의 누정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 발표문을 읽고 가진 저의 의문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1.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을 위해 제시한 누정 범주 제한 주장에 대한 이견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 제시한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누정에는 역사와 문화가 얽혀있고, 또 전통시대 우리의 건축물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인공물이지만 조화를 이루도록 차경(借景)을 반영해 설계함으로써 경관과 원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이라는 용어를 실현 또는 재구성하기 위해 ②강학소(講學所), ③재실(齋室), ⑤향약시행처(鄉約施行處), ⑥양로(養老)·교화소(敎化所), ⑦사장(射場), ⑧종회소(宗會所), ⑨치수(治水) 등의 기능이 주가 되는 누정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①시단(詩壇)이나 ④별서(別墅) 누정 범주에 부합하는 것은 대개 국가

유산청(옛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명승과 그 속에 자리한 누정이 될 것입니다. 호남을 예로 든다면 담양 소쇄원과 식영정 일원, 강진 백운동 원림과 다산초당 일원, 순천 초연정 원림, 화순 임대정 원림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의 범주 확대를 바라는 이유의 일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강학소’에 해당하는 누정이 이른바 ‘누정 원림’에 포함할 수 있는 예로,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에는 조선 중기 남명 조식이 만년에 학문한 산천재(山天齋)가 있습니다. 산천재는 남명이 지리산을 닦으려고 일부러 그곳에 터를 잡았으며, 제자들과 강학한 남명학파(南冥學派)의 본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앞으로는 시천(矢川)이 흐르고 오른쪽으로 지리산 천왕봉이 보입니다. ‘차경’의 시각으로 보면 산천재는 지리산과 경호강 속 원림에 자리한 셈이고, 또 남명 자신이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또 ⑦사장(射場) 또는 사정(射亭) 기능의 누정으로, 순천의 환선정(喚仙亭)은 1544년에 완공된 관설 누정으로 읍성 동문 밖 동천가에 자리하여 경관도 훌륭하고 연자루와 함께 조선시대 순천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이 환선정의 사정, 즉 활터로서의 기능은 4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궁의 맥을 잇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798년(정조 22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영광(靈光)의 열무정(閱武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추가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진정성(Authenticity)’ 측면에서도 중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⑤향약시행처 기능의 누정으로, 순천 주암의 향약재(鄉約齋)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민이 사재를 출연하여 건물을 짓고 강회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향약으로 협동을 추구하며 향리의 선한 풍속을 지향한 이른바 ‘공동선(共同善)’ 지향의 공간적 함의가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의 하나가 아닐까요?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로 우선 강조해야 할 지점이 아닐런지요?

또 관설(官設) 누정 중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순천의 연자루는 전통시대 ‘소강남(小江南) 순천’을 대표하고, 환선정은 ‘선향 순천’을 대표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의 축석루(矗石樓)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간직하고 남강의 경관을 감상하는 진주의 대표명소입니다. 이런 누정들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록 프랑스 개선문이나 에펠탑 같은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범주는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긴 세월 동안 간직해왔다는 상징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누정들이 비록 ①시단(詩壇)이나 ④별서(別墅)의 범주는 아니지만, 그 누정의 역사와 역할과 의미는 결코 ①이나 ④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이라는 용어는 동의하되, 그 속에 담길 누정의 범주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교집합을 허용한 기능별로 묶어서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명승·원림, 지역 정체성 발현, 학파와 강학, 시단·시사(詩社)·구곡가 등의 문학, 사정(射亭)의 국궁 전승, 재실·종회소 등의 제각 공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층

적 면모의 한국 누정 또는 전남지역 누정이 갖는 역사와 전통의 문화적 지속성 및 가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정원림’에서 ‘자연유산 등재기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발굴함으로써, 이른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 2. 누정 이름, 즉 정명(亭名)에 대한 해석의 신중성 필요

논문 41쪽 하단 <3.1 역사문화경관적 구성 요소>에서 “누정원림에서의 이름, 즉 ‘정명(亭名)’은 그 공간이나 경관에 투영된 조영자의 사유와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상징일 수도 있다.”라고 하며, 그 일례로 담양의 ‘면양정(倅仰亭)’과 순천의 ‘초연정원림(超然亭園林)’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면양정의 경우**, 담양부사를 지낸 沈仲良(1658-?)은 1700년(숙종26)에 「면양정기」를 지었는데, 이때 심중량은 순자(荀子)의 말을 인용하고 그것에 면양정 이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도 선생님은 심중량의 「면양정기」에 있는 순자의 말을 근거로 “이와 같은 도의 심이 바로 당시 송순 사유의 기저였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한 가운데서 **사림으로서의 도리를 지켜가고자 했던 의지의 발로가 ‘호’이자 ‘정명’이었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중량이 언급한 순자의 말은 『순자(荀子)』 책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백이’는 『순자』에 언급되지도 않고, ‘유하혜’의 경우는 「대략(大略)」에 “궁궐의 문지기들과 같은 옷을 입어도 의심받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소문난 것이 아니다.”<sup>1)</sup>라는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이외 청(淸)나라 건륭제(재위 1735-1796)가 중국 역대 전적을 모아 편찬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비롯해 현 중국 지식포털 바이두[百度]에도 심중량이 인용한 문구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심중량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논거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그의 설로 ‘면양’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정자 이름 분석시 원문 인용의 경우 철저한 원전비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연정의 경우**, 42쪽에서 “‘초연(超然)’이라는 정명은 노자(老子)의 『도덕경』에서 유래하는데, ‘세속적 유혹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보며 담담히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즉, 『도덕경』 제26장에 보이는 ‘수유영관(雖有榮觀) 연처초연(燕處超然)’은 ‘비록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담담히 머무른다.’라는 뜻으로, 초연함을 실천하는 모습을 정명으로 내세운 것이다. 초연정원림은 **노자의 도가적 은일 사상을 투영하는 장소이자 사유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초연정은 애초 조진충(趙鎭忠, 1777-1837)이 선조 조제형을 제사지내기 위한 목적에서 1836년 여름에 짓고 은거한 초정(草亭)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는 숲에 은거할 뜻이 있어서 我有林居志

1) 『荀子』 「大略」. “柳下惠與後門者同衣而不見疑, 非一日之間也.”

나복산 동쪽에서 진원을 찾았네	尋真蘿菑東
생각은 군자가 밟는 듯이 하였고	思兼君子履
행실은 석인의 풍도를 좇았지	行逐碩人風
비로소 산수벽을 따라	始逐煙霞癖
마침내 재각을 지었네	聿成棟宇功
선령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先靈如不棄
이후로 보호가 무궁하리	繼此保無窮

초정 형태에 공간에서 조진충은 1년 남짓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증손자 향렬의 조준섭(趙俊燮)이 1891년 3월에 스승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에게 초정을 지은 전말과 주변 승경을 설명하며 정자 이름을 요청했는데, 연재는 “그곳이 깊고 그윽하니, 趙翁[趙鎮忠]이 세속을 벗어나려는 목표에 합치될 수 있었다.[地負幽深, 得遇翁物外之標]”라고 하며 ‘초연정’으로 이름을 짓고 기문도 지어주었습니다.

이후 초연정은 끊임없이 **옥천조씨 가문의 추원지소(追遠之所)의 역할**을 했고, 또 1898년 윤 3월 27일 연재와 문인들의 동유(同遊)로 **연재학과의 강학처**가 되었으며, 그 일대 삼청동에 구곡을 명명하고 주자와 우암에 대한 존모의식을 발현하여 일제강점기 존화양이(尊華揚夷) 의식을 견지하고자 구곡시를 창작하며 도가적, 도학적, 산수적 흥취를 담아내는 **구곡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연재 송병선이 ‘초연’이라 이름한 과정에서 ‘물외(物外)’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초연(超然)’이란 어휘는 『노자(老子)』나 『장자(莊子)』 둘 다에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한 『노자』에서의 ‘초연’은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부동(不動)의 주체성 강조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 연재가 정자 이름을 지어주면서 언급한 ‘물외(物外)’는 세속의 바깥세상으로 자연이나 은거지를 말합니다. 이는 『장자』의 「외물(外物)」과 용어적 유사성을 볼 수 있고, 장자(莊子) 사상의 ‘초연’은 세속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순천 초연정의 ‘초연’은 노자(老子)보다는 오히려 장자(莊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처럼 초연정은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이름에 드러나는 ‘노자의 도가적 은일 사상’만으로 정체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누정 이름의 직관적 분석에 의한 누정 정체성 파악은 오류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누정원림 개념의 재구성」 토론문

서자유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누정원림은 사람이 만든 인공이 가미된 결과물이다. 자칫 이 결과물(조성물)을 대상화하여 의미의 협소가 일어날 수 있다. 조태성 교수는 이러한 용어적 한계를 지적하고 본질적 의미를 가미한 개념을 정의하였다<sup>1)</sup>. 여기서의 핵심은 ‘경관’이다. 경관은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보는 이와 인식의 대상,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포괄한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개념에서 중시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다. 조태성 교수는 누정원림의 이름, 제영, 역사적 사건에서 그 상호작용을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방식을 차경과 풍류라하였다.<sup>2)</sup> 이는 세계유산의 OUV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증명된 다음 단계는 ‘보호와 관리체계(Protection & Management)’의 마련이다. 즉, 현재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음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기념물의 명승 추진

호남 누정원림은 세계유산중 문화유산으로 추진하고자하며, 국가유산 중 ‘명승’이 추진하려는 문화유산의 성격에 부합한다. 호남 누정원림은 현재 국가유산 명승 5개소(소쇄원, 명옥헌 원림, 식영정 원림, 환벽당, 부용동 원림)와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 3개소(독수정 원림, 송강정, 면양정)로 지정된 상태이다. 국가유산으로서 가치 인증을 위해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 3개소는 국가유산 명승이 될 필요가 있다.

### 2. 보호와 관리체계 고도화

2025년 국가유산청은 ‘명승’에 관한 체계와 관리방안을 재정리한 바 있다<sup>3)</sup>. 이 연구들은 국가유산 법체계 정비 및 자연유산법 제정에 따라 명승의 의미를 명확히하고,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관리방안에 부합하는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 1) “누정과 원림은 별개의 경관이나 경관구성요소가 아니라 합일된 경관 그 자체로 보아야 하며, 이로부터 우리는 ‘누정원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지정하고, 그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3장 누정원림의 역사문화경관적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에서 ‘역사문화경관적 구성 요소’로 이름, 제영(題詠), 역사적 사건 또는 설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작동원리’로서 차경, 풍류를 들고 있다.
- 3) 「명승 지정체계 정비 및 법제화 연구(2025, 한국전통문화대, 연구책임 이재용)」  
「명승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연구(2025, 한국전통조경학회, 연구책임 안승홍)」

- ‘자연물’, ‘인공물’이라는 용어는 ‘공간’으로 변경, 이를 통해 다양한 경관적 관점에서 가치를 포괄적으로 수용
- ‘명승’의 유형에는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되는데, 명승으로 지정된 호남 누정원림은 모두 역사문화경관에 해당<sup>4)</sup>
- 정원, 원림 등 조경적 가치가 도드라진 공간의 관리 방안 마련

<p>: 관리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물 및 기타 요소의 원형 보존과 활용임</li> <li>· 정원, 원림 등 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된 조경 공간은 경관 가치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를 주요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명승과는 달리 ‘의도된 예술 작품’으로서 경관에 담긴 의미를 보존하고 탐방객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li> </ul> <p>: 관리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형 고증 및 설계 의도 보존 :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정원/원림의 조성 당시 고지도, 문헌, 시, 그림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원형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성자의 설계 철학 등을 바탕으로 복원 및 관리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li> <li>· 차경 관리 : 정원, 원림 등 전통조경 공간은 내부의 공간 뿐 아니라 외부의 경치를 정원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차경기법이 중요한 조성 방법의 하나로, 경관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정원 내부 뿐 아니라 조망의 대상이 되는 외부 경관에 대한 조망축 관리 또한 요구됨</li> <li>· 진정성과 완전성의 유지 : 훼손된 시설물의 복원에는 전통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을 훼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도입은 최소화함</li> <li>· 수목 관리 : 최대한 조성 당시의 전통 수종을 유지하도록 하며 외래종, 생태교란종 등은 제거하고 설계 의도에 맞는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li> <li>· 탐방객 관리 : 정원과 원림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 동선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원 경관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li> </ul> <p>: 정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구축 : 이해관계자 간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 체계와 협력의 틀 마련</li> </ul>
--

### 3. 역사적 정원(Historic Gardens) 차원의 연구 확장

최정미 박사의 발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전자문 제도 활용은 좋은 전략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이코모스의 ‘역사적 정원’과 관련된 지침을 기반으로 한 누정원림의 가치 발굴과 보호체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sup>5)</sup>.

- UNESCO : 호이안 프로토콜(Hoi An Protocols) -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보전 실천 지침

4) 역사문화경관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로서 인공적 요소(사찰, 누정, 조경시설 등)와 이에 수반되는 문화적 행위, 역사적 사건이 경관의 형성과 인지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로 규정함. 이는 자연적 배경보다 인공적 요소가 경관 인지의 중심축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함.  
 5) 2025, 한국전통조경학회, 명승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연구(연구책임 안승홍)

(Hoi An Protocols for Best Conservation Practice in Asia, 2009)

- 진정성 개념의 확장: 물리적 원형 보존을 넘어 무형적 가치, 사회적 맥락,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진정성 개념을 국내 명승 관리에 도입 필요
- 유산 영향평가 의무화: 정비 및 개발 계획 수립 전에 HIA를 필수 단계로 삽입하여 명승 가치 손실 사전 예방
- 공동체 협의 메커니즘 법제화: '관리협의체'에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가 동등 참여, 협상 기반 관리 모델 구축
- 교육, 전문 인력, 재원 확보: 전문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과 함께 식별·기록·보전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정 장치 마련

- ICOMOS / 경관 및 역사정원 관련 지침 : 플로렌스 헌장(Florence Charter) - 역사정원 보호에 관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istoric Gardens, Parks and Sites, 1982)

- 역사정원은 생태적 변화와 주기적 관리가 필요
- 통합적·과학적 관리와 전문가 참여가 필수
- 국내 정원·경관유산 관리에도 국제 기준 반영 필요

- ICOMOS / 경관 및 역사정원 관련 지침 : 시안 선언(Xi'an Declaration) - 유산 구조물·지역의 주변 환경 보전(the Conservation of the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2005)

- 유산과 그 주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이 국내 명승 관리지침에도 반영되어야 함
- 환경 변화 시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시각적·공간적 맥락까지 포괄하는 보존 기준이 필요
- 국제 기준을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ICOMOS / 경관 및 역사정원 관련 지침 : ICOMOS&IFLA&ISCCL 농촌경관 유산 원칙 (Principles concerning Rural Landscapes as Heritage, 2017)

- 농촌경관을 자연·문화·경제·사회적 요소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다학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관리방안 필요
- 지역주민을 지식 보유자로 인정하고, 농촌-도시 주민 간 협력을 통한 상향식 관리체계 구축
- 경관의 역동적 특성을 고려한 변화 관리와 전통지식 전승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ICOMOS / 경관 및 역사정원 관련 지침 : ICOMOS-IFLA ISCCL 역사도시공공공원에 관한 문서(Document on Historic Urban Public Parks, 2017)

- 복합적 가치의 보호 : 경관, 조경, 생태, 사회, 인권 등 다층적 가치를 모두 파악하여 보존, 관리해야 함
- 시선축·조망·주변 스카이라인 관리 : 공원 내부·외부의 시야를 방해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완충지대 확보 필요
- 기존 지형 및 토지 형상 유지 : 마운딩, 테라스 등 원형 지형을 변경하거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소로 해야 함
- 수용 능력 기반 이용자 관리 : 방문객 총량 및 시간대 제한 등 과밀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조정해야 함
- 과학적 조사·기록·공개 아카이빙 : 도면, 사진, 문헌 등 조사 뒤 자료를 공용 저장소에 보존해 장기적 관리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함
- 통합적 접근성 설계 : 장애인,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소 개입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조태성 교수가 정리한 호남 누정의 가치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정되고,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유산이 되길 바라며 글을 갈음한다.

##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현황과 방향 제언

최 정 미\*

- 
- I. 머리말
  - II.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현황
    - 선행연구를 통한 추진 현황
    - 등재 추진 대상 검토
    - 기초자료 연구를 통한 예상 등재기준과 속성
  - III.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방향
    - 잠정목록 등재 로드맵 설정을 위한 추진 사례 검토
    - 잠정목록 등재 로드맵 추진 방향 설정
    - 연구추진을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제언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세계유산은 1972년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sup>2)</sup> 체결 이후 2025년 까지 170개국 1,248개소가 등재되었다. 등재된 유산의 약 78%에 이르는 972개소가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등재 시작으로 2025년 기준 17건이 등재되어 있다. 아울러 세계 기록유산 20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이 있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이 15건, 자연유산 2건으로 2021년부터 2년에 1건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sup>3)</sup>으로 공표되었으며, 선정절차를 거쳐 부산 개최가 최종 결정되었다.

잠정목록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자국의 세계유산 후보 목록이다. 세계유산 심사는 잠정목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반드시 잠정목록을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잠정목록에는 180개국 1,801개소가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잠정목록은 12건으로 강진 고려청자 요지

---

\* Corresponding Author : aomoi@naver.com

건축학박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

2) 세계유산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 활동 중)이다.

3) 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994년),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1994년), 남해안 일대 공룡 화석지(2002년), 중부내륙 산성군(2010년), 엽전(2010년), 우포늪(2011년), 외암마을(2011년), 낙안읍성(2011년), 조선 수도성곽과 방어산성(2012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2017년), 양주 회암사지(2022년),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2022년)이 있다. 이중 조선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은 2024년 11월 긍정 평가를 받은 후 2026년 1월 최종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바 있으며, 기 등재된 자연유산 중 한국의 갯벌은 기존의 여수, 고흥, 무안 외에도 서산 가로림만을 추가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세계유산 등재된 세계유산 중 4건, 잠정목록 12건 중 5건이 호남(전남) 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화순 고인돌 유적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등재에 성공한 선례로써 이후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등재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인식하는 ‘연속유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통일된 성격을 보여주는 일괄 유산으로 조선왕릉이 대표적인 예이며 산사, 서원, 고인돌, ‘7개 지역의 가야 고분’이 연속유산이다. 등재를 추진 중인 잠정목록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중부내륙 산성군’이 있는데 한반도의 독특한 자연지형에 의지하여 계곡을 낀 포곡식이거나 산을 감싸 안은 테피식의 고대산성이다.

그리고 아직 잠정목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전국에 퍼져 있는 누정(樓亭) 또한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낳은 아름다운 유산으로 각 지자체, 추진체 별로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풍광 좋은 자리, 쉬어갈 만한 곳에는 반드시 누정이 있으며 루(樓), 대(臺), 정(亭), 현(軒) 등의 명칭으로 남아 있다. 그중 관아에서 지은 누각은 그 고을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규모도 크고 자리 앗음새가 탁월하기에 논의가 두드러진다. 반면에 건축적 양식은 소박하나 자연을 조영자의 문화경관적 해석에 따라 조원하는 원림을 누정과 함께 두는 유교·도교·불교적 이상향 사상이 반영된 별서원림도 차별화되는 예로 평가된다. 관련하여 2025년 전라남도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본고에서는 호남지역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된 추진과정을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타 추진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단계에서의 OUV를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검토해야할 과정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 II.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현황

### 2.1 선행연구를 통한 추진 현황<sup>4)</sup>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1994년 최초로 제출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다만, 초기 등재 대상 가운데 다수가 이후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됨에 따라, 2026년 현재 잠정목록은 총 13건(문화유산 9건, 자연유산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잠정목록에는 1994년 제출된 ‘강진 도요지’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2002년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2010년 ‘염전’과 ‘중부내륙산성군’, 2011년 ‘낙안읍성’·‘외암마을’·‘우포늪’, 2012년 ‘서울 한양도성’, 2017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2022년 ‘양주 회암사지 유적’, 2023년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과 ‘한국갯벌(확장)’ 등이 차례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총 13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산의 유형은 고고·미술사적 유적, 근대 선교유산, 성곽유산, 전통건축, 식생·습지, 지질유산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현재 잠정목록에 포함된 대상 중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재기준 측면에서는 기준 ii, iii, iv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기준 vi의 적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형유산과 무형적 가치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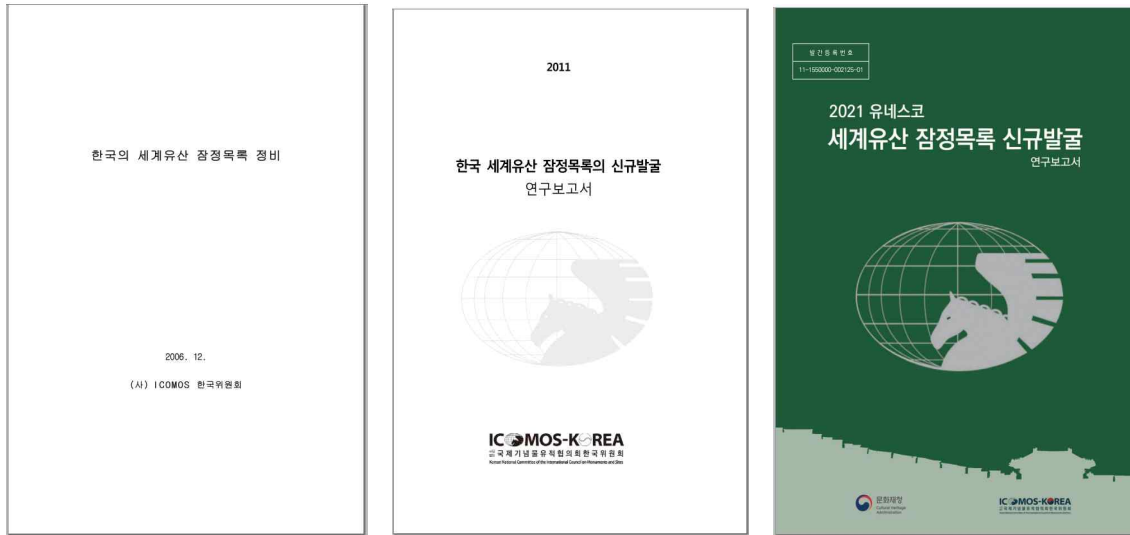
특히 연속유산(Serial Property) 전략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이는 단일 건축물이나 개별 유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특정 역사·사상·지역권을 중심으로 복수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개별 유산의 미학적 가치보다 문명사적·사상사적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국제 비교에서의 설득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염전’,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등은 세계유산의 범주가 전통적·고대 유산 중심에서 근현대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호남 누정원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진행된 학술적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 Korea)에서 각각 2006년, 2011년, 2021년에 발간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해당 보고서들로부터 호남 누정원림 및 관련 유산군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발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대상 유산의 범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적용 등재 기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확보 방안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 과정은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으로서 주목받는 가치를 파악함

4)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연구 최종결과보고서, 2026.03, V. 전남 누정원림과 세계유산 가치분석\_다. 전남 누정원림 관련 세계유산 선행연구 분석 내용 발췌.

으로써 향후 전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 체계 정립과 OUV 서사 구조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보고서

### 1) 등재 추진 배경 및 경과

전라남도 지역의 조선시대 누정원림은 역사·문화·조경을 아우르는 복합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전남권 누정원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노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2004년 4월, 담양군과 전라남도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이어 2005년에는 담양군과 문화유산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잠정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2005년 10월에 재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상 유산은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시가문화유산지구)’으로 명명되었고, 담양 지역과 광주광역시 북구에 분포한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독수정, 송강정, 면양정, 풍암정, 환벽당 등 총 8개소가 대표 유산으로 선정되었다<sup>5)</sup>. 2006년에는 문화재청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으나 잠정목록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2010년 12월 15일에는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2011년에는 세계유산 가치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sup>6)</sup>.

이후 2011년 한국 ICOMOS는 『한국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규발굴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정목록 우선추천유산 및 장기검토유산을 재검토하여 ‘담양 누정제영(樓亭題詠) 원림’(총 7개소)을 세계유산 등재 최우선 대상으로, ‘보길도 부용동 윤선도 원림’을 장기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담양 누정제영 원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II·VI의 충족 가능성을, ‘보길도 부용동 윤선도 원림’은 기준 II·IV·VI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5) 김희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과 과제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향토문화 제35권, 2016, 93~134쪽.

6) 김희태, 같은 논문, 93쪽.

2021년 한국 ICOMOS가 적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에서는 ‘정원과 누정문화’가 장기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유네스코 등재 기준 III·IV·VI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보고서 중 누정원림 관련 내용

구분	2006	2011		2021
보고서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정비	한국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유산명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군	담양 누정제영(樓亭題詠) 원림	보길도 부용동 원림(보길도 윤선도 원림)	정원과 누정문화
유산종류	문화유산(연속)	문화유산(연속)	문화경관(단독)	문화유산(연속)
진행상황	지자체에서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우선추천 유산	장기검토 유산	장기검토 유산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고서면·봉산면,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고서면·봉산면 일대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항리 일대	전국 분포 (서울·경기·충청·영호남 등)
구성 대상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독수정, 송강정, 면양정, 풍암정, 환벽당(8개소)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독수정, 명옥헌, 송강정, 면양정(7개소)	세연정, 동천석실, 낙서재, 곡수당 등 보길도 부용동 원림 일원	궁궐정원, 사찰정원, 주택정원, 마을정원, 별서정원, 누정
유산가치	조선시대 원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이름난 선비들이 시를 남긴 시가문학의 현장	조선시대 사가 원림의 대표적인 유형.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조적인 조경술	유교, 도교, 불교 등 동양사상등을 두루 수용, 자연과 융합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원림유적	정원은 누정과 함께 조선시대 사대부의 문화를 보여준다.
국가 지정현황	사적, 전남기념물, 광주광역시 기념물, 문화재자료	명승 및 시도기념물	명승 제34호	사적·명승 등
적용 등재기준	ii, iii, iv, vi	ii, iii, vi	ii, iv, vi	iii, iv, vi

## 2) 주요 대상 유적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군’은 당초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독수정, 송강정, 면양정, 환벽당, 풍암정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유산은 조선시대 전남 지역 문인들의 시가 창작과 교류가 이루어진 정자와 원림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쇄원은 정자와 정원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다수의 뛰어난 시가가 창작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체 8개소를 하나의 유산군으로 묶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에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일부 유적, 특히 명옥헌과 독수정의 경우 시가와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시가 창작의 현장으로 제시된 누정 유형 또한 담양 지역에만 국한된 독자적 현상이라기보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조성된 정자 문화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다수 유적에서 건축물의 원형 유지 여부

와 주변 경관의 진정성 확보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8개소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소쇄원을 중심으로 식영정과 면양정 등 비교적 가치와 진정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일부 유적을 중심으로 신청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잠정목록으로 고려된 누정원림 목록

대상	조성년도	종목	지정년도
담양 소쇄원	16세기	명승	2008-05-02
담양 명옥헌 원림	16세기	명승	2009-09-18
담양 식영정 일원	16세기	명승	2009-09-18
독수정원림	조선초, 1891중수, 1972중수	기념물	1982-10-15
담양 송강정	1560, 1585	기념물	1972-01-29
면양정	1533초창, 1654 중건	기념물	1972-08-07
광주 환벽당 일원	16세기	명승	2013-11-06
풍암정	16세기	문화유산 자료	1990-11-15
보길도 부용동 원림	17세기	명승	2008-01-08

‘담양 누정제영(樓亭題詠) 원림’에서는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독수정, 명옥헌, 송강정, 면양정 등 7개소를 대상지로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풍암정이 제외된 것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원림 조영예술과 누정제영 문화과 융합되어 한 장소로 표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컨대 「소쇄원 48영」, 「식영정 20영」, 「면양정가」 등에서 각 누정의 경관과 문인이 쓴 시가 남아 유적 공간과 문학이 결합된 전통문화가 뚜렷하다. 다만 쟁점 및 보호구역 설정시 문제점으로 일부 대상 지역의 경우 광주호 조성으로 도로 개설로 인하여 원래의 경관이 훼손되어 있으며, 원림의 경계에 주택이 들어서 있어 완충지대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길도 부용동 원림’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제주도로 가다가 보길도의 자연에 감동하여 만든 원림으로 51세이던 인조 15년(1637)부터 이곳에 머물며 「어부사시사」 등 많은 시문을 남겼다. 이곳은 그가 13년간 은거하며 시문을 창작한 낙서재, 세연정, 동천석실, 곡수당 등의 구성이 대표적이다. 유교사상은 물론 도교·불교적 이상향 사상이 반영된 윤선도의 조경술은 낙서재 바로 앞 계류를 막아 만든 연못과 석축, 이름 붙여진 바위 등 자연친화적 별서정원으로 구현되었다. 정신적으로는 「어부사시사」 등 시가가 이곳에서 탄생하여 원림과 문학, 자연이 일체가 되는 예술공간으로 평가된다.

### 3)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등재기준

전남 누정원림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선행연구에서는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 담양 누정제영 원림, 보길도 부용동 윤선도 원림을 중심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등재 기준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 왔다.

먼저,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은 무등산 자락의 계류와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조성

된 조선시대 원림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들 유산은 시가문학이 창작·향유된 공간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담양 누정제영 원림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가원림으로 관영 정원과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원림 형식과 이용 행태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분석된다. 무등산 지맥과 연계된 지리적 입지와 풍수 원리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소쇄원·식영정·환벽당은 ‘일동삼승’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유산군으로 평가된다. 이는 자연 지형과 인문적 해석이 결합된 조경 기법의 창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준 검토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전남 누정원림 관련 세계유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OUV 핵심 요소

명칭	개요 및 OUV	등재기준					
		ii	ii	iii	iv	v	vi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	무등산 자락 계류를 활용한 조선시대 원림의 대표 사례로서 시가문학의 현장이라는 공통성을 지님		●	●	●		●
담양 누정제영 원림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조경술을 보여주는 사가원림임. 관영 정원이 아닌 한국 특유의 원림 형태와 이용 행태를 잘 드러냄. 무등산 지맥과 연계된 탁월한 지리적 입지와 풍수 원리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소쇄원·식영정·환벽당은 ‘일동삼승’으로 불릴 만큼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	●			●
보길도 부용동 원림	윤선도가 조성한 원림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불교 등 동양사상을 포괄하면서 자연과의 융합을 실현한 조선시대 대표적 원림유적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적극 수용한 조성 방식은 타 국가 정원과 차별되는 독자적 특성을 지님.		●		●		●
정원과 누정문화	정원은 누정과 함께 조선시대 사대부의 문화를 보여준다. 동아시아 국가의 정원과 비교하여 지형과 입지, 구성요소 및 경관기법, 이념과 사상이 결합된 공간구성과 건축물, 생활, 학문, 시회, 풍류 등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무형유산 등이 속성에 해당한다.			●	●		●

보길도 부용동 윤선도 원림은 윤선도가 조성한 원림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와 불교 등 동양 사상을 포괄하며 자연과의 융합을 구현한 조선시대 대표적 원림 유적으로 평가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조성 방식은 일본이나 중국의 정원 문화와 차별되는 독자적 특성으로, 한국 원림 문화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한편, 2021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별 유산을 관통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정원과 누정문화’를 주목하고 있다. 정원과 누정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 학문, 시회, 풍류 문화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지형과 입지, 경관 구성 기법, 이념과 사상이 결합된 공간 구조와 함께 무형적 가치가 중층적으로 축적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OUV 검토의 중요한 속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 2.2 등재 추진 대상 검토<sup>7)</sup>

2025년 연구에서는 등재 추진 대상을 전라남도 지역에 분포하는 누정·원림 중 전통한옥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인 목조 와가(기타 포함)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등재의 핵심 관건인 유형적 가치 평가의 객관적 지표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방지정문화재의 등재 추진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지정문화재 중 일부 사례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가치가 미평가된 대상으로까지 검토를 확대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이나 비지정 대상 중에서도 사례를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은 기본조사에서 현황대상으로 선별한 804개소를 적용 선별하였다. 1차 선별대상은 예비대상으로 설정한 후보존상태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총 114개소를 선정하였고, 이중 등재추진을 위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대상도 2차 선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표본 선정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었다. 예비대상을 중심으로 한 추진 대상의 선정기준과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

항목	선정기준
국가유산 지정여부	국가 및 시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되어 지역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누정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포함함
비지정 유산	「제4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전라남도」에 수록된 누정 자원을 우선 선정함
보존상태	물리적 손상이 적고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국가유산 지정 가능성이 있는 누정을 우선 선정함
접근성	현장 접근이 가능한 도로망 및 이동 동선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대상 선정
지역 균형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라남도 전역에서 균형 있는 분포 확보

### ① 1차 선별 (예비대상)

- 누정문화유산의 기초 현황 자료 및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비지정 문화유산을 대상
- 비지정 누정원림은 향토문화유산을 우선 검토  
(국가유산 승격 지정 가능성 염두하여 제작 당시의 원형 보존상태 양호 판단 기준)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근거
- 보존상태 및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총 114개소를 선정  
(국가지정유산 12개소, 시도지정유산 43개소, 비지정 문화유산 59개소)

7)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조사연구 최종결과보고서, 2026.03, IV. 전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추진 대상 조사 분석 내용 발췌.

② 2차 선별 (우선대상)\_예시

- 1차 선별 대상 중 가치를 인정받은 누정 우선 선별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우선 대상임
- 현 연구단계에서는 2차 선별 대상은 향후 연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표본 선정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확정 대상은 아님.

조사대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조사기준 설정을 위해서 기 선정된 세계유산의 기준 적용을 함께 비교 검토하여 충족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을 위한 적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건축적 특성을 공간구성과 건축기법, 역사 문화경관을 마을과 입지, 좌향을 중심으로 경관적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등재 추진을 위한 예비 대상 선별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필요했다. 1차 선별 대상은 선정을 위한 기준자료를 중심으로 물리적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선별 대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2조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있어 관리될 필요가 있는 자원이다. 따

담양 소재원

1. 총괄사항

문화유산명	담양 소재원 潭陽  소재園	
지정종목	(국가지정) 명승	
지정연월일	2008. 05. 02.	
수량·면적	121,450㎡	
소재지	전남 구례군 기사문학면 지곡리 123	
소유자	담양군 외 / 담양군	
관리자/관리단체	담양군 외 / 담양군	
건립연대	조선 중종	

2. 기본정보

구분	누정		누정원림		경관	
	관아(공경)	서원	사찰	별서	주거	기타
기능 정보			●			
입지 환경	들	산	강	●	해안	마을
문예 자산	한시	시가	서화	●	놀이	의례
연혁	창건	1534년경 (중종 29) 소재옹(潘濬翁) 양산보(梁山甫, 1503~1557) 창건				
	중건	1614년 (광해군 6) 양천운 중수				
건축	평면	정면3칸, 장방형, 유실형/좌실형				
	구조 지붕	민도리, 삼량가, 흙처마, 팔작지붕				
보존상태	양호					
수리보수 이력	2025년 담양 소재원 보수정비 (화장실 지붕 및 위고, 주차장) 2023년 담양 소재원 담장 주변 배수체계 정비 2023년 2023년 소재원 주변정비(광풍각 및 관리자 보수)					
국가유산 승격여부	승격	유지		기타		
		●				
등재 추진	우선 대상	예비 대상		부적합 대상		
	●					
종합의견	특별한 등재 저해요소는 발견되지 않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임 / 국가지정 유지					

3. 위치도



4. 현황사진



기본정보 작성 서식(예)

라서 이 자료에서의 대상 선정은 이미 수행된 결과에 근거함으로써 조사대상 선정의 체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형태적 진정성에 준거하여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보존상태가 우수한 누정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아울러 전남 지역 각 시군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누정은 비지정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향토문화유산은 국가나 시도지정유산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지자체가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자원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인정된 누정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민들의 애착과 전승 의지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차 선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별된 대상 114개소의 조사를 위해서 기본정보 작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였고 총괄사항과 기본정보를 기입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위치도, 현황사진까지 정리하였다. 1차 선별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표준모델 평가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대상은 드물었으며, 많은 누정원림들이 몇몇 항목에서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축유산으로서 건축적 가치를 우선하여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만큼 대부분이 한옥으로서 건축적 가치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흡 항목은 주로 누정원림문화와 원형 유지 부문에서 나타났는데, 몇몇 대상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거나 급진적 수리보수로 인해 건축유산적 관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기술적 측면에서는 복원의 근거가 있기에 가치 제고의 여지는 참작해 볼 만하다.

아울러 누정문화와 관련하여 문예 자산적 측면에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누정원림문화의 현행 유지는 유형유산에도 무형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통합하려는 근래의 등재 경향을 감안하여 설정한 기준으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기초연구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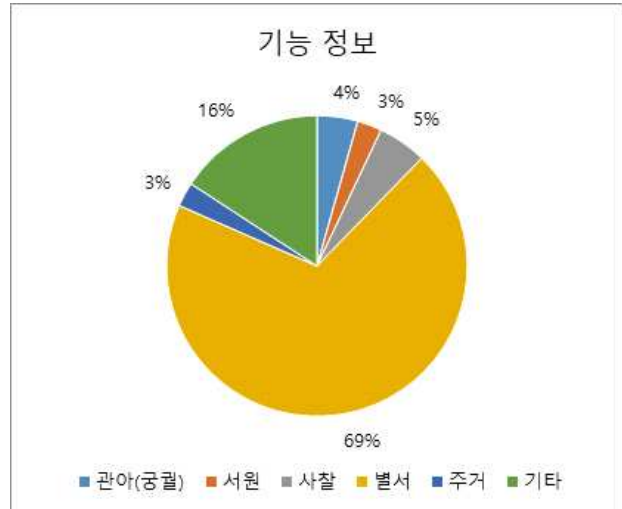
가치가 있는 우선검토 대상 114개소를 중심으로 기능정보, 입지환경, 문예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유의미한 주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누정원림은 자연의 일부로써 조영되며 그 목적에 따른 조영 수법과 결과가 조영자의 경관 향유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기에 분명하게 분류한다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차경을 위주로 하며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간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계류를 이용해 인공적 보완을 하는 등 조원의 기법에도 한계가 없는 특징이 있다.

주제를 한정하여 분석한 기능정보에 따른 분류는 별서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수량의 많음이 중요함이나 가치를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분석을 위한 지역적 용도 특성과 기준 설정에는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 입지환경의 경우 강이 36%, 마을 41%로 과거 전통적으로 권역으로 인지해 왔던 무등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상류권역, 나주 무안 등 강변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영산강 중류권역, 집성촌을 중심으로 교학과 동계 위주의 마을 누정권역에 대한 수치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문예자산의 경우 전체의 38개소가

있으며 이중 나주와 담양, 화순 누정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고 시가, 서화, 의례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예도 있었다. 한시와 시가는 담양권역, 서화는 담양 소재원도를 비롯해 강진의 다산과 초의선사가 관계된 백운첩의 다산초당도와 백운동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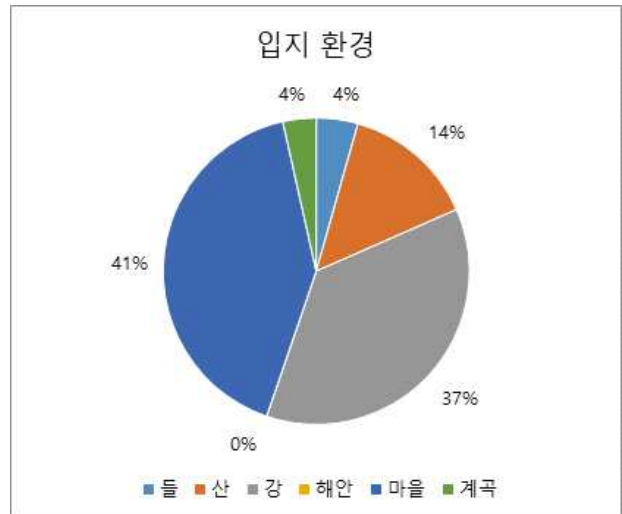
기능정보에 따른 분류 분포

기능 정보	개수	비율
관아(궁궐)	5	4%
서원	3	3%
사찰	6	5%
별서	79	69%
주거	3	3%
기타	18	16%
합계	114	100%



입지환경에 따른 분류 분포

입지 환경	개수	비율
들	5	4%
산	16	14%
강	42	36%
해안	0	0%
마을	47	41%
계곡	4	4%
합계	114	100%



### 2.3 기초자료 연구를 통한 예상 등재기준과 속성

유네스코의 10가지 등재 기준 중 호남 누정원림은 문화유산 기준 (ii), (iii), (iv), (vi)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OUV를 구성하는 호남 누정만의 차별화된 속성으로 누정원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인문학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결합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즉 단순히 건축물의 미학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을 채웠던 인문학적 서사와 자연 경영의 철학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 인문의 조화 (Integral Landscape)로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계

획되었다. 지당(연못), 외나무다리, 취병(나무 울타리) 등 조경 요소 하나하나에 선비의 사상이 담겨 있다. 둘째, 무형유산과의 결합 (Tangible & Intangible Link)으로 누정은 그곳에서 이어진 시조, 가사, 그리고 그곳을 거쳐 간 인물들의 역사적 사건들과 분리될 수 없다. 셋째, 유형의 건축물과 무형의 문학·사상이 완벽하게 결합된 유산이다. 지식인의 커뮤니티 공간 (Intellectual Hub)으로 지역 사람들이 모여 학문을 교류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던 소통의 중심지였다. 이는 조선시대 호남 지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결과로도 보여진다.

호남 누정원림이 세계유산으로서 갖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핵심은 단순히 건축물의 미학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을 채웠던 인문학적 서사와 자연 경영의 철학이 물리적 실체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차별화 속성은 다음과 같다.

호남 누정원림의 예상 등재기준

등재기준	개요	적용가치 및 핵심 속성
기준 (ii)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 (전통건축, 조경, 조원 등)	자연 관조와 성리학적 세계관의 융합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일부로 건축물을 배치하는 '차경(借景)'과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사상이 건축 조영과 배치, 조원 수법이 반영된 탁월한 사례
기준 (iii)	문화적 전통의 독보적 증거 (사라지거나 현존하는 문명)	조선 선비의 '풍류'와 '강학' 문화
		조선시대 사림(士林)들이 자연 속에서 학문을 토론(강학)하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풍류를 즐기던 공동체적, 지적 교류의 장이 건축과 주변 경관 속에 온전히 남아 있음
기준 (iv)	인류 역사의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경관 유형	한국식 산수 원림의 전형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변 산수(山水)를 정원의 요소로 끌어안는 한국 고유의 '원림(園林)' 양식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대표적인 사례
기준 (vi)	사상, 시조, 문학 작품과의 직접적 연관	가사문학과 사림 정신의 산실 식영정, 송강정 등은 한국 문학사의 정점인 '가사문학'이 탄생하고 꽃피운 장소이며, 호남 사림의 정신적 기반인 '성리학적 의리 정신'과 깊이 연관

### 1) '시가(詩歌) 처소'로서의 문학적 서사성

호남 누정은 한국 문학의 정수인 가사(歌辭)문학이 잉태되고 완성된 실질적인 무대이다. 식영정, 송강정, 면양정 등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당대 지식인들이 자연의 이치를 노래로 읊어내던 \*\*'창작 스튜디오'\*\*의 성격을 띤다. 특정 경관을 묘사한 시문이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오며 건축물과 자연, 그리고 문학적 텍스트가 하나의 유산으로 묶이는 독특한 인문주의적 경관을 형성한다.

### 2)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원림(園林)' 경영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이 인위적인 조형미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호남 누정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건축을 그 일부로 편입시키는 '원림'의 형식을 취한다. 계곡의 흐름을 거스르

지 않고 다리를 놓는 소쇄원의 ‘오곡문’이나, 자연 암반을 그대로 기둥 받침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한 한국적 자연관의 정수를 보여준다.

### 3) ‘차경(借景)’과 ‘은유’를 통한 공간의 확장

호남 누정은 담장을 낮게 세우거나 아예 없애고, 기둥 사이의 프레임을 통해 외부의 산천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차경 기법을 극대화한다. 이는 물리적인 점유 면적을 넘어 주변 수십 리의 산하를 자신의 정원으로 삼는 공간의 무한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누정 곳곳에 심어진 배롱나무, 매화, 국화 등은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라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도덕적 은유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 4) 사림(士林)의 ‘네트워크 정신’을 담은 소통의 거점

호남 지역의 누정은 당대 지식인들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던 사회적 공론의 장이었다. 기묘사화나 을사사화 등으로 낙향한 호남 사림들은 이곳에서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며 ‘의리(義理)와 절개’라는 정신 가치를 공고히 했다. 따라서 호남 누정은 고립된 은둔지의 성격보다, 지역 지식인 사회를 연결하는 지적·정치적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 5) 무형의 풍류 문화와 결합된 ‘살아있는 유산’

누정은 건축물 자체의 보존 상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지던 시회(詩會), 원림 관리, 제향 등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후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진정성을 갖는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경관 속에서 시를 짓고 자연을 즐기는 풍류(風流) 문화는 수백 년 전의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호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전통으로 전승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호남 누정의 OUV는 자연과 인간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성리학적 세계관과 국문학적 성취가 경관 속에 응축된 ‘인문학적 유토피아’의 전형이라는 점에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모든 구성 요소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지식인의 철학적 깊이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호남 누정만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남 누정원림은 누정과 원림을 분리할 수 없고 속성을 함께 가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OUV를 전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방향

### 3.1 잠정목록 등재 로드맵 설정을 위한 추진 사례 검토

검토 대상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 하였으며,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에 수행기관 및 수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는 한계가 있다.

**1) 부산광역시 대한민국피란수도**

부산광역시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연구를 시작해 2024년까지 9단계에 걸쳐 관련 연구를 심화하였다. 초기 가치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현상에 대한 건축적 기록을 남기는 연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3단계에 걸쳐 시행하였고 마스터플랜을 설정하였다. 이후 기초연구 심화를 위한 자료 발굴 및 학술연구를 병행하며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구술채록 및 자료집을 발간하여 자료의 완전성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 확충의 재정리 과정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심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발주 기관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착수)	연구기간 (완료)	연구비	수행기관
부산 광역시	피란수도 건축문화자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가치발굴 연구용역	2016-06-09	2017-06-08	120,000,000	(재)부산발전연구원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록화사업 용역	2017-11-30	2019-10-21	380,000,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피란수도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8-09-19	2019-02-23	19,000,000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등재 마스터 플랜 수립	2019-01-03	2020-08-31	375,960,000	
	피란수도 부산 해외소장 자료 발굴 학술용역	2019-11-27	2021-08-19	100,000,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시수도 기념거리 근대유산 활용계획 수립 용역	2020-01-13	2020-04-13	20,000,000	도시나눔
	피란수도 부산 구술채록 및 구술사자료집 발간 학술용역	2020-05-01	2021-12-10	148,000,000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선정을 위한 기반 확충 연구	2023-07-12	2024-10-31	100,000,000	부산연구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심화 연구	2024-11-01	2025-10-31	98,000,00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 울산광역시 반구대 암각화**

울산광역시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잠정목록 추진을 위한 연구를 총 6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관련 연구를 적절히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추진 연구와 진정성, 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 보완 연구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발주 기관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착수)	연구기간 (완료)	연구비	연구내용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사업 연구	2019-05-17	2020-03-16	164,623,000	
	대곡천 암각화 세계유산등재 기반 마련 학술연구용역	2019-09-25	2020-07-24	280,156,370	보존관리 및 활용종합계획
	대곡천 일원 명승 지정 검토 학술용역	2020-08-24	2021-05-10	19,000,000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비교유산 심화분석 연구	2021-06-01	2022-03-25	295,000,000	비교유산 심화 분석 연구
	반구대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2022-07-29	2023-05-24	187,000,000	
	반구대 암각화 보존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2-10-14	2023-08-09	294,998,000	유산구역보존 관리수립

## 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암사동 유적 연구

서울특별시는 한양도성에 대한 연구를 2012~2013년도에 진행한 바 있으며, 강동구를 중심으로 암사동 유적에 대한 연구를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암사동 유적은 초기 보존과 활용을 관점으로 진행하였다가 2021년도에 들어서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가 재검토되며 추진되고 있다.

이상으로 잠정목록 등재 추진 로드맵 설정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대상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연구 사례로 한정할 수 밖에 없었기에 표본 선정에 한계는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계획 설정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에 다루어야 할 연구의 주제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유의미하였다. 현실적인 연구비 설정과 함께 재원의 조달 및 계획, 발주·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특별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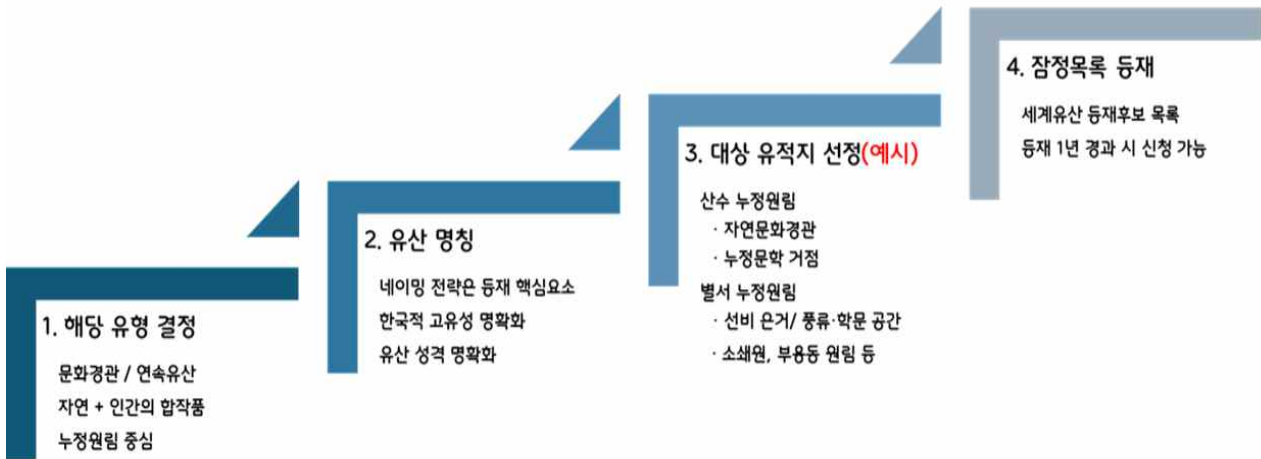
발주 기관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착수)	연구기간 (완료)	연구비	연구내용 및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2012-08-14	2013-10-31	252,000,000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학술용역	2013-10-31	2015-02-16	350,800,00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서울 암사동 유적 보존 활용 계획 학술연구	2013-11-27	2014-02-24	46,500,000	보존활용계획 연구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2021-05-20	2022-04-30	95,000,000	기초조사연구
	연속유산으로서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연구	2023-06-16	2023-12-15	68,000,000	등재방안연구

### 3.2 잠정목록 등재 로드맵 추진 방향 설정

추진사례 검토를 통해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발주처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조사연구의 내용과 연구사업 진행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잠정목록 추진을 위한 연구의 단계별 진행 방향

연차	핵심 과업	연구사업 내용	세부 행사
1	학술기반 조성 및 대상 유산의 선정	1. 전남 누정원림 실태 정밀 조사 및 유산 지정 연구 - 미등록 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기반 마련 - 누정원림의 핵심 가치 도출 - 훼손 현황 및 보존 관리 실태 조사 2.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 로드맵 설계	등재 대상 후보군 기초 자료 확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2	유형별 분류 및 유사 유산 비교 연구	1. 유형별 분류 및 특징 분석 연구 : OUV 구체화 2.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실측 및 유산 구역 설정 기초 연구 3. 국내외 유사 유산 비교 연구 - 동아시아 정원 문화 속 한국 누정원림의 독창성 4.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누정원림의 독창성 및 OUV구체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대상 지역 주민 중심 세계유산 강좌 개최, 등재추진위원회 구성
3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종합 전략 연구	1. 세계유산 등재 기준 분석 및 적용 연구 2. 연속유산으로서의 등재 타당성 연구 3. 잠정목록 신청서 국영문 초안 작성에 관한 학술적 지원 방안 연구 4.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홍보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을 위한 집중 세미나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관련 전시회
4	위험 요인 분석 관리 계획 수립 연구	1. 유산 구역 설정 및 완충 구역 관리 계획 수립 연구 - GIS 활용 및 경관 시뮬레이션 2. 위험 요인 분석 및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지원 연구 3. 국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준비 및 모의 패널 평가 대응 자료 연구 4. 잠정목록 신청서 초안 작성 및 전문가 자문 : OUV, 비교 분석, 보존 관리 계획 등 상세 기술	유네스코 기준 부합 신청서 완성,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모의 패널팀 평가 시뮬레이션 개최
5	유네스코 제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1. 대한민국 정부의 잠정목록 신청서 유네스코 공식 제출 2.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 지원 및 보고서 작성 3. 잠정목록 등재 후속 조치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	외교부, 유네스코 주재 대표부의 외교적 노력, 잠정목록 등재 기념 국제 포럼



잠정목록 추진절차(예시)

### 3.3 연구 추진을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호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를 통칭하는 전라도의 별칭으로 고려 초에 금강 이남을 강남도(江南道)라 부른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강 상류의 호강(湖江) 남쪽에 위치하는 지방이기에 호남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있는 벽골지의 남쪽이라는 의견도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땅이었으며, 후삼국시대에는 견훤(甄萱)이 후백제를 창건한 지방이기도 하다. 고려 초에는 전라북도를 강남도, 전라남도를 해양도(海陽道)라 하였으나, 1018년(현종 9)에 둘을 합하여 전라도라 하였다. 전라도라는 명칭은 전주와 나주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다. 1896년(건양 1)에 13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었고, 1946년에 제주도가 도로 승격하면서 호남지방의 실질적 범위는 반도부와 연안 도서에 국한하게 되었다. 1986년에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으며, 광주직할시는 1995년에 광주광역시가 되었다. 전라남도 도청은 2005년까지 광주광역시에 위치하였다가 이후 현재의 무안군으로 이전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은 전주에 위치한다.

호남 지방은 곡창이라는 경제적 바탕 위에 이와 같은 종교 활동이 예술 창조에도 영향을 주어 광주와 전주는 예향(藝鄕)으로 유명하다. 그리하여 남도문화제와 전라예술제, 그리고 전주 대사습놀이가 매년 열리고 있다. 또한 창과 판소리 등 전통 문화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양화에 있어서도 남도과를 형성할 만큼 그 활동이 뚜렷하다. 호남의 독특한 방언도 호남 지방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전라도 방언구로 통용되는 유사 방언의 사용 범위는 무주를 제외한 호남 지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상하여 호서 및 경기도 방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형적으로 소백산맥은 영남 지방과 경계를 이루어 장벽이 됨으로써 생활권이 고립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금강은 지역 교류를 촉진시켜 호남 지방과 호서 지방의 생활 문화권을 통합하는 경향도 보인다.

연구에 있어 공간적 범위 설정은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리적·물리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연구 주제에 맞춰 분석 대상의 구체적인 공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목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진행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전통건축에 있어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시대적 상황에 다른 생활 규범, 사회적 위계, 자연과의 관계 등이 반영된 삶의 영역을 구획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사회적, 환경적, 구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을 담아대는 구체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인 것이다.

호남 누정원림에 대한 공간적 범위 설정에 대한 관점은 2022년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 2022년 시작된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연구<sup>8)</sup>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첫해에는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다음해에는 나주시와 고창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전남을 중심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을 비롯해 인문, 현판해제 연구를 비롯해 아카이브를 위한 영상자료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공모를 통해 시작한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남에 한정하여 시작하였다. 이후 연구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주광역시의 누정 5개소가 추가 되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행정구역상의 구분으로 인해 시가문화권 및 누정제영권역에서 제외되는 연구대상이 생기는 것이다. 2026년 7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 설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 3.4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제언

#### 1) OUV 도출과 입증

세계유산 제도의 핵심개념인 OUV는 ‘특정유산이 인류전체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즉 OUV 도출을 위해 설정한 핵심 가치가 보편적이고 타당 하느냐를 입증하는 것으로 탁월한 보편성의 입증은 어느 정도 제도의 틀 안에서 설정된다. 그러나 보편성은 고정된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위에서 형성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정기준을 세우고 진전성과 완전성을 논의하며 보존방향을 설정하는 보편적 틀은 적용에 있어 문화적 해석의 다양성도 함께 수반한다. 즉 동일한 유산이라 하더라도 달리 중요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기에 해석은 복수적이며 등재와 보전의 과정을 거쳐 조정된다. 중요한 것과 보편적인 것, 탁월한 것이 가치의 범주 안에서 공감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OUV의 서사구조는 탁월함, 보편성에 근거한 가치 설정과 함께 진정성, 완전성, 탁월성, 역사적 중요성 등과 같은 평가 항목에 따라 설명된다. 특히 진정성과 완전성은 세계문화유산의

8)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연구 사업’으로 호남 지역 누정(樓亭)과 원림(園林)의 현판 자료를 총 조사·정리하고 해제 및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형성 범주에서 핵심 기준으로 작동한다. 원형에 대한 평가는 해석에 따라 훼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연구대상의 누정원림은 초창과 함께 중창, 중수 나아가 복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고쳐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목조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과정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복원은 근거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수원화성의 경우 유네스코는 복원된 유적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안에서 ‘화성성역의궤’가 복원 진정성의 핵심 자료로 인정된 바가 있다. OUV 평가 체계에서는 누정원림의 건축 형태적 완전성에 입각하여 과감하게 복원된 대상이 ‘훼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에 진정성에 대한 과장적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복원에 대해서는 수리이력, 발굴과 같은 고증과정을 역사적 연속성의 범주 안에서 실증적 근거를 통해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발굴 및 유구 해석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고증, 시서화를 통한 형태적 진정성 도출, 수행되는 의례를 통한 공간 향유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 2) 전략적 추진과 등재신청 사전자문(Upstream Process) 제도 활용

세계유산 제도의 초기 단계는 주로 기념물, 유적, 건축물과 같은 물질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호의 대상은 특정 시점에 형성된 완결된 형식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유네스코는 운영지침을 점진적으로 수정·확장 해왔다. 물질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의례, 기술, 공연 생활방식 등 비물질적 요소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존은 유지나 고정이 아니라 전송과 재생산의 과정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재해석과 연관되며 최근 등재되는 세계유산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 등재 경향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관 개념의 확대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둘째, 점(點) 단위 유산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의 입체적 보호가 중시되며, 주민 참여와 무형적 가치의 결합이 중요시된다. 셋째, 연속유산(serialnomination)의 증가로, 지역 간 협력과 공동 신청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넷째, 보존관리 체계가 등재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며, 관리계획과 모니터링이 필수요소로 간주된다. 다섯째, 비교연구의 비중이 높아져 다른 국가의 유산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sup>9)</sup>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누정원림의 등재 추진은 전국적 단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에 연속유산으로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탁월한 가치의 설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유산의 철저한 조사와 논리적 가치 설정이 필수적이다.

2025년 7월 세계유산 등재추진 단계에서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에 사전자문(upstream advice)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특정 유산의 경우 예비평가가 생략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바 있다. 사전자문제도(세계유산 협약 운영지침 제71항, 제121항)는 등재신청 관련 협의, 등재신청 관련 협의, 분석 등 자문기구(ICOMOS, IUCN)의 자문 일체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예비평가 신청서 제출 이전, 등재추진 초기 단계에 신청(매년 3월 31일까지 접

9) 김희태, 세계유산 제도와 전남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전남대학원 문화유산융합학과 세계문화유산연구, 2026. 03. 내용 발췌.

수)하며, 사전자문 절차 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예비평가를 면제 받는다. 아울러 사전자문 준비 및 등재 신청서 초안 작성 등에 연구 지원이 가능하다.

2026년 3월 첫번째 대상으로 조선왕실 가봉태실(경북, 충남, 충북 공동), 한국 기독교교회지(광주, 대구,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공동), 별서 정원과 원림 문화경관(광주)가 선정된 바 있다.

### 3) 추진 로드맵 설정에 따른 연구 전개

호남 누정원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4차례 정도의 지자체 신청서 제출 및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양 누정 제영 및 소쇄원, 시가문화권 누정군을 중심으로 한 연속유산 검토가 2건, 전국 단위의 정원과 누정문화 연속유산 검토가 1건, 보길도 부용동 원림 단독유산 검토가 1건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추천 유산, 장기검토 유산 등의 과정이 있었으나 그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어 확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유사한 구성 대상과 맥락으로 추진되었으며 유산가치도 거의 비슷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주장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비교연구를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추진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를 통한 예비목록의 작성과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호남 누정원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대상의 현존여부, 창건시기, 창건주체 및 용도 파악, 국가유산 지정 등은 세계유산 최소 기준 적용 검토를 위한 체계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정성적 분석을 위해서는 가치도출을 위해서도 확인된 누정원림 유산 안에서 선별대상이 추출되어야 하며 그 가치가 돋보일 근거 요소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주체가 진부할 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대상이 개념의 확대와 중요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는 추진 대상의 국내 보호제도의 적용 재검토이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의 검토 대상의 우선적 전제는 국내 국가유산의 제도 범위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속유산의 경우 추진 대상이 국가유산 지정 종목과 지정 단위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산사의 경우 7개 중 4개가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에도 등재기반 마련 연구 과정에서 명승 지정을 위한 후속연구가 추가 검토 되었다. 서남해안 갯벌도 지정되지 않은 대상으로 추진을 시작하였으며, 화순 고인돌 유적은 지정구역의 범위가 문제시 되었다. 누정원림의 경우 영역적 범위 설정이 가능한 국가 지정 명승과 사적, 시도 기념물이 있으며 개별 유산으로 시도유산자료 등이 있어 지정 유형이 다양하다. 우선 추진 대상과 가치가 설정된다면 지정종목과 보호구역 설정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음에도 비지정인 경우 대부분 건축물대장 생성 누락 등의 행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 4) 지속가능한 유산으로의 보존관리 개념 전환<sup>10)</sup>

등재의 대상은 유산이기에 본질적으로는 유형의 대상 또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진정성과 완전성 안에는 행위자의 삶과 경험, 문화가 내포되어 가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험은 역사적 맥락에서 기능이 변화하고 형태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연구과정에서 대상 누정원림의 상당수가 초창당시의 기능에서 변화함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 설정한 보존관리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유산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2025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sup>11)</sup>의 예산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형태유지를 위한 보수·복원, 경관유지를 위한 주변정비가 주를 이루며 박물관·유물관 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이 주를 이룬다. 예산의 투입은 핵심가치의 유지를 위해 형태를 유지하고 기능을 고정하는데 집중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유산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적 양상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건축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건축은 본래 고정된 물체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장소이다. 물리적 구조인 동시에 경험의 장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적 존재이다. 사용되고 보수되고, 증축되며 변화하고 용도가 전화되고 사람들의 습관과 관행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유산이었던 것’이라기보다 ‘유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고정된 대상이라기보다 유형의 대상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대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누정원림의 유산 적 개념은 조영자의 행위와 이용자의 경험이 생성되며 관계성이 중심이다. 건축물과 자연, 입지와 환경, 기능과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누정원림은 살아가며 관리하되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보존관리의 개념설정과 맞닿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정책 기조도 ‘등재 중심’에서 ‘보존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당사국은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 소통 등의 사회적 기반 마련을 중시해야 하며 등재과정의 보존관리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즉 ‘등재 이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유산으로의 활용과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적이며 과학적 관리가 보존관리의 핵심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 5)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전문추진단 구성

세계유산으로 가는 길은 깎고 다듬는 긴 호흡을 요구한다. 크게 등재 이전과 등재, 등재 이후로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나아가는 추진단의 구성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지향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가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특히 연속유산으로의 추진을 염두한다면 이는 필수적이다. 연속유산의 운영지침에는 등재 이후 정기보고<sup>12)</sup> 수행 기관으로 통합관리센터가 있

10) 이상해, 세계유산 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재조명,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학술세미나. 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11) 국가유산청, 2025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12) 정기보고는 전 세계 단위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모니터링 두 가지 제도중 하나로 대부분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유

는데, 등재 추진단이 통합관리단, 통합관리센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을 한국의 서원, 산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공동의 철학과 구조를 지닌 연속유산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안에 지방자치단체와 통합관리센터가 협력하는 다층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잠정목록 등재 이전 준비 초기의 주체는 전문가와 행정기관 지자체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기 이후 보존관리 체계의 구체화 단계에서는 소유자를 비롯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민간공동체의 동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누정원림의 소유는 대개 문중을 중심으로 하며 등재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선행해야하기에 소유 및 관리의 주체가 추진 합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등재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지역의 개발계획<sup>13)</sup>과 충돌한다면 이는 보존관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특히 등재를 위한 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핵심 가치의 해석 설정에 따라 국가유산 지정·보호 구역을 초과하는 유산 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제도화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이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 또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통보와 영향평가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세계유산 제도는 단순히 등재 실적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자문-예비평가-보존관리-영향평가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속가능한 활용, 그리고 유산의 가치와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세계유산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진 현황은 선행연구의 사례를 분석 하였고 등재 추진대상에 대한 기초적 검토, 이를 통해 추후 연구를 통해 진행될 예상 등재기준과 속성을 문화경관 관점으로 거칠게 살펴보았다. 추진 방향은 잠정목록 등재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방향을 설정한 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호남 누정원림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도출을 위해 살펴볼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고는 이제 시작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의 관점에서 건축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안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연구 대상의 발견과 인지하고 있던 연구 대상의 가치를 입증하고 도출하는 재

산의 보존현황을 조사, 모니터링, 평가한다. 정기보고는 6년 단위로 운영되며 의무가 있는 지역에 속한 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자국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한다

13) 화순 고인돌유적의 등재과정에서 한전의 송전탑 설치 계획으로 경관 훼손이 문제제기 되었으나,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과 지자체, 국가유산청 협의하여 원만히 노선을 변경 조정하였고 마한역사연구회, 한국고인돌·선돌협회 등 민간단체의 보존 운동을 전개하여 등재에 기여하였다.

발견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고민이 많았음을 밝힌다. 분명한 것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추진책을 일원화하고 설정된 지향점에 따라 지자체와 연구자, 소유자 및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권역 안에서 유사 주제를 가지고 각 지자체, 수행기관 따로 진행하는 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해석 관점만 다양하게 할 뿐이다. 아울러 조사연구와 등재신청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분야 연구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전문연구단과 관계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이 등재신청 단계까지 함께하는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추진위원회가 서둘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진상철, 한국전통원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 담양의 원림을 사례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11.
2. 강동진, 박소현, 성기진, 명준영, 세계유산의 등재, 그 의미와 보존관리의 현안, 도시정보 (Urban Information Service), 2013.
3. 강동진, 세계유산 등재의 경향과 지향점-가야고분군에 대한 바램, 경남발전, 2017.
4. 김희태, 전남지역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 한국건축학회 특집-지자체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전략과 노력-, 2017.
5. 임경희,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정책과 활용방안, 역사와 역사교육, 2017.
6. 이제이, 성종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 등재 경향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2024.
7. 김희태, 세계유산 제도와 전남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전남대학원 문화유산융합학과 강의 자료, 2026.03.
8. 이상혜, 세계유산 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재조명, 세계유산을 위한 지식과 건축 전문가의 역할-한국건축역사학회 4월 월례학술세미나, 2026.04.

1. 지리산권문화연구단,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1.
2.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전통한옥·종가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조사 용역, 문화재청, 2013.
3. 부산발전연구원, 피란수도 건축·문화자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가치 발굴 연구, 부산광역시, 2017.
4. 부산연구원,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기반확충 연구, 부산광역시, 2024.
5.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피란수도 부산유산 심화연구, 부산광역시, 2025.
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조사 연구용역, 한국학 호남진흥원, 2026.

1. 국가유산청(<https://www.heritage.go.kr>)
2. 세계유산한국서원통합보존관리센터(<https://k-seowon.or.kr>)
3.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https://whc.unesco.org>)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현황과 방향 제언」

### 토론문

조일형(한국학호남진흥원)

최정미 박사님의 발표문은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가능성을 선행연구, 대상 검토, 예상 등재기준, 로드맵 구성, 공간적 범위 설정 등 다층적인 고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 누정원림을 개별 정자나 건축유산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자연경관과 건축, 문학, 사상, 지역의 생활문화가 함께 축적된 문화경관으로 파악한 점은 향후 세계유산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호남 누정원림은 조선시대 사림의 강학과 풍류, 시문 창작, 성리학적 가치관, 원림 조성의 철학이 함께 구현된 복합유산이며, 최근 세계유산 제도가 유형유산과 무형적 가치의 결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주지와 분석에 대체로 공감하며 발표문을 읽는 동안 들었던 의문점과 앞으로 등재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무엇보다 앞으로의 등재 논의에서는 호남 누정원림의 인문학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를 한층 더 분명하게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미 호남 누정원림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결합된 문화경관이라고 보았고, 조선 사대부의 생활·학문·사회·풍류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향후 보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호남 누정원림의 본질적 가치는 정자의 외형이나 원림의 배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누정문학의 창작과 향유, 강학과 교유, 의례와 풍류, 그리고 지역 사림 네트워크의 형성과 전승에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누정은 단순한 경승지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학문을 논하고 공동체적 질서를 형성하던 지적·문화적 플랫폼이었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깊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도 최근 세계유산의 경향이 무형적 요소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협력,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보존관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누정원림 역시 현관, 제영시, 관련 고문헌, 사회와 강학의 전통, 후손과 지역사회의 향유 방식, 제향과 문화행사 등 비가시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구조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연구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넘어서 “그 공간이 어떻게 기억되고, 해석되고, 전승되어 왔는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호남 누정원림이 단순한 전통건축의 사례가 아니라, 건축·경관·문학·사상이 결합된 살아있는 인문유산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114개로 압축된 우선 선별 누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다음으로 구성 대상의 선정 문제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과거 ‘소쇄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군’이나 ‘담양 누정제영 원림’은 일부 대상의 직접적 연관성 부족, 진정성과 완전성의 한계, 완충구역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많이 넣는 방식”보다 “설명 가능한 대상을 정교하게 묶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체 호남 누정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기보다, OUV를 가장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유산군을 선별하고, 그 주변의 관련 자산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등재는 장기적으로 호남권만의 과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충청권·경상권과의 연합을 염두에 둔 연속유산(serial property) 전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정과 원림 문화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대부 문화와 동아시아적 자연관, 문학과 강학의 전통이 권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된 한국적 문화유산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 누정원림은 우선적으로 호남의 대표성과 독자성을 분명히 정립하되, 장기적으로는 충청·영남 지역의 관련 누정원림과 비교·연계하면서 ‘한국의 누정원림 문화’라는 보다 확장된 서사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발표문에서 제시한 ‘정원과 누정문화’의 전국 단위 검토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세계유산 추진에서 지역 간 경쟁보다 권역 간 연합과 공동 대응이 더욱 설득력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호남은 출발점이자 핵심 축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충청권과 경상권까지 아우르는 전국적 연속유산 체계 속에서 한국 누정원림 문화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함께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추진은 “아름다운 정자를 세계에 알리는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호남이 축적해 온 누정문학, 선비정신, 강학과 풍류, 자연관과 경관철학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세계유산의 언어로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보완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인문학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를 OUV의 중심축으로 재정리해야 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할 조사·연구·전승자료를 체계화해야 하며, 셋째,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학술과 행정,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넷째,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잠정목록 등재 준비를 장기적·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바로 그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향후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와 추진 절차

김영수(ICOMOS Korea)



**호남 누정  
원림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와  
추진 절차**

목차:

1. 세계유산목록 등재 준비
2. 세계유산 등재 절차
3. 등재전략

김영수 ICOMOS Korea



**I 세계유산목록 등재 준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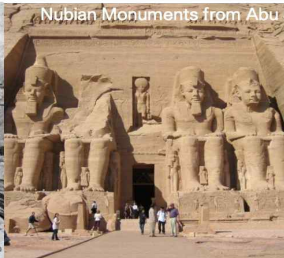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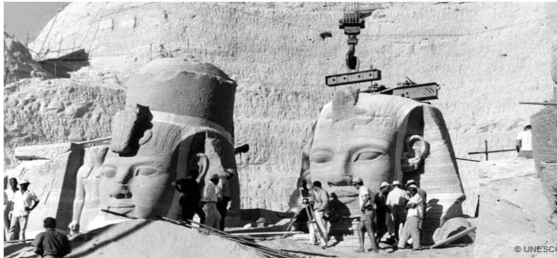
# 1. 세계유산의 시작

세계유산은 1960년, 이집트가 아스완 하이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댐이 완성되면 댐의 수몰지역 내에 있는 누비아 유적은 사라질 위기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누비아 유적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고 60개국이 여기에 호응하여 누비아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및 발굴,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누비아 유적 내의 아부심벨 대신전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옮겨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문화, 자연유산들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72년,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1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세계유산 조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960년대, 아스완 댐의 건설로 수몰위기에 있었지만, 국제적인 원조와 유네스코 지원 등을 받아 원래 위치보다 65m 높은 위치로 이전, 아부심벨(Abu Simbel)은 이집트 남부에 있는 고대 이집트의 유적으로 20m의 좌상들과 암벽을 60m 깊이로 파서 만든 신전이다.

## Abu Simbel: The campaign that revolutionized the international approach to safeguarding heritage



구글어스 03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7 October to 21 November 1972, at its seventeenth session,

**Noting that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ural heritage are increasingly threatened with destruction not only by the traditional causes of decay, but also b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aggravate the situation with even more formidable phenomena of damage or destruction,**

**Considering that deterioration or disappearance of any item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constitutes a harmful impoverishment of the heritage of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protection of this heritage at the national level often remains incomplete because of the scale of the resources which it requires and of the insufficient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ource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perty to be protected is situated,**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provides that it will maintain, increase, and diffuse knowledge by assuring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world's heritage, and recommending to the nations concerned the necessary international conventions,**

**Considering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concerning cultural and natural property demonstrate the importance, for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f safeguarding this unique and irreplaceable property, to whatever people it may belong,**

**Considering that parts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are of outstanding interest and therefore need to be preserved as part of the world heritage of mankind as a whole,**

**Considering that, in view of the magnitude and gravity of the new dangers threatening them, it is incumben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y the granting of collective assistance which, although not taking the place of action by the State concerned, will serve as an efficient complement thereto,**

**Considering that it is essential for this purpose to adopt new provisions in the form of a convention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collectiv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rganized on a permanent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modern scientific methods,**

**Having decided, at its six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sixteenth day of November 1972 this Conven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seventeenth session Paris, 16 november 1972



English Text

## 2.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

### 세계유산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 인류무형문화유산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간 협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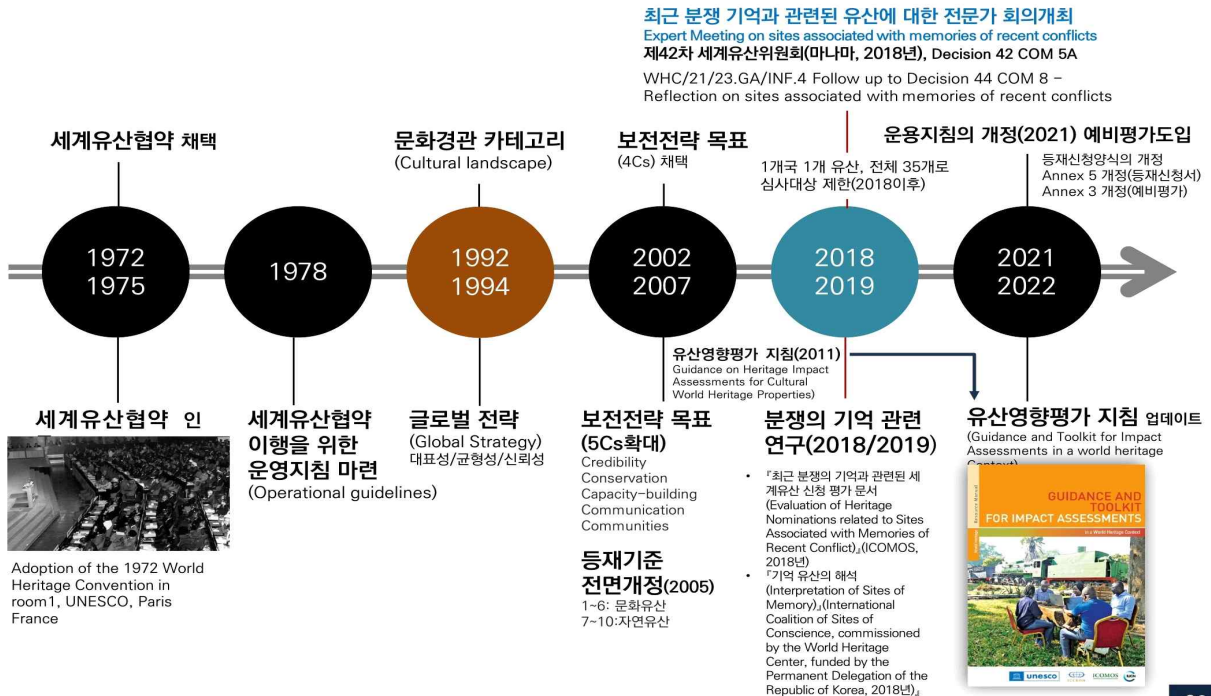
###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유산의 종류로는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됩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참조

## 3. 세계유산제도의 변화



## 4. 세계유산의 정의 및 범주

### 문화유산

**기념물 Monuments**: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축물군 Group of Buildings**: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Sites**: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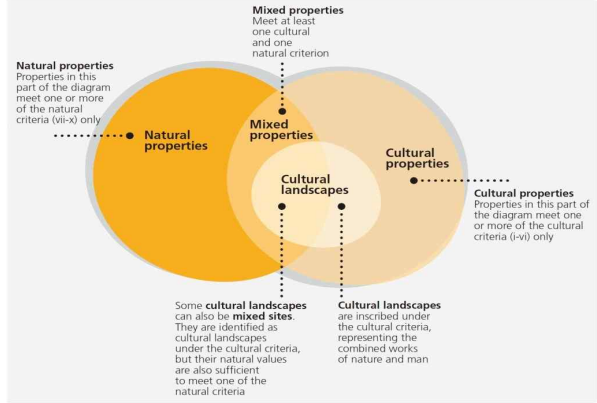
###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물들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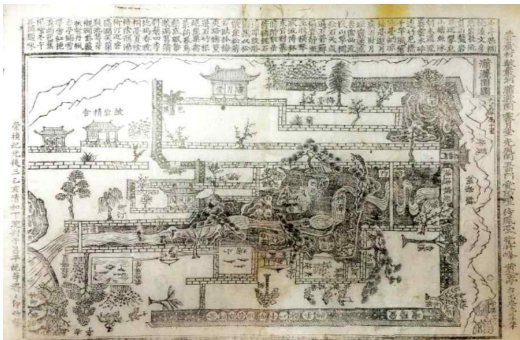
###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세계유산은 1960년, 이집트가 아스완 하이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댐이 완성되면 댐의 수몰지역 내에 있는 누비야 유적은 사라질 위기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누비야 유적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고 60개국이 여기에 호응하여 누비야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및 발굴,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누비야 유적 내의 아부심벨 대신전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옮겨졌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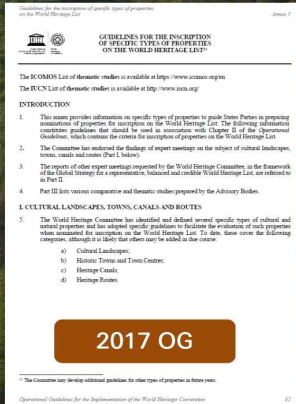
## Annex 3 (Request Format for a Preliminary Assessment of a Potential Nominat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 CULTURAL LANDSCAPES

**Definition**  
 6. Cultural landscapes are cultural properties and represent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designat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and settlement over ti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constraints and/or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of successiv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orces, both external and internal.  
 7. They should be selected on the basis both of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of their representativity in terms of a clearly defined geo-cultural region and also for their capacity to illustrate the essential and distinct cultural elements of such regions.  
 8. The term "cultural landscape" embraces a diversity of manifestations of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kind and its natural environment.  
 9. Cultural landscapes often reflect specific techniques of sustainable land-us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y are established in, and a specific spiritual relation to nature. Protection of cultural landscapes can contribute to modern techniques of sustainable land-use and can maintain or enhance natural values in the landscape. The continued existence of traditional forms of land-use supports biological diversity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landscapes is therefore helpful in maintaining biological diversity.

### Definition and Categ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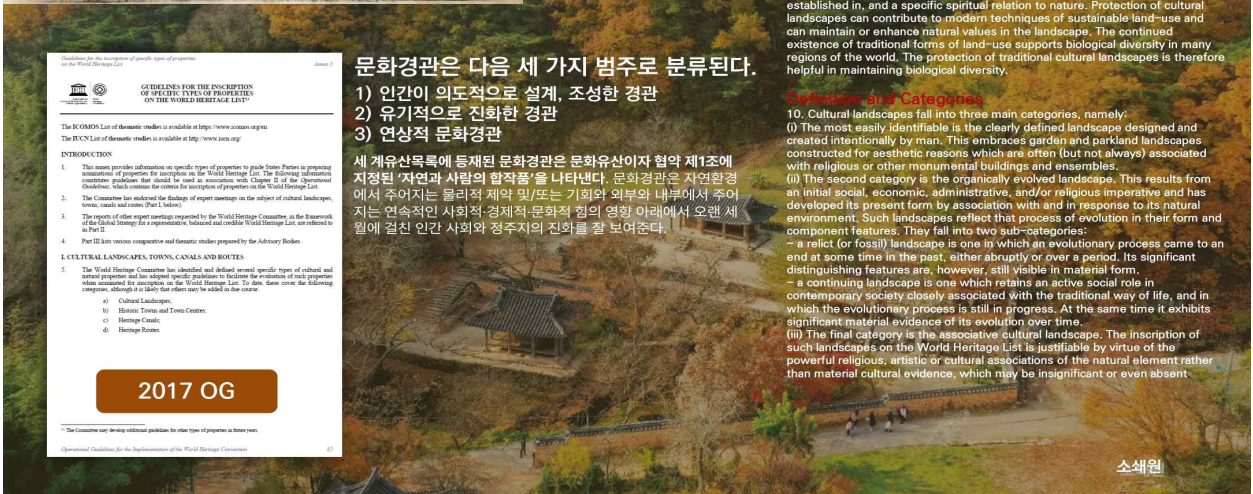
10. Cultural landscapes fall into three main categories, namely:  
 (i) The most easily identifiable is the clearly defined landscape designed and created intentionally by man. This embraces garden and parkland landscapes constructed for aesthetic reasons which are often (but not always) associated with religious or other monumental buildings and ensembles.  
 (ii) The second category is the 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This results from an initial social, economic, administrative, and/or religious imperative and has developed its present form by association with and in response to its natural environment. Such landscapes reflect that process of evolution in their form and component features. They fall into two sub-categories:  
 - a relict (or fossil) landscape is one in which an evolutionary process came to an end at some time in the past, either abruptly or over a period. Its significant distinguishing features are, however, still visible in material form.  
 - a continuing landscape is one which retains an active social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raditional way of life, and in which the evolutionary process is still in progress. At the same time it exhibits significant material evidence of its evolution over time.  
 (iii) The final category is the 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 The inscription of such landscap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s justifiable by virtue of the powerful religious, artistic or cultural associations of the natural element rather than material cultural evidence, which may be insignificant or even absent.



### 문화경관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 1)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 조성한 경관
- 2)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 3) 연상적 문화경관

세 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문화경관은 문화유산이자 협약 제1조에 지정된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을 나타낸다.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에서 주어지는 물리적 제약 및/또는 기회와 외부와 내부에서 주어지는 연속적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힘의 영향 아래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인간 사회와 정주자의 진화를 잘 보여준다.



소쇄원

## 5. 세계유산의 가치 및 속성

### 1)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eing includ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means that a heritage place has been formally recognized a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The concept of OUV, together with the conditions for its **authenticity** and **integrity**, underpin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all activities associated with properties on the List, including impact assessment. Each property on the List has a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ich summarizes the justification for the inscription of the property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serves as a baseline for the universally recognized and accepted heritage/conservation values of that place.** These statements can be foun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s** website along with other relevant documents, such as the nomination file, management plans, and mission reports, among others.

### 2) VALUES AND ATTRIBUTES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values and attributes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y** for which it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OUV**, including its **authenticity** and **integrity**, must continue to remain protected for any property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se concepts are important for carrying out **impact assessment** in a World Heritage context.



## 6. 속성(Attribute)의 의미

속성(attributes)이란 유산의 물리적 성격이나 구조를 말하나, 해당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예를 들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자연 현상, 농업 관행, 사회제도 또는 문화관습일 수도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 속성은 고유의 경관적 특징, 서식지, 주력 생물종, 환경 특징 (온전함, 고색창연함 등), 서식지 면적과 자연스러움,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생존능력 등이 있다. (운영지침, 2023)

속성(attributes)이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유산의 여러 측면을 의미한다. 속성은 유형적일 수도 무형적일 수도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출처:key terms,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 1)형태와 디자인 2)재료와 물질 3)용도와 기능 4)전통, 기법, 관리체계 5)위치와 주변 환경
  - 6)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7)정신과 감정, 이는 지침이 되는 목록이다. 특정 유산의 속성은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과 등재기준의 근거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 속성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 보존,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속성의 식별(identification of attributes) : 속성(attributes),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특징물(features)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이 요소는 특정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전달하고 이를 잘 드러내는 요소, 절차 또는 특징을 가리킨다. 그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식별과 이해는 OUV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보호관리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한다.  
속성은 보호관리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출처:key terms)

## 7.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

### Operational Guidelines :

Integrity is a measure of the **wholeness** and **intactness** of the natural and/or cultural heritage and **its attributes**. Examining the conditions of integrity, therefore requires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the property: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들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가능하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에 대해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

- a) includes all elements necessary to express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b) is of adequate size to ensure the complete representation of the features and processes which convey the property's significance;
- c) suffers from adverse effects of development and/or neglect.

- a)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
- b)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큼 적절한 규모인지
- c)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

### 진정성은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진정성은 속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영지침 82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계유산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제시된 등재신청 기준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그 문화적 가치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게 표현되었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진정성 개념은 운영지침 79-86항에 기술되어 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진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일본 나라에서 1994년 초안이 작성된 바 있는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에 담겨 있다.

(출처:key terms)

### Periodic Reporting Index of Key Terms

The concept of Integrity is described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paragraphs 87-95. Integrity applies to both natural and cultural properties, and is defined as a measure of the **completeness** or **intactness** of the attributes that convey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Managing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the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Cultural Heritage' (UNESCO 2013), the key words to understanding integrity are " **wholeness** ", " **intactness** " and " **absence of threats** ". These can be understood as follows:

- **Wholeness**: all the necessary attributes are within the property;
- **Intactness**: all the necessary attributes are still present – none are lost or have been significantly damaged or have decayed;
- **Absence of threats**: none of the attributes are threatened by development, deterioration or neglect."

For example, a property whose scenic value depends on a waterfall, would meet the conditions of integrity if it includes adjacent catchment and downstream areas that are integrally linked to the maintenance of the aesthetic qualities of the property.' (Operational Guidelines, Paragraph 92).

## 8. 세계유산의 속성분석

Level of recognition	Heritage/Conservation values	Attributes	Sources of information
OUV	It is an ecologically and globally outstanding region	Blue Sea, marine and terrestrial areas	

### HOW TO USE TOOL1

The purpose of this tool is to present a step-by-step approach to using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s a basis for the World Heritage component within a broa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or as a stand-alone **Heritage Impact Assessment**.

ESIA/HIA에서 OUV기술문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도구

STEP 1: FIND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기술문 확인)

STEP 2: ANALYSE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기술문 분석)

**Box A1.1** Extract from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r a fictitious site of the Blue Sea Marine National Park and the Old Town of Heritopolis, with examples of values (*red, in italics*) and attributes (underlined)

The property is located *in an ecologically and globally outstanding region*, the Blue Sea. The property covers 400,000 ha with a buffer zone of 600,000 ha comprising both marine and terrestrial areas. It is *part of a larger transition area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biogeographic zones* and its marine systems have developed unique and different ecosystems and species, including endangered ecological communities. The largely undisturbed habitats include rare examples of tropical coral reef systems and unique soft coral species. The property and its surrounding area also include seagrass beds and mangrove habitats. These habitats are *home to populations of seabirds, marine mammals, fish, corals, sharks, manta rays and marine turtles*, and the site *provides important feeding grounds for the last remaining healthy population of endangered orange dugong*. The Blue Sea Marine National Park is an important larvae source area and hosts spawning sites for commercial fish species.

The property contains impressive natural phenomena and areas of great natural beauty and is *relatively undisturbed*. It contains an array of habitat types, such as extensive coral reef complexes, mangroves, seagrasses and intertidal and mudflat areas which all enable the survival (breeding, feeding and resting) of endangered orange dugong, sharks, manta rays, dolphins and migratory birds. The different biogeographic reef zones, each providing typical coral reef assemblages, support a wealth of marine life and breathtaking underwater vistas.

Located on the Blue Sea coast, the historic port town of Heritopolis has *played a role throughout history as a place of interchange between historic cultures overtime*. While much of the architecture reflects the city's golden age of wealth as a trading port in the 18th century, the buildings respect the much older urban layout that dates back to the 6th century. The 18th-century urban plan placed equal emphasis on the built fabric as on public green spaces within the city centre. In addition, within the urban fabric are a range of significant monuments from each stage of the city's history: the Mausoleum of Eugenius, the Basilica of St Helena and the Great Mosque with its madrasa and baths, are all important architectural masterpieces of different periods. The eclectic mix of vernacular and monumental architecture reflects the diverse communities who have lived in the city for one and a half millennia and who continue to follow traditional practices today. For centuries merchants, travellers and pilgrims have come to Heritopolis thanks to its bustling port which is connected to a widespread shipping network. Many of these visitors became residents over time, bringing their traditions and religious beliefs, which are reflected in the ongoing festivals and traditions that are still carried out in particular neighbourhoods and associated with specific monuments, as well as connected with spiritual beliefs connected to the natural world. The city continues its historic port function and is a significant node in surrounding trade routes.

Source: The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 II

## 세계유산 등재절차 예비평가 제도의 도입과 절차

**118bis.** Notwithstanding Paragraphs 179 and 180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Heritage Impact Assessments, and/or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be carried out as a pre-requisite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are planned for implementation within or around a World Heritage property. These assessments should serve to identify development alternatives, as well as both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and to recommend mitigation measures against degradation or other negative impacts on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within the property or its wider setting. This will ensure the long-term safeguarding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e strengthening of heritage resilience to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WHC.24/01  
31 July 2024

###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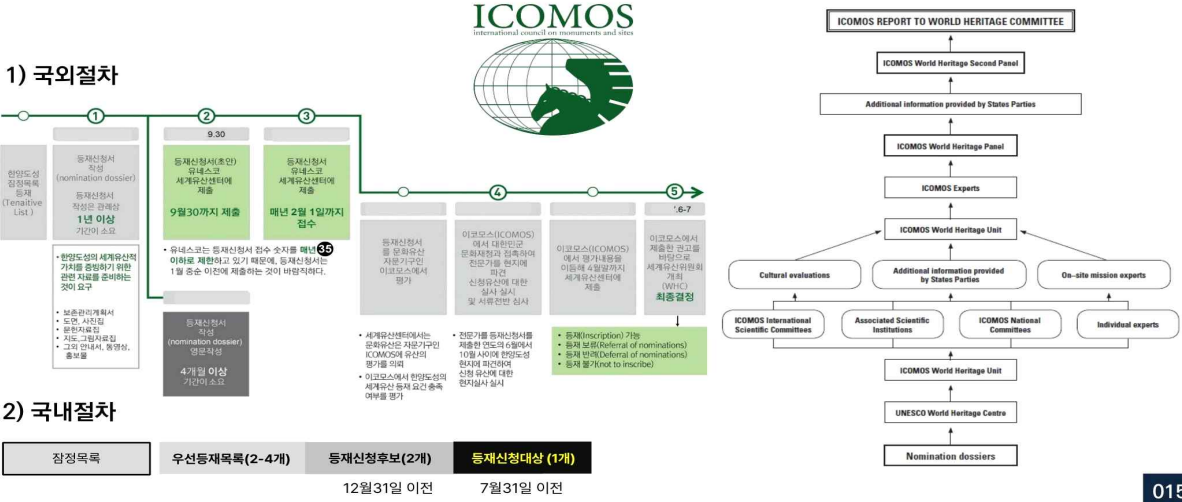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CENTRE

# 1. 신청유산 등재신청 프로세스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_문화유산)
-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_자연유산)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_문화재 보존과 복원 분야)



# 2.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예비평가제도의 도입)

## 업스트림 절차와 예비평가

- 1. 업스트림 프로세스**
  - Upstream Process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자문, 협의, 분석 과정
  - 목적은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와 등재 신청서 작성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줄이는 것
  - 자문기구(Advisory Bodies)와 세계유산센터가 당사국(State Party)에 직접 기술적 조언과 역량 강화를 제공
  - 잠정목록(Tentative List)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잠정목록이후에도 예비평가 요청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음
  - 서면 자문, 현장 방문, 워크숍 개최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2. 예비평가의 면제**
  - Upstream Process를 이행한 유산
  - 보고서 수령 후 5년 이내에 등재 신청서 제출 시, 이 경우 Upstream Process 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 \* 5년 내 2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Upstream Process 또는 예비평가가 필요
  - Upstream Process 보고서는 5년 동안 유효
- 3. 업스트림의 신청절차**
  - 매년 3월 31일까지 양식(Operational Guidelines Annex 15)에 맞춰 제출
  - 요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Operational Guidelines Paragraph 61.c)에 따라 선정됨

**122. Preliminary Assessment**  
 The Preliminary Assessment is a mandatory desk-based process for all sites that may be nominated to the World Heritage List and is undertaken following a request by the relevant State(s) Party(ies). Information included in the Preliminary Assessment request should buil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Tentative List and also on any Upstream Process advice and/or Preparatory Assistance and its outcome must be provided at least one year before a full nomination dossier can be submitted by the State(s) Party(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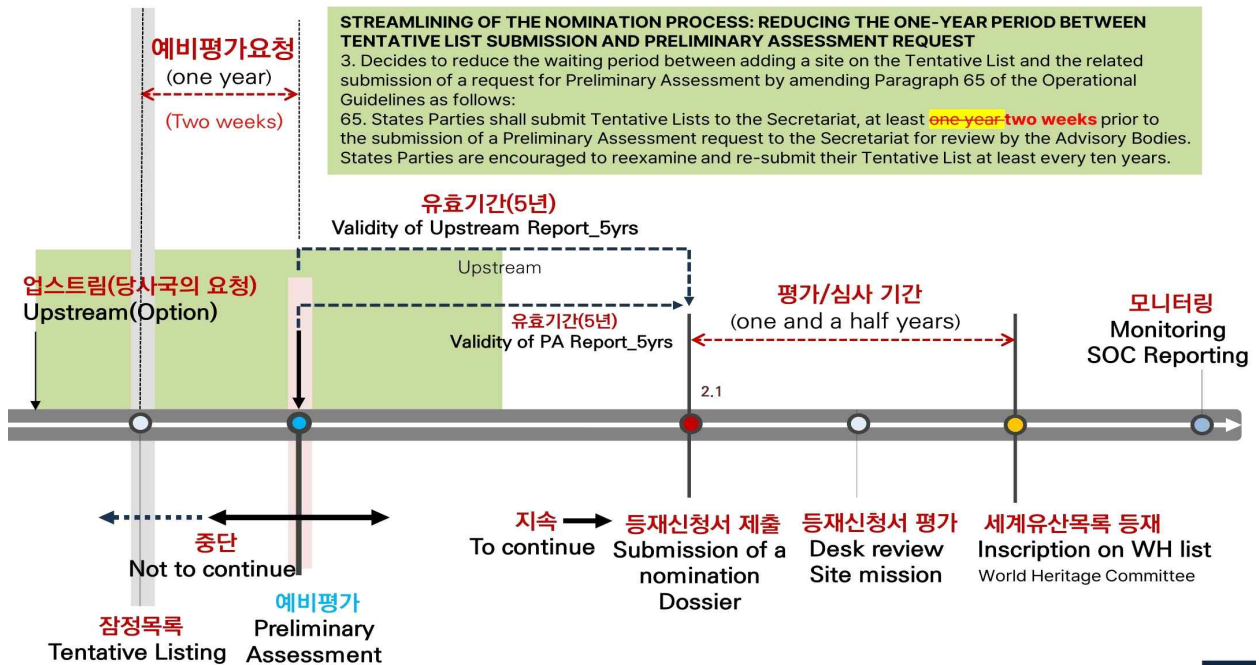
예비평가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모든 유산에 대한 의무적 데스크 기반(서류심사기반) 프로세스이며 관련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다. 예비평가 요청에 포함된 정보는 잠정 목록과 업스트림 프로세스 조언 및/또는 준비 지원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 결과는 당사국에 의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최소 1년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In relation to the nomination of site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voluntary “Upstream Process” comprises advice, consultation and analysis that occurs prior to the Preliminary Assessment and the preparation of a nomination dossier and is aimed at reducing the number of nominations that experience significant problems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The basic principle of the Upstream Process is to enable the Advisory Bodies and the World Heritage Centre to provide guidance and capacity building directly to States Partie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leading up to the preparation of a possible World Heritage nomination. For the upstream support to be effective, it should be undertaken from the earliest stage in the nomination process, at the moment of the preparation or revision of the States Parties’ Tentative Lists. The Upstream Process can also take place after a site is included on the State Party’s Tentative List (see Paragraphs 62–76), but before any Preliminary Assessment request is submitted. The Upstream Process advice may be desk based, but could involve a site visit and/or holding a workshop. The purpose of the advice given in the context of a nomination is limited to providing guidance on the technical merit of the nomination and the technical framework needed, in order to offer the State(s) Party(ies) the essential tools that enable it(them) to assess the feasibility and/or actions necessary to prepare a possible nomination. The Upstream Process advice provided regarding a site will not prejudice the results of any future Preliminary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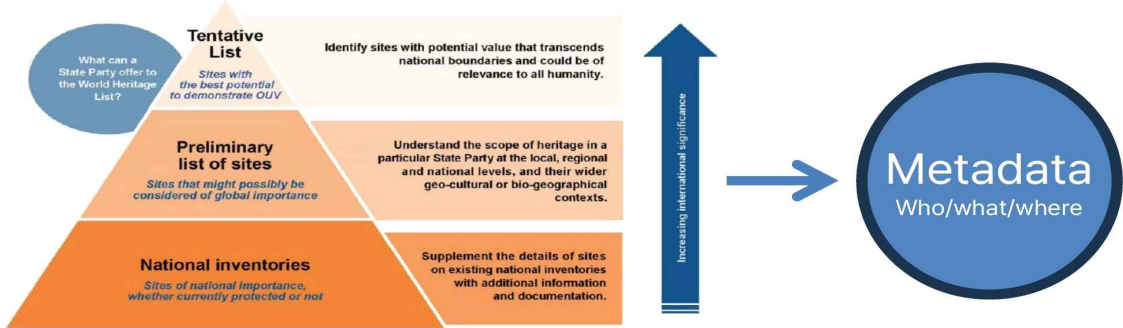
**The requirement to undergo a Preliminary Assessment shall be disregarded for nominations of sites which have been subject to an Upstream Process on a specific sit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elated nomination dossier is submitted within five years following reception of the report of Upstream Process advice. In this case, once a nomination is submitted, the related report of Upstream Process advice shall be annexed to it. The report of Upstream Process advice concerning a specific site is relevant for up to five years.** After this period, either a new Upstream Process or a Preliminary Assessment is required if a nomination is not submitted by 1 February on the fifth year following the transmission of the Report to the concerned State(s) Party(ies).

Requests for the Upstream Process shall be submitted by the annual deadline of **31 March**, using the official format (Annex 15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Should the number of requests exceed the capacity, then the prioritization system as per Paragraph 61.c) will be applied.

### 3. 세계유산의 등재과정(등재 프로세스 변화)-업스트림과 PA



## 4. 세계유산 등재전략-예비평가 Preliminary Assessment Format



Developing a preliminary list of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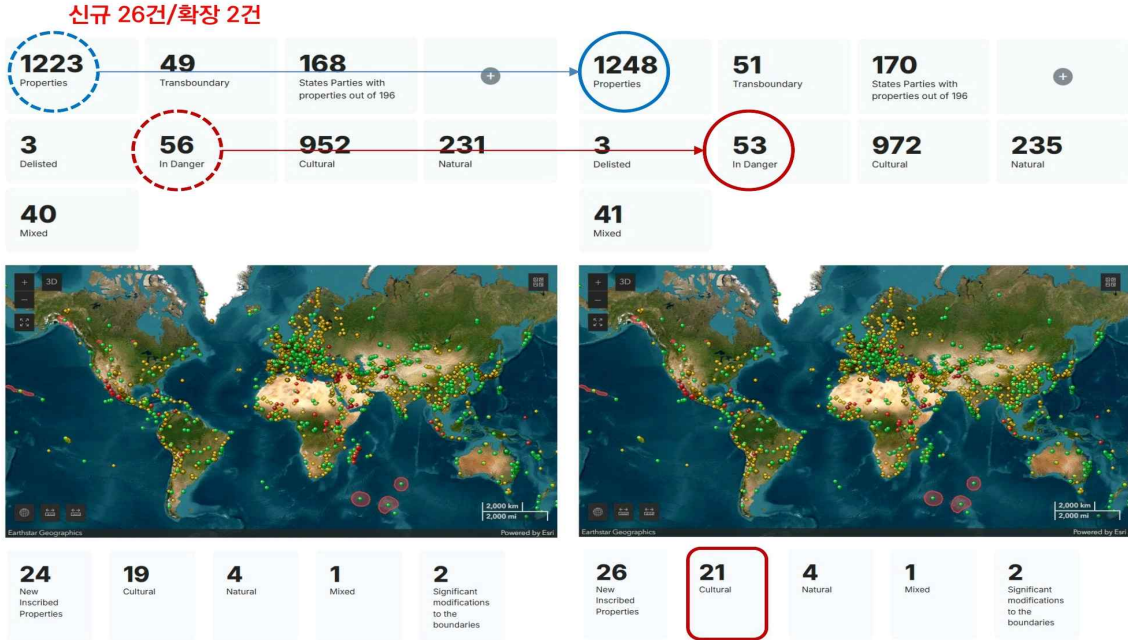
Source: Guidance on Developing and Revising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s



019



# 1. 2026년 현재 세계유산목록 등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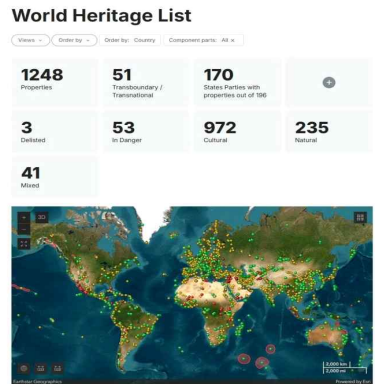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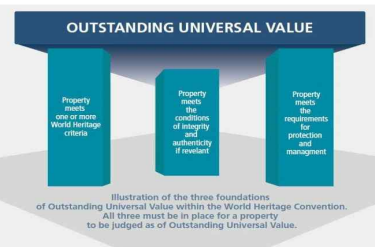


021

# 2.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유산 분석

○ 가이그본군 1~6세기 중엽 영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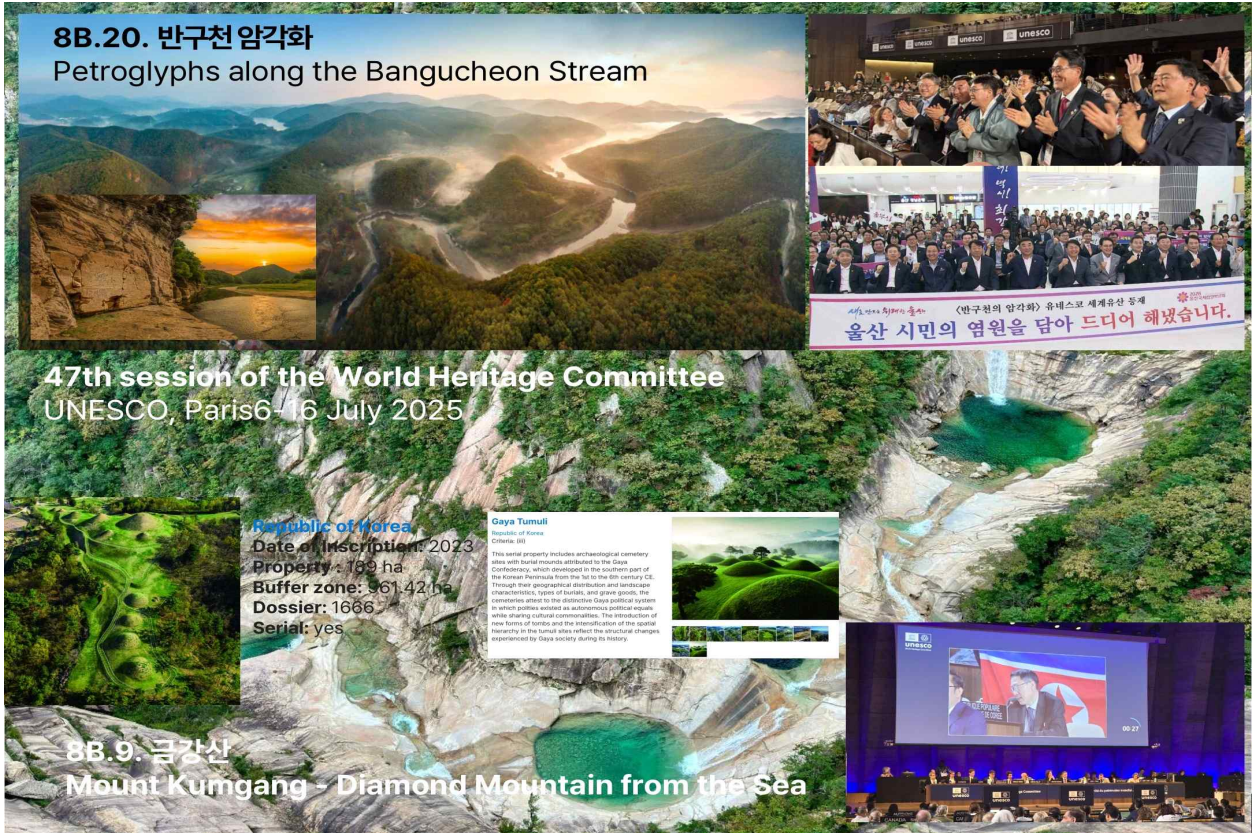
- 경복궁 (1995년 등재)
- 조산왕릉 (2009)
- 갯벌 (2021) 서천, 고창, 완주, 부안, 보성, 순천
- 산사 7곳 (2018)
- 서원 9곳 (2019)
-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5)
- 신라 7곳 (2018)
- 경복궁 (1995)
- 고창, 고창, 최순 고인돌 유적 (2000)
-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5)
- 신라 7곳 (2018)
- 서원 9곳 (2019)
- 경복궁 (1995)
- 고창, 고창, 최순 고인돌 유적 (2000)
-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5)
- 신라 7곳 (2018)
- 서원 9곳 (2019)



※ 등재기준 (운영지침 참조)

구분	평가내용	내용(주제어)
기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뛰어난 걸작이 해당해야 한다.	유일한 유산 (걸작) - <b>Masterpiece</b>
기준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간의 중요한 교류 (교류) - <b>Interchange</b>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문화·전통, 문명의 독보성, 특출함 (증거) - <b>Testimony</b>
기준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역사적 단계를 증명 (발달단계/ 유형) - <b>Type</b>
기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행위로 위대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 도시 유형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환경변화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변 (상호작용/ 사용) - <b>Interaction/Use</b>
기준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화 전통과 직결 또는 유일적으로 연관되어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형유산과 연관 (무형가치) - <b>Associated with</b>
기준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심미적·경관적 가치 (Aesthetic value)
기준 viii)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중요한 특징을 등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지질·지형학적 가치 (Geological/geomorphological value)
기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와 발달에서 의미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생태·생물학적 가치 (Ecological/biological value)
기준 x)	과거이나 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위협성의 서식지를 포함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Associated with biodiversity conservation)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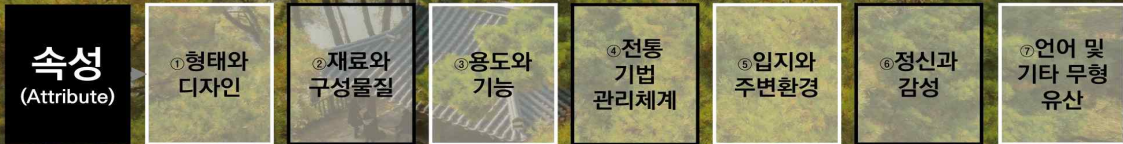


### 3 진정성과 완전성

진정성 Authenticity 과 완전성 Integrity의 충족

**진정성(Authenticity)**은 역사 속에서 해당 유산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완전성은 남아있는 유산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산 전체 또는 본래 모습을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는 척도이다. 특히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유형과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속에서** 신청유산이 제시한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구성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언어 및 기타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기타 내부 및 외부요인 등 다양한 속성들을 통해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1994년 나라선언(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이후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확대됨



**완전성(Integrity)**은 신청유산의 전체 또는 본래의 모습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로서 유산의 현존상태를 기준으로 훼손, 멸실의 정도, 본래 구성요소의 기능과 특성의 유지 정도를 통해 증빙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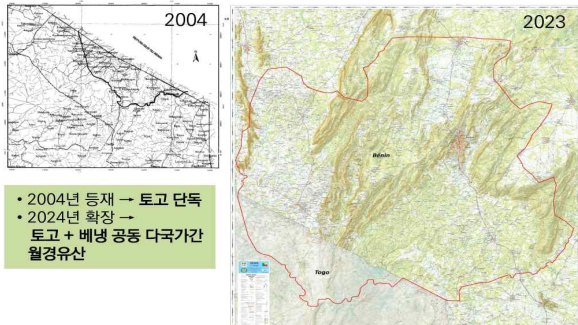
사진: 광주문화재단 누정총서(식영정)

### 3.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

#### 1) 쿠탐마쿠, 바타마리바족의 땅

- 월경유산 : 토고와 베냉 일부까지 확장
- 등재연도 : 2004년 (2008년 위험목록에 등재되었다가 후에 해제됨)
- 확장등재 : 2023년
- 유산유형 : 문화유산 (Cultural Landscape)
- 등재기준 : (v), (vi)
- (v) 전통적 인간 정착지, 토지 이용, 문화적 경관의 뛰어난 사례
- (vi)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과 직접 연관

건축 + 경관 + 의례가 결합된 전형적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사례



- 2004년 등재 → 토고 단독
- 2024년 확장 → 토고 + 베냉 공동 다국가간 월경유산

**ICOMOS는**

- 베냉 쪽 쿠탐마쿠 지역도 토고 지역과 동일한 문화적·건축적 전통을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
- 다국가간(transnational) 월경유산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
- 양국 간의 협력 관리 체계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2) 기마랑이스 역사 중심지와 쿠우루스 지구

- 단일유산 : 포르투갈
- 최초 등재연도 : 2001년 (Historic Centre of Guimarães)
- 유산유형 : 문화유산
- 경계 확장 : 2023년 (Couros Zone 포함)
- 등재기준 : (ii), (iii), (iv)
- (ii) 포르투갈 전역과 식민지에 영향을 끼친 건축·도시 발전 사례
- (iii)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포르투갈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증명
- (iv) 탁월하게 보존된 도시 구조와 건축 양식이 도시 진화의 대표적 사례

**쿠우루스 지구(Couros Zone)-확장**

- 가죽 가공업(무두질)으로 유명했던 전통 산업 지구
- Couros는 바로 이 전통 산업에서 비롯됨
- 무두질 작업장은 사라졌지만, 관련 건축과 도시 구조(노동자 주택, 산업시설, 공공 공간)가 보존되어 있음
- 도시의 경제·사회적 발전 맥락이 세계유산 가치를 증진
- 도시진화의 사례-15세기-19세기 다양한 건축양식과 전통적 건축 재료 및 기법 보존



**ICOMOS는**

- 2001년 최초 등재 당시 향후 특정 지역을 포함 확장등재를 권고하지 않음
- 이후 당사국은 기마랑이스의 전통 산업 지구인 쿠우루스 지구(무두질·가죽 가공 산업 중심지)가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확장등재 추진

### 4. 등재기준과 연계된 강력한 내러티브 구축

#### Building a Robust Narrative tied with Criteria, With OUV Filter, Serial nomination Strategy (Component, Element, Attribute)

순서	구분	국가	등재기준	세계유산 명칭(신규 등재유산)		비고
				영어	한국어	
1	자연 유산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Criteria: (ix)(x)	Gola-Tiwai Complex	골라-티와이 복합지구 (*연속유산)	-
2		기니비사우 Guinea-Bissau	Criteria: (ix)(x)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of the Bijagós Archipelago – Omatí Minhô	비자가스 군도의 해안 및 해양 생태계 - 오마티 민호(*연속유산)	-
3		덴마크 Denmark	Criteria: (viii)	Møns Klint	윈스 클린트	-
4		브라질 Brazil	Criteria: (vii)(viii)	Peruaçu River Canyon	페루아수 강의 협곡	-
5	복합 유산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riteria: (iii)(vii)	Moun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	금강산(*연속유산)	-
6	문화 유산	카메룬 Cameroon	Criteria: (iii)	Diy-Gid-Biy Cultural Landscape of the Mandara Mountains	만다라 산맥 디이-기드-비이 문화경관	문화경관
7		말라위 Malawi	Criteria: (iii)(vi)	Mount Mulanje Cultural Landscape	물란제산 문화경관	문화경관
8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Criteria: (iii)(iv)	Faya Palaeolandscape	파야 고고경관	문화경관
9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Criteria: (i)(iii)(v)	Murujuga Cultural Landscape	무루주가 문화경관	문화경관
10		중국 China	Criteria: (ii)(iii)	Xixia Imperial Tombs	서하 황릉	-
11	인도 India	Criteria: (iv)(vi)	Maratha Military Landscapes of India	인디아 마라타 군사경관 (*연속유산)	문화경관	
12	캄보디아 Cambodia	Criteria: (vi)	Cambodian Memorial Sites: From centres of repression to places of peace and reflection	캄보디아 기념지: 억압의 중심에서 평화와 성찰의 장소로(*연속유산)	-	

순서	구분	국가	등재기준	세계유산 명칭(신규 등재유산)		비고
				영어	한국어	
13		이란 Iran	Criteria: (iii)	Prehistoric Sites of the Khorramabad Valley	호라마바드 계곡의 선사유적 (*연속유산)	-
14		말레이시아 Malaysia	Criteria: (iv)	Forest Research Institute Malaysia Forest Park Selangor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소 셀랑고르 산림공원	-
15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Criteria: (i)(iii)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반구천의 암각화	-
16		타지키스탄 Tajikistan	Criteria: (ii)(iii)	Cultural Heritage Sites of Ancient Khuttal	고대 쿠탈의 문화유산유적 (*연속유산)	-
17		베트남 Viet Nam	Criteria: (iii)(vi)	Yen Tu-Vinh Nghiem-Con Son, Kiep Bac Complex of Monuments and Landscapes	옌투-빈응이엠-견선, 끼엠박 기념물 및 경관 지구(*연속유산)	문화 경관
18		프랑스 France	Criteria: (i)(iv)	Megaliths of Carnac and of the shores of Morbihan	카르낙과 모르비앙 연안의 거석군	-
19		독일 Germany	Criteria: (iv)	The Palaces of King Ludwig II of Bavaria: Neuschwanstein, Linderhof, Schachen and Herrenchiemsee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2세의 왕궁들 - 노이슈반슈타인, 린더호프, 사헨, 헤렌킴제 (*연속유산)	-
20		그리스 Greece	Criteria: (ii)(iii)(iv)(vi)	Minoan Palatial Centres	미노아 궁전 중심지 (*연속유산)	-
21		튀르키예 Türkiye	Criteria: (iii)	Sardis and the Lydian Tumuli of Bin Tepe	사르디스와 빈 테페의 리디아 고분군 (*연속유산)	-
22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Criteria: (iii)	Rock Paintings of Shulgan-Tash Cave	숄간타시 동굴 암채화	-
23		이탈리아 Italy	Criteria: (iii)	Funerary Tradition in the Prehistory of Sardinia - The domus de janas	사르데냐 선사시대의 장례전통 - 도무스 데 야나스	-
24		멕시코 Mexico	Criteria: (iii)(vi)	Wixárika Route through Sacred Sites to Wirikuta (Tatehuari Huajuyé)	신성한 장소를 거쳐 위리쿠타로 가는 위라리카길 (타테와리 와후예)	-
25		자메이카 Jamaica	Criteria: (iv)(vi)	The Archaeological Ensemble of 17th Century Port Royal	17세기 포트로열의 고고학 앙상을 (*연속유산)	-
26		파나마 Panama	Criteria: (ii)(iv)	The Colonial Transisthmian Route of Panamá	파나마의 식민지 시대 지협 횡단 경로	-

Workshop on Preliminary Assessment for national focal points of the Asia Region

027

## 5. 유산등재의 종류와 범주 검토

09-07-2025 10:54 47 COM 88.22 Bulgaria, India, Japan, Kazakhstan, Kenya, Republic of Korea, Rwanda, Senegal, Türkiye, Zambia Yen Tu-Vinh Nghiem-Con Son, Kiep Bac Complex of Monuments and Landscapes Viet Nam

### 8B.12. 파야 고고경관 / Faya Palaeolandscape

**Sharjah Archaeology Authority:**  
Eisa Yousif  
Khuloud Alhouli- Alsuwaidi  
Ossama Khaill  
Kamyar Kamyab  
Yazan Abu Alhassan  
Hafsa Tameez  
Amna Al 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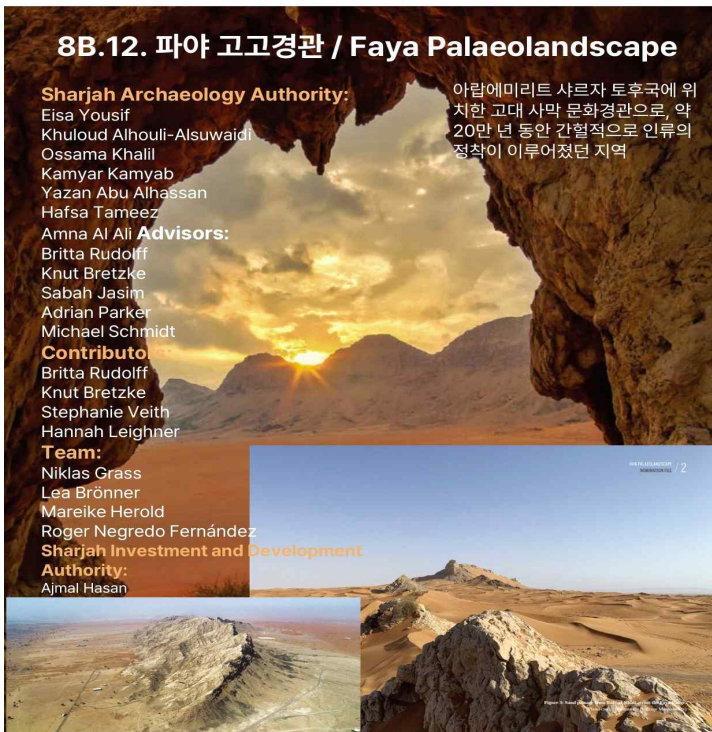
**Advisors:**  
Britta Rudolf  
Knut Bretzke  
Sabah Jasim  
Adrian Parker  
Michael Schmidt

**Contributors:**  
Britta Rudolf  
Knut Bretzke  
Stephanie Veith  
Hannah Leighner

**Team:**  
Niklas Grass  
Lea Brönnner  
Mareike Herold  
Roger Negredo Fernánd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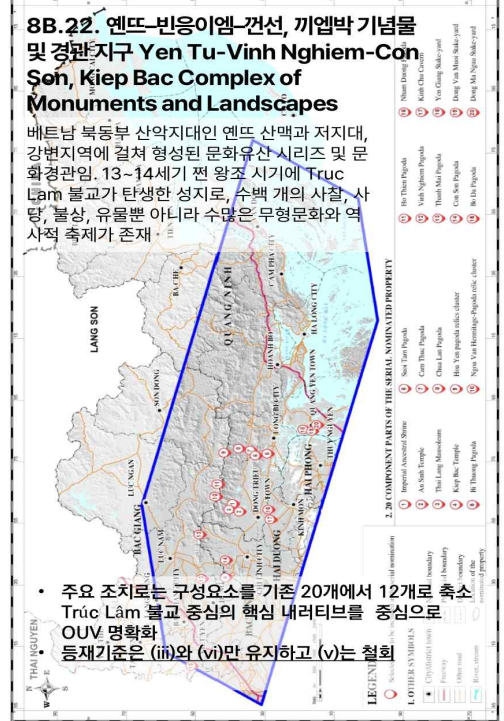
**Sharjah Investment and Development Authority:**  
Ajmal Hasan

아랍에미리트 사르자 토후국에 위치한 고대 사막 문화경관으로, 약 20만 년 동안 간헐적으로 인류의 정착이 이루어졌던 지역



### 8B.22. 옌투-빈응이엠-견선, 끼엠박 기념물 및 경관지구 Yen Tu-Vinh Nghiem-Con Son, Kiep Bac Complex of Monuments and Landscapes

베트남 북동부 산악지대인 옌투 산맥과 저지대, 강변지역에 걸쳐 형성된 문화유산 시리즈 및 문화경관임. 13-14세기 전 왕조 시기에 Truc Lam 불교가 탄생한 성지로, 수백 개의 사찰, 사당, 불상, 유물뿐 아니라 수많은 무형문화와 역사적 축제가 존재



• 주요 조치는 구성요소를 기존 20개에서 12개로 축소  
Truc Lam 불교 중심의 핵심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OUV 명확화  
등재기준은 (iii)와 (vi)만 유지하고 (v)는 철회

## 6. 사례: Hegmataneh and Historical Centre of Hamedan(헤그마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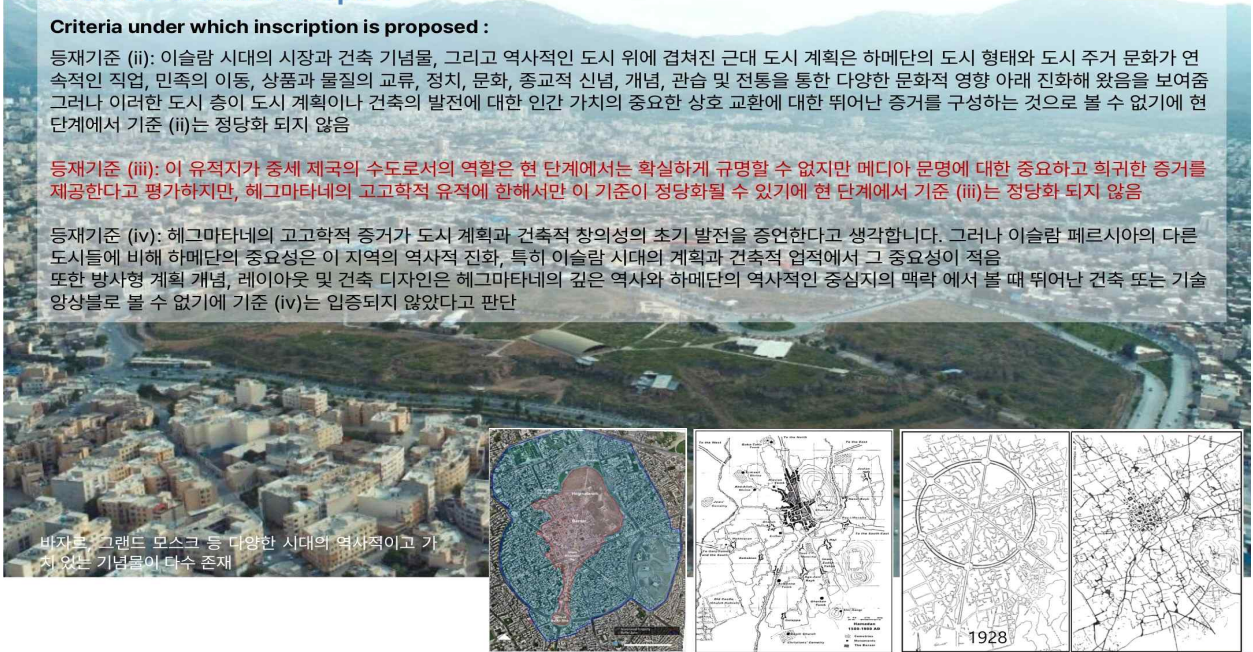
### ICOMOS evaluation report

#### Criteria under which inscription is proposed :

등재기준 (ii): 이슬람 시대의 시장과 건축 기념물, 그리고 역사적인 도시 위에 겹쳐진 근대 도시 계획은 하메단의 도시 형태와 도시 주거 문화가 연속적인 직업, 민족의 이동, 상품과 물질의 교류,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 개념, 관습 및 전통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영향 아래 진화해 왔음을 보여줌 그러나 이러한 도시 층이 도시 계획이나 건축의 발전에 대한 인간 가치의 중요한 상호 교환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현 단계에서 기준 (ii)는 정당화 되지 않음

등재기준 (iii): 이 유적지가 중세 제국의 수도로서의 역할은 현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미디어 문명에 대한 중요하고 희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평가하지만, 헤그마타네의 고고학적 유적에 한해서만 이 기준이 정당화될 수 있기에 현 단계에서 기준 (iii)는 정당화 되지 않음

등재기준 (iv): 헤그마타네의 고고학적 증거가 도시 계획과 건축적 창의성의 초기 발전을 증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페르시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하메단의 중요성은 이 지역의 역사적 진화, 특히 이슬람 시대의 계획과 건축적 업적에서 그 중요성이 적음 또한 방사형 계획 개념, 레이아웃 및 건축 디자인은 헤그마타네의 깊은 역사와 하메단의 역사적인 중심지의 맥락에서 볼 때 뛰어난 건축 또는 기술 앙상블로 볼 수 없기에 기준 (iv)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바자르는 그랜드 모스크 등 다양한 시대의 역사적이고 가치 있는 기념물이 타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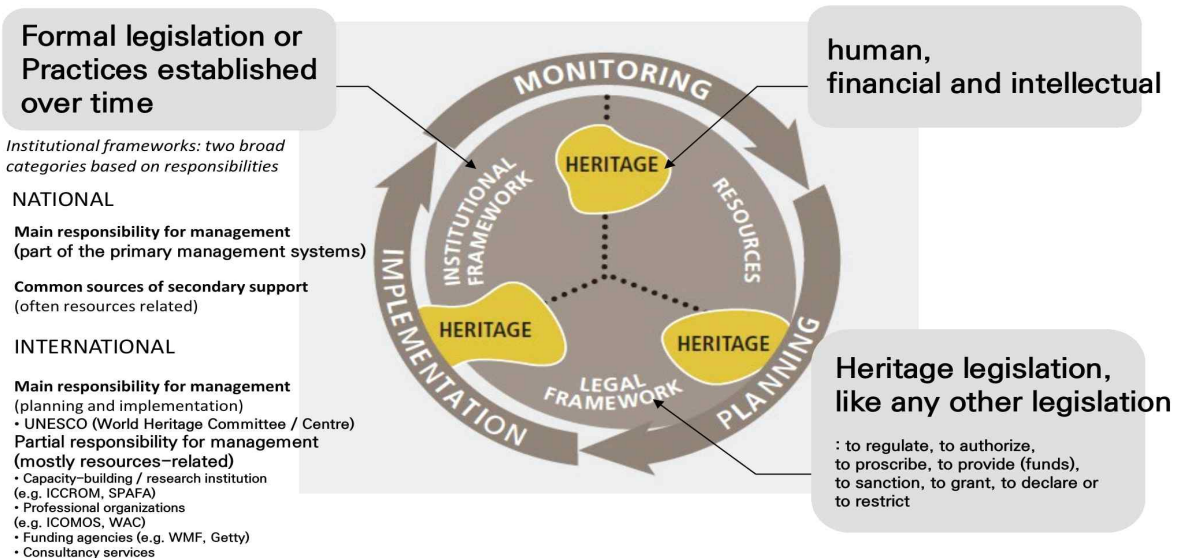
Changes in the old city context from Qajar to Pahlavi

029

## 7. 보전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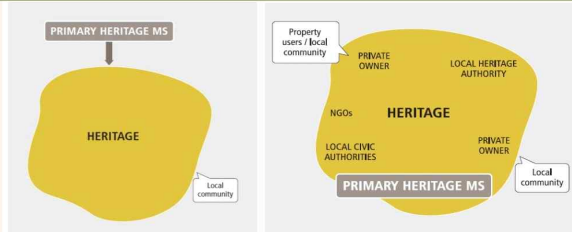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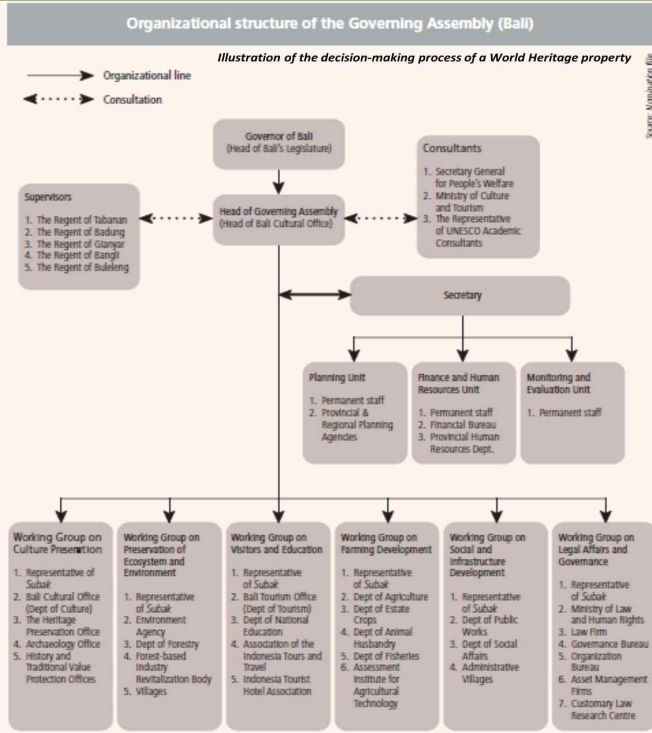
### 참고) 유산 보전관리 체계(The three processes of a heritage management system)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Novem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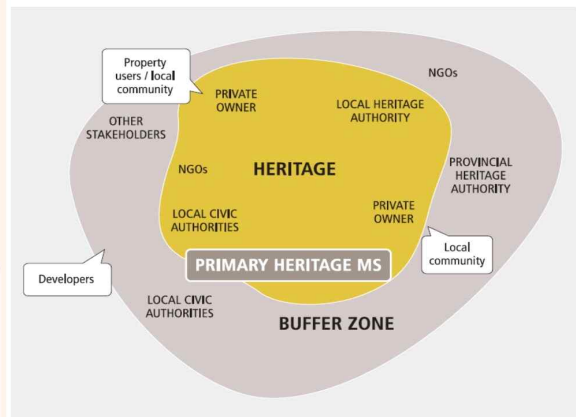


030

## 8. 유산관리의 조직 및 체계 구축



Illustrates management scenario example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November 2013)

031

### 유산의 내러티브(Narrative) 기술에서의 주의점(내러티브, 등재기준, 속성)

- 일반적인 진화 또는 발전의 장소나 과정을 나타내는 현상만을 설명하고 탁월함을 반영하지는 않음
- 해당 유산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또는 왜 탁월한 설명하지 않음
- 종종 유산이 최초, 최대, 가장 이른 시기라는 사실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음
- 세계유산과 관련된 주제와 연관되거나 잠재적으로 국제적 중요성을 암시할 수 있지만, 속성이 내러티브를 뒷받침하지 않음
- 유산 간 서로를 뒷받침하지 않거나 관련 없이 구축됨
- 특정 카테고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속성과 구성요소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됨
- 문화경관으로 신청된 유산이 자연 환경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변형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함

- 등재기준과 연계된 강력한 내러티브 제시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한국의 누정·원림 중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대표적 유산을 선정하는 논리와 근거 필요→호남 누정·원림 등에 대한 개념 정립 (대표성·구성요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수,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와 추진 절차」에 대한 토론문

김만호(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

발표자이신 김영수 교수님은 ICOMOS 한국위원회 건축학분야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보면 오늘 학술포럼의 전체 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문 역시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실무적,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계시는 듯 합니다. 특히 잠정목록 단계에서부터 비교분석이나 속성의 식별,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미리 준비해야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역사학을 전공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전남연구원에 근무하면서 2023년 전남도청의 요청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능성 검토 및 추진방향 도출(김만호·최우람 공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누정·원림과 향약 및 동계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제가 전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정책과제의 제목이 “전라남도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안 연구”인데,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큼니다.

발표문에서 1장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준비”나 2장의 “세계유산 등재 절차” 등은 일반적인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3장의 “등재전략”에서는 “문화경관”의 범주로 등재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학술대회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호남 누정원림”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 다. 세계유산 다등재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 전국 시도에서 끊임없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하고 있다는 국내의 경쟁 심화, 한 지역보다는 전국을 섭렵한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는 최근의 경향성을 볼 때, 과연 “호남 누정원림”으로 잠정목록 등재라는 첫 번째 허들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기왕에 오늘의 학술대회의 개최 취지를 넘어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 까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전남의 3대 전통정원인 담양 소쇄원, 강진 백운동 원림,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정원림으로 테마를 잡는다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나 “한국의 서원” 사례처럼 “한국의 누정원림”이라는 주제로 넓히고 지역을 넘어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등재 추진의 절차 및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등재를 추진할 주체, 즉 누가 키를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추진단이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참고할 사례나, 도움이 될 말씀을 마지막으로 청하겠습니다.

##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와 추진 절차」 토론문

이은정(누정원림문화연구소)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호남 누정원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와 추진 절차」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신 김영수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등재 추진 과정의 핵심 쟁점과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업스트림 프로세스, OUV 도출 방식, 관리 체계 구축과 같은 실천적 논의는 향후 연구 및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같음하고자 합니다.

### 1. OUV와 속성 도출의 방법론적 접근

발표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기술문의 중요성과 속성 분석의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속성과 OUV의 관계 역시 상호 밀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를 추진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OUV를 먼저 설정하고 속성을 정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혹은 속성 분석을 통해 OUV가 도출되는 방식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지 선생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접근 전략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 업스트림 프로세스의 전략적 활용

발표에서 업스트림 프로세스가 예비평가 면제라는 제도적 이점뿐 아니라, 등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스트림 프로세스는 잠정목록 등재 이전 단계와 잠정목록 등재 이후 또는 등재 추진 단계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두 시점에서의 업스트림 프로세스가 절차적 구성이나 검토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제공되는 자문 수준이나 실질적 혜택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특히 등재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3. 현시점에서의 관리 조직 체계 구축

발표에서 세계유산 관리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프로세스(법적 틀·제도적 틀·자원)와 발리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조직 구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정원림 역시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에 걸쳐 있게 되어 통합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정목록 등재를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ICOMOS가 요구하는 관리 체계의 최소 요건은 무엇인지, 복수의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생님의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의 복잡한 절차와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었으며, 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선생님의 깊은 견해를 더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발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신청서 작성 과정

박진재(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1. 세계유산 등재의 여정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정의한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된다는 것은 인류 전체가 소유권과 세대를 초월해 이를 공동 유산으로 인식하고 보호·관리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국의 문화적 독자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인류가 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계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를 인정한 유산이다. 등재 시 해당 유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며, 한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한다. 또한 국제기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지도 상승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현재 세계유산은 총 170개국 1,248건이 등재되어 있다.<sup>1)</sup>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포함해 총 17건의 세계유산목록과 13건의 잠정목록을 보유하고 있다.<sup>2)</sup> 한국의 서원은 1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6, 기초 8)에 분포한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Serial Property)으로, 세계유산 유형 중 문화유산(건물군)에 해당한다.

올해는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이지만, 등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5년 첫 신청 당시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로부터 ‘반려(Defer)’ 의견을 받아 2016년 등재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비교연구 보완과 논리 강화를 거쳐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Inscription)’라는 결실을 보았다.

이러한 성과는 약 10년에 걸쳐 등재를 준비해 온 수많은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준비해 온 10년의 여정과 경험이 향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을 추진하는 ‘호남 누정원림’에도 참고가 되길 바란다.

1) <https://whc.unesco.org/en/list>

2) <https://whc.unesco.org/en/statesparties/kr>

## 2. 세계유산 OUV 입증과 연속유산 요건

### 2.1. 등재 조건과 절차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sup>3)</sup>에 기초한 등재기준(Criteria)을 설정해야 하며,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보호 및 관리(Protection and management)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 핵심 개념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유산의 등재 절차는 크게 국내 절차와 국외 절차로 나뉜다. 국내 절차<sup>4)</sup>는 유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유산의 OUV를 발굴·선정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국가유산위원회(세계유산분과)의 심의를 거쳐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외 절차<sup>5)</sup>는 세계유산센터에 예비신청서 격인 잠정목록(Tentative List)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본신청서 제출 전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sup>6)</sup>를 거쳐야 한다. 예비평가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필수적인 서류 기반 절차로, 잠정목록 등록 및 사전자문 과정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본신청서 제출 최소 1년 전에 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본신청서가 제출되면 자문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 2.2. 연속유산 정의와 요건

연속유산(Serial Property)이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둘 이상의 구성 요소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유산구역으로 이루어진 유산을 의미한다. 연속유산은 한 국가 내에 분포하거나(Serial National Property), 국경을 접한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할 수 있으며(Transboundary Property), 접경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국가가 공동 신청하는 형태(Serial Transnational Property)도 있다.

3)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2025, 이하 운영지침) 49항(OUV 정의), 78항(OUV 조건): 78. *To be deemed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 property must also meet the conditions of integrity and/or authenticity and must have an adequat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to ensure its safeguarding.*

4) 국내 등재 절차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세계유산 등재절차 참조(<https://www.heritage.go.kr>).

5) 국외 등재 절차는 운영지침 참조.

6) 운영지침 122항(예비평가\_Preliminary Assessment) 참조.

연속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137~139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137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137. 등재 신청된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둘 이상의 관련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a) 구성요소는 관련이 있는 경우 경관과 생태, 진화론적 또는 서식지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 사회 또는 기능적 연계를 반영해야 한다.
- b) 각 구성요소는 충실하며 과학적이고 명확히 정의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전체 신청유산의 OUV에 기여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무형적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도출된 OUV는 이해와 소통이 쉬워야 한다.
- c) 등재 신청 유산이 일관되고, 구성요소들이 과도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구성요소의 선정 등 유산 신청 과정에서 신청 유산의 전반적인 관리 측면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14항 참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적 관점이 아닌 세계적 관점에서 가치를 검토하여, 단일유산과 연속유산 중 어떤 방식이 OUV 입증에 유리한지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요구된다.<sup>7)</sup>

- 신청유산의 OUV 정의 및 범위 선정 사유
- 국내외 유사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대표성 입증
- 개별 유산들이 합쳐졌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통합적 가치
- 등재기준, 진정성, 완전성의 충족 여부
- 구체적인 보호 및 관리 계획 수립 여부

또한, OUV 보호를 위해 유산구역(Property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유산구역은 OUV를 직접 포함하는 핵심 지역이며, 완충구역은 유산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 진정성을 유지하는 구역이다. 이때 경계 설정의 근거, 전담 관리기구의 유무, 연속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지역 주민과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속유산의 등재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그 관리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물리적으로 분산된 유산들이 하나의 공동된 가치로 묶여 있는 만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수적<sup>8)</sup>이다. 정부와 전문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때 비로소 유산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7) WHCenter,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 Second Edition, p.76, 2011.

8) 운영지침 114항 참조.

### 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와 과정

#### 3.1. 추진 기관 설립

##### 1)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구 발족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10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이배용 위원장)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원과 사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검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위원회 내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등재 절차, 잠정목록 등록, 추진 전략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국가유산청(前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이 소재한 1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6, 기초 8)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4월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기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무 추진 기구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행정기관 중심의 행정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되었다. 행정위원회는 등재 추진 관련 행정 및 실무 관리를, 전문위원회는 등재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학술적 지원을 담당하여 양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추진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추진단 사무국은 초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예산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한국서원연합회에 위탁 운영되었다. 사무국 설치 이후에는 OUV 도출, 워크숍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등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술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갔다.

##### ○ 한국의 서원 가치 홍보를 위한 추진단 활동

추진단은 한국의 서원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고 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에서는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전통 교육시설로서의 세계유산적 가치, 해외 교육유산과의 비교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 서원의 특수성을 세계 학계에 소개하고 유사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실질적 준비 과정으로 다수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서원의 보존 관리 현황, 기록 문화 정리, 교육 및 제향 기능, 현판 자료 관리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신청 단계에서는 현지실사에 대비한 보존관리 점검과 대응 전략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일본(코도칸, 시즈타니학교 등), 중국(악록서원, 백록동서원 등), 모로코 및 터키의 교육 관련 유산을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서원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OUV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간	구분	학술회의 주제
2013.04.18.~19.	국내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2014.04.18.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2011.10.27.~29.	국제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3.05.23.~24.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4.10.24.~25.		국외 교육 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

표 1.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 개최 현황

기간	학술회의 주제	주최
2011.12.12.	한국 서원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준비위원회
2012.04.18.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추진단
2012.06.15.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2012.11.09.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3.03.15.	세계유산 등재 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5.04.17.	세계유산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5.05.27.	실사 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5.07.07.	실사 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 점검	

표 2.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관련 워크숍

기간	지역	교육유산/서원 답사 장소
2013.02.15.~19.	일본	코도칸, 아시카가학교, 시즈타니학교, 토주서원, 하쿠엔 서원 등
2013.02.20.~24.	중국	악록서원, 백록동서원, 아호서원, 무이정사, 동림서원 등
2013.06.24.~7.1.	모로코, 터키	페즈, 메크네스, 카사블랑카(하산 사원), 이스탄불(교육시설) 등

표 3. 국외 유사 유산 현지답사

## 2)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설립

한국의 서원은 전국에 분포한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에 따라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6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운영지침 114항에서도 명시된 사항으로,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이에 추진단은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통합관리 조직 설립을 추진하였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관리체계 방안(2014)」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4년 12월 국가유산청 회의실에서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관리 방안을 확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서원의 보호와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는 주체이므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통합관리 조직이 설립되더라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는 필수적이다. 이에 정관 검토 등 실무 사항을 조율하며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2012년 4월 체결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이 등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연속유산으로서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체결 이후 정관 검토를 거쳐 재단 설립이 본격화되었으며, 2015년 8월 법인설립 허가를 통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하 서원관리단)'으로 개편·출범하였다.

### 3)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개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이후의 통합 관리를 위해 설립된 재단은, 변화된 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서원관리단'에서 '통합관리센터'로의 개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 정관은 등재 전후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통합관리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 둘째, 9개 서원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계획 및 통합해설 체계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했다.
- 셋째,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넷째, 「세계유산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유에 따라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유산청에 정관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10월 31일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4년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정관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4년 9월 13일 최종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간	내용
2010.10.0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2011.04.1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2012.04.1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 및 업무협약(MOU) 체결
2015.08.05.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설립(국가유산청 허가)
2022.10.31.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설립(국가유산청 허가)
2024.09.13.-현재	국가유산 체계 반영 정관 변경 허가 및 운영

표 4.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관설립 연혁

### 3.2. 잠정목록(Tentative List) 등록

#### 1) 9개 서원 선정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등재를 위한 사전 예비목록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최소 1년 전부터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원' 추진단은 대상 서원을 최종 선정하고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에 착수하였다.

대상 서원 선정을 위해 2011년 수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서원 중 역사적 중요성과 OUV를 충족하는 유·무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당시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9개 서원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9개 서원은 다음과 같다.

- 경북: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경남: 함양 남계서원
- 전남: 장성 필암서원
- 전북: 정읍 무성서원
- 충남: 논산 돈암서원

#### 2) OUV 도출 및 등록

2011년 8월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 산하 등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서원' 잠정목록 신청서 초안 작성을 시작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14개 지방자치단체의 등재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2011년 9월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다. 해당 신청서는 서원의 개요와 등재 신청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기초 자료로서, 향후 본신청서 작성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

국가유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외교부를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세계유산센터는 이를 검토·확정하였으며, 2012년 1월 '서원, 한국의 유교 교육기관(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을 완료하였다.

### 3.3.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준비

#### 1) 등재신청서 작성 및 부속 자료 준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OUV 도출, 비교 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등재 대상 9개 서원에 대한 도면, 사진, 고문헌 등 부속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며 기초 자료를 확충하였다.

2012년부터 본격화된 등재신청서 작성은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한국의 서원이 지닌 OUV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운영지침에 따른 신청서의 주요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제1장(개요): 유산의 기본 정보 및 개요 제시
- 제2장(설명 및 가치): 유산에 대한 상세 설명과 OUV 도출, 등재 기준 (i~vi) 설정
- 제3장(비교분석):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OUV 입증 및 진정성·완전성 서술
- 제4~6장(보존 및 관리): 유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보존·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세부 계획은 부록 첨부)

신청서 작성은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2013년 국문 초안 완성을 시작으로 2014년 영문 번역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9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초안(Draft Nomination)을 제출하였다. 이후 외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뒤, 2015년 1월 최종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하였다.

## 2) 신청서 제출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검토

추진단과 집필진은 2013년 11월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우선등재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서 본문과 부록(보존관리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기초적인 요건을 확보한 뒤, 세계적 관점에서의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해 국외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세계적 권위자 크리스티나 카메론(Christina Cameron\_캐나다) 박사를 초청하였다. 자문은 9개 서원 현장 답사와 신청서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조사 직후 초안에 대한 집중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산 및 완충구역 설정의 적절성, 등재 기준 선정의 타당성,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검토가 이루어졌다. 약 9일간 진행된 국외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진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신청서의 논리 구조와 학술적 완성도를 최종적으로 제고하였다.

## 3.4. 세계유산 등재 신청

### 1) 등재신청서 초안(Draft Nomination) 제출

추진단은 2013년 11월 개최된 제4차 국가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이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에 주력하였다. 운영지침상 등재 신청 당사국은 최종 제출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추진단은 국외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영문 신청서 초안을 2014년 9월 23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국가유산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되었다.

## 2) 등재신청서 최종 제출

등재신청서 작성은 총 5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 1단계(기획):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신청서 작성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 2단계(국문 초안):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 및 관리계획(부록)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국문 신청서 초고를 작성하였다.
- 3단계(번역 및 초안 제출): 국문 초고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2014년 9월, 국가유산청을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 4단계(검토 및 감수): 연구진과 전문위원들이 국·영문 신청서 및 부록 전반을 심층 검토하였으며, 특히 국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문 표현과 논리 구조에 대한 정밀 감수를 진행하였다.
- 5단계(최종 완성):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종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서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20일, '한국의 서원' 영문 등재신청서가 국가유산청에 제출되었다. 매년 2월 1일인 유네스코 제출 기한에 맞춰, 국가유산청은 2015년 1월 21일 외교부 외교행낭을 통해 신청서를 최종 접수하였다. 제출물은 신청서 본권을 비롯하여 보존관리계획서, 도면 및 사진집, 서원 도록 3종, 홍보영상 등 부속 자료를 포함하였다.

## 3) 점검 및 현지실사

### 가. 현지실사 대비 예비점검

추진단은 성공적인 등재를 위해 2015년 9월로 예정된 이코모스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국내 전문가 점검과 국외 전문가 초청 예비실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등재신청서 기재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간	구분	전문가 참여
2015.03.05.~06.	국내	추진단 전문위원, 국가유산청 보존정책과 및 국제협력과
2015.04.26.~29.	국외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구어짚(Guo Zhan, 郭旒_중국)
2015.06.07.~13.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ICOMOS 부위원장: 크리스탈 버클리(Kristal Buckley_호주)

표 5. 현지실사 대비 국내외 전문가 예비실사

#### 나. 이코모스 현지실사(Technical Evaluation)

2015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 현지실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실시되었다. 현지실사의 목적은 신청서에 명시된 유산의 OUV보호에 대하여 유산 및 완충구역, 제도적 보존관리, 방문객 관리, 모니터링 체계 등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현지실사는 세계유산센터의 의뢰를 받은 자문기구 이코모스가 수행하며, 서면평가(Desk Review)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는 홍콩대학교 건축학부의 린 디스테파노(Lynne DiStefano\_홍콩) 교수가 담당하였다. 실사는 국제적 심사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적 보호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실사 후 총평에서는 연속유산으로서의 지향점, 통합관리 체계의 역할, 그리고 통합보존 관리 및 해설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제안되었다.

#### 4) 보완자료 작성·제출 및 평가

현지실사 이후 이코모스는 2015년 9월 28일 국가유산청에 추가 정보 요청을 전달하였다. 요청 내용에는 유산 간 지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지도, OUV 입증 근거, 연속유산 구성 요소별 특성, 등재 기준의 명확성, 법적 보호 범위, 거주민 현황, 방문객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서원관리단과 국가유산청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2015년 11월 2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후 이코모스는 현지실사 결과와 서면평가를 종합하여 패널회의(Panel Review)를 진행하고 당사국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당사국 인터뷰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절차로, 2015년 12월 1일 프랑스 파리 이코모스 본부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패널회의 결과, 한국의 서원은 연속유산 구성 논리의 보완 필요성, 국외 유산과의 비교연구 부족, 경계 설정의 미비, 현장 해설 및 홍보 부족 등을 사유로 '반려(Deferral)'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유산이 지닌 가치의 잠재력은 충분히 인정받았으며,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경우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2016년 1월, 국가유산청에 전달된 이코모스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에서도 동일하게 반려 의견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문실사(Advisory Mission)를 포함한 향후 재신청 과정에 대한 지원 의사가 표명되면서 전략적 수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5)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 국가유산청, 서원관리단은 향후 대응 방향을 '등재 추진 강행'과 '신청 철회 후 재추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 등재 추진 강행: 보완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보류(Referral)' 또는 '등재(Inscription)' 결정을 이끌어 내는 전략
- 신청 철회 후 재추진: 이코모스의 권고와 자문실사 지원 의지를 수용하여, 완성도 높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전략

종합적인 검토 결과, 무리한 추진보다는 철저한 보완을 거쳐 재신청하는 방안이 서원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이후 서원관리단은 전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서원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등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후속 절차에 착수하였다.

### 3.5.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

#### 1) 철회 이후 등재 재추진 의결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향후 재신청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등재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재단 이사회 의 핵심 안건은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에 대한 의결'이었다. 서원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주체, 전문가들이 결집한 조직이므로, 이사회 의 결정은 관련 기관 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의미한다.

이사회에서 재추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등재 신청 철회라는 난관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금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2) 이코모스 자문실사(Advisory Mission) 시행

등재 신청 철회 당시, 이코모스는 자문실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서원관리단은 이코모스의 자문실사를 바탕으로 등재신청서를 전면 재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자문실사 수행을 위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코모스 사무국에 전달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청서 재작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착수하였다.

자문실사는 관련 자료 제출, 영상회의,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기간	주요 내용
2016.09.28.	실무협의 자료 제출
2016.10.18.	1차 영상회의: 실사 일정 및 중점 논의 사항(수정된 유산 및 완충구역) 검토
2016.11.04.	이코모스 예비(조언) 보고서(Preliminary Advisory Report) 수령
2016.11.08.~16.	이코모스 전문가 자문실사 실시(세계유산 및 전통교육유산 전문가 2인)
2017.01.09.	2차 영상회의: 등재 기준, 매트릭스, 비교분석, 유산 및 완충구역, 보존관리, 활용 논의
2017.03.15.	자문실사 최종보고서 접수
2017.03.28.	3차 영상회의: 등재 기준, 유산 속성, 유산 및 완충구역, 비교분석 등 종합 논의

표 6. 한국의 서원 자문실사 시행 과정

이와 같은 자문실사 과정은 등재신청서의 논리적 완성도를 제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연속유산으로서의 구성 논리, 비교연구의 강화, 유산 및 완충구역 설정의 적정성, 보존관리 체계의 구체화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보완되었다.

### 3.6.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재작성 및 제출

#### 1) 등재신청서 재작성

등재신청서 재작성 과정에서 서원관리단은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수행 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다. 집필진은 ‘등재 기준 설정 및 비교분석’ 전담팀과 ‘보존관리·활용·모니터링’ 전담팀으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무국 역시 이에 대응하는 지원 구조를 갖추었다. 기존 전문위원들은 재신청 과정에서 집필된 원고를 정밀 검토하는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유산청과 서원관리단, 전문 집필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OUV 정립: 전문가 회의 총 6회 개최를 통한 논리 보완
- 보존관리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총 8회 개최 및 세부 실행 방안 마련
- 비교분석 강화: 중국, 일본 등 해외 유사 유산에 대한 심층 현지 조사 실시
- 완성도 제고: 신청서 통합 정리를 위한 합숙 회의 및 집중 자문회의 개최
- 글로벌 기준 부합: 영문 번역 및 국외 전문가 감수를 통한 논리 구조 확립

이와 같은 과정은 등재신청서의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최신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국제적 수준의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2) 국내(국가유산청) 심사 절차 이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신청이 반려(Deferral) 또는 보류(Referral)되어 등재되지 못한 경우 해당 유산은 별도의 우선권 없이 잠정목록 유산과 동일

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원'은 철회 이후 신규 신청 유산과 동일하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 신청후보'와 '등재 신청대상' 선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재이행하였다.

서원관리단은 2016년 9월 22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재등재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등재 신청후보 선정(2016.12.22.): 재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 통과
- 등재 신청대상 선정(2017.07.24.): '한국의 서원'을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확정
- 신청서 최종 검토: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차에 걸친 정밀 검토 실시

이러한 엄격한 국내 심사 절차를 통해 등재신청서의 질적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였으며, 공식 재신청을 위한 모든 제도적 요건을 완비하였다.

### 3) 신청서 제출 및 등재 심사

#### ① 등재신청서 초안(Draft Nomination) 제출

서원관리단은 2017년 9월 25일,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영문 초안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다. 국가유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당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해당 초안을 접수하였다.

세계유산센터는 신청서 검토 후, 2017년 11월 15일 국가유산청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하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유산 경계 및 완충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지도 보완, OUV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구체화, 유산의 완전성(Integrity) 설명 보강, 보호 및 관리 관련 법령의 상세 기술 등이 제시되었다.

#### ② 등재신청서 최종 제출

2016년 원고 작성과 영문 번역, 자문 의견 수렴 및 재검토를 마친 후, 2017년에는 최종 제출을 위한 편집 및 제작 단계에 돌입하였다. 국가유산청, 집필진, 서원관리단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영문 원고의 정밀 교정, 사진 및 도면 수정, 표지 디자인 등 시각적·내용적 완성도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식 유산 명칭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으로 확정되었다.

2018년 1월 22일 등재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었으며, 국가유산청은 운영지침에 따라 2018년 1월 25일 이를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하였다. 제출 자료는 등재신청서 본 책과 보존관리에 관한 법령, 상세 도면 등을 포함한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출 이후 세계유산센터의 완전성 검토 결과, 본 신청서는 모든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로 회부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서원'은 이코모스의 현

지실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되었다.

③ 등재 심사

서원관리단은 이코모스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사전 워크숍과 국내외 전문가 초청 예비실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간	주요 내용
2018.03.20.	현지실사 대비 워크숍 개최
2018.04.02.~06.	9개 서원 현지 보존 상태 및 관리 현황 점검
2018.05.04.	현지점검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 검토 회의
2018.05.26.~06.01.	해외 전문가 예비실사: 유가 카리야(Yuga Kariya, 苅谷 勇雅_일본)
2018. 07.07.~10.	유산 및 완충구역 경계 점검 등 실사 준비
2018. 08.01.~06.	국가유산청 관계자 합동 현장점검
2018. 08.21.~23.	국내 전문가 예비실사: 이정수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_건축분과)

표 7. 현지실사 대비 주요 준비 경과

○ 이코모스 현지실사

서원관리단은 2018년 9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이코모스 현지 실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실사는 중국 이코모스 사무국장인 쟁쥘(Zheng Jun, 郑军)이 담당하였다. 현지실사는 심사 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존관리 현황 및 법적 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추가 요청자료 및 보완자료 제출

현지실사 이후 이코모스는 2018년 10월 10일 추가 정보 요청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서원관리단은 요청 사항에 대한 정밀 보완 자료를 작성하여 2018년 10월 31일 제출하였다. 주요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원별 특성의 체계적 소명: 서원별 고유 특성을 시각화한 맵핑(Mapping) 자료 제공
- 비교연구 보장: 병산서원 공론장의 가치와 근거 제시
- 완전성/진정성 입증: 도동서원 인근 도로공사 계획에 따른 유산영향평가(HIA) 결과 제출
- 관리체계 구체화: 서원관리단의 성격, 인력 확충 계획, 각 서원 관리계획 간의 위계 및 유기적 관계 명시

○ 당사국 면담(Interviews with State Parties)

이코모스는 현지실사 및 서면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당사국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비교연구의 심층성, 서원 경관의 보존, 배향 인물

관련 요소, 통합관리 체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이코모스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수신

이코모스는 당사국 면담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 21일 중간보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등재 기준 (iv)의 논리 보강, 서원 경관에 대한 추가 설명, 통합 관리 및 해설 체계의 명확화 등을 요구하였다. 당사국은 이에 대응하여 추가 보완자료를 작성, 2019년 2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심사 과정은 '한국의 서원'이 지닌 OUV를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핵심 단계였으며, 신청서의 논리 구조와 학술적 완성도를 정점에 도달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3.7. 세계유산 등재

#### 1) 등재 권고 및 최종 결정

서원관리단은 2018년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현지실사, 보완자료 제출, 중간보고서 답변서 작성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다.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신청서 검토와 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세계유산센터는 2019년 5월 14일 이를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에 통보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 등재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등재 권고(Inspection)'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사는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 순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의 서원'은 신규 등재 심사 대상 중 19번째로 상정되어 2019년 7월 5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 외교부,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서원관리단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회의 기간 중 각 위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전개하는 한편, 타 유산의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철저히 현장에 대응하였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심의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의 보고와 이코모스의 평가 결과 제시로 시작되었다.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등재 기준 (iii)과 (iv)를 적용하여 신청하였으나, 자문기구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재 기준 (iii)을 근거로 등재가 권고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은 2019년 7월 6일,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최종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2) 등재 결정문 및 추진 과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등재 결정문은 '한국의 서원'이 지닌 OUV와 등재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서원이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동아시아 학문 전통의 전개 과정을 입증하며, 지역사회 내 교육 및 제향 기능을 유지해 온 연속유산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p><b>등재결정문: 43 COM 8B.21</b>                  세계유산위원회는,                  1. 문서 WHC/19/43.COM/8B,                  WHC/19/43.COM/INF.8B1 를 검토하여,                  2. 대한민국의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 을                  등재기준 (iii)에 근거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                  3. 다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채택한다.</p>	<p><b>Decision : 43 COM 8B.21</b>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1. Having examined Documents                  WHC/19/43.COM/8B and                  WHC/19/43.COM/INF.8B1,                  2. Inscribes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Republic of Korea,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basis of criterion (iii);                  3. Adopts the following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p>
<p><b>종합요약</b>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                  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                  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                  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                  이다.                  본 유산은 한국의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의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유산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한국의 모든 측면                  에 근간을 이룬 성리학을 널리 보급한 성리학 교                  육기관의 번영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의 향촌 지식인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유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서원의 핵심                  기능인 강학과 제향, 교류는 서원의 배치에도 잘                  드러난다. 지역의 향촌 지식인 계층과 사람들이                  이끈 서원은, 사림의 중심지로서 발전되고 부흥했                  다.                  서원의 위치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현과                  의 연관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서원은                  자연에 대한 감상과 심신수양의 일환으로 산과</p>	<p><b>Brief synthesis</b>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s a serial property which comprises nine                  seowon representing a type of Neo-Confucian                  academy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mid-16th to mid-17th centuries CE). It is an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The components are Sosu-seowon,                  Namgye-seowon, Oksan-seowon, Dosanseowon,                  Piram-seowon, Dodong-seowon,                  Byeongsan-seowon, Museongseowon and                  Donam-seowon, and these are located across                  the central and southern p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perty exhibits an outstanding testimony                  to thriving Neo-Confucian academies that                  promoted learning of Neo-Confucianism, which                  was introduced from China and became                  fundamental to every aspect of Korea.                  The local literati at seowon created educational                  system and tangible structures conducive to                  fully commit themselves to learning. Learning,</p>

<p>물 근처에 위치한다. 서원 내의 누각은 이러한 주변 경관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했다.</p> <p>학자들은 성리학 고전과 문학작품을 연구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고인이 된 동시대 성리학자들을 숭배하며 그들이 개척한 강력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했다. 나아가 지역 향촌 지식인들은 서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정치 활동을 통해 성리학 원칙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p> <p><b>기준 (iii)</b></p> <p>한국의 서원은 교육기관으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며,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그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춰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그 기능과 배치,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변혁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라 할 수 있다.</p> <p><b>완전성</b></p> <p>한국의 서원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속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도로, 수목과 시야 내 경관 등 인접 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 요소를 의미한다. 해당 유산의 이들 속성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우수하다. 개발, 총해, 화재, 지진 및 방문객 등 본 유산에 대한 주요 압력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p> <p><b>진정성</b></p> <p>한국의 서원은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온전하다. 그 활용과 기능, 전통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된 면이</p>	<p>eneration and interaction were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seowon which are closely reflected in their design. The seowon were led by sarim or the class of local intellectuals. The seowon developed and flourished as centres for the interests of the sarim.</p> <p>The primary factor in siting the seowon was the association with venerated scholars. The second factor was the landscape, and seowon are located near mountains and water as part of appreciating nature and cultivating the mind and body. Pavilion style buildings in the seowon facilitated connections to the landscape.</p> <p>The scholars studied Neo-Confucian classics and literary works and endeavoured in understanding the universe and becoming ideal person. They venerated late contemporary Neo-Confucian figures, and formed strong academic lineage spearheaded by venerated scholars. Furthermore, local literati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disseminating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through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based on the property.</p> <p><b>Criterion (iii)</b></p> <p>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p>
--	---

<p>있다. 비록 두 곳의 서원이 최초의 위치에서 옮겨진 바 있지만 서원의 위치와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무형유산과 서원의 정신적 측면 또한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p> <p><b>보호관리 요건</b></p> <p>유산의 보호는 1차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며, 그 밖에 문화재청이 마련한 여타 유산 관련법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령과 장관령도 이를 뒷받침한다.</p> <p>9개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문화재 수리의 시행과 제향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 <p>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들 조례 또한 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p> <p>서원관리단과 서원운영위원회, 중앙 및 각 단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서원이 해당유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서원관리단은 유산의 통합관리를 책임진다. 정부와 개별 서원이 각 서원의 상시 관리를 담당하며 서원운영위원회가 그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p> <p>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은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서원관리단을 지원한다. 보존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제공한다.</p> <p>개별서원에는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보존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통합관리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다.</p>	<p>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p> <p><b>Integrity</b></p> <p>The property retains all attributes that reflec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These are the buildings and constructions constituting the seowon, ancillary buildings, entrance gate, dismounting stele, commemorative stele, immediate environments including hills, streams, roads, plantings and visual catchments. The attributes of the property are generally in excellent condition. The major pressures on the property, development, insect damage, fire, earthquakes and visitors, are being adequately managed. However, they should continue to be monitored.</p> <p><b>Authenticity</b></p> <p>The property meets the requirements of authenticity. The form and design, and materials and substance are basically intact. The use and function of the seowon, and their traditions, are largely as they were through history, although noting that the educational role has been largely diminished. The location and setting of the seowon have been generally retained, although it is noted that two components have been relocated in the historical past. Th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spirit and feeling of the seowon have been generally retained.</p> <p><b>Management and protection requirements</b></p> <p>The primary protection of the property is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ith additional protection offered by other</p>
---	---

<p>위험 대비 대책 또한 일정 부분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방문객 관리 또한 만족스러운 상태이나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보다 잘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p> <p><b>4. 당사국이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서원의 포괄적인 관리계획 작성을 완료할 것</li> <li>b)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li> </ul>	<p>heritage laws ena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hese other laws are the Act on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Etc. and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laws are supported by Presidential decrees and ministerial orders.</p> <p>The nine components are all state-designated heritage. These legal instruments play a major role in ensuring the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in terms of carrying out repairs and safeguarding venerations.</p> <p>The relevant provinces have also prepared heritage protection ordinances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se ordinances also offer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organis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management system comprises the Seowon Foundation, seowon steering committees, and central and loc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requires the property to be manag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seowon community. The Seowon Foundation is in charg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components are managed on a daily basis by government and seowon personnel, with the seowon steer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operations and management. The central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vides support and supervision. Local governments also provide support to the Foundation. Conservation expertise is available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p> <p>Each seowon has a comprehensive maintenance</p>
---	---

	<p>plan which is equivalent to a management plan. In addition, there are a range of ke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nuals and guidelines. An integrated management document is being developed.</p> <p>Some risk preparedness exists, and additional planning and systems are being developed. Current visitor management arrangements are satisfactory although a better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is needed.</p> <p><b>4.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b></p> <p>a)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p> <p>b)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p>
--	--

표 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문

아래는 약 10년에 걸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을 1차 및 2차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현황이다.

기간	1차 추진 과정 (2012~2016)	기간	2차 추진 과정 (2016~2019)
2012.01.	잠정목록 등록 (2009년 등재 준비)	2016.07.	등재 재추진 의결
2012.04.	추진단 발족 / 관리단 설립(2015.08)	2016.09.	우선등재추진대상 선정 : 문화재청
2014.09.	등재신청서(영문) 초안 제출	2016.09.	ICOMOS 자문미션 수행
2014.04.	해외전문가(케나다) 신청서 감수	~	화상회의(3회) / 자문미션(9일)
2015.01.	최종 등재신청서 제출	2017.03.	ICOMOS 자문미션 결과보고 송부
2015.04.	1차 예비실사 : 해외전문가(중국)	2016.12.	신청서 재작성(집필진 보완)
2015.06.	2차 예비실사 : 해외전문가(호주)	2017.05.	문화재위원회 심의(신청서 초안)
2015.09.	ICOMOS 전문가(케나다) 현지실사	2017.07.	문화재위원회 심의(등재신청대상 선정)
2015.10.	ICOMOS 서면 질의 및 답변	2017.09.	등재신청서(영문) 초안 제출
		2018.01.	최종 등재신청서 제출

2016.02.	ICOMOS 추가 서면 질의 및 답변	2018.09.	ICOMOS 전문가(중국) 현지실사
2016.03.	ICOMOS 반려(Defer) 권고	2019.05.	ICOMOS 등재(Inscription) 권고
2016.04.	등재신청 철회	2019.07.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확정

표 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구분	연도	단계	주요 내용 (보완요청)
1차 추진	2016.04.	이코모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서원에 대한 연속유산 선정 논리 강화</li> <li>- 아시아지역에서 한국 서원의 탁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연구 보완</li> <li>- 유산구역 확대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에 위치하는 유산 중요 속성을 포함</li> <li>- 서원 관계자 및 현장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유산 해설 프로그램 미비</li> </ul>
이코모스 자문미션	2016.10. ~ 2017.02.	세계유산 & 전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유산 선정 : OUV에 대한 기여도, 진정성, 완전성 기준에 따라 조정 (돈암, 무성서원은 진정성·완전성에 문제로 조정 혹은 선정 논리 보완)</li> <li>- 등재기준: (iii), (iv) 유지, 각 서원별 속성 비교표 작성을 통해 보완</li> <li>- 비교연구: 중국 서원, 일본 사숙 등과 전통 유지, 물리적 특징 등 비교연구 구체화 향교와 비교, 서원 간 비교 필요</li> <li>- 유산구역: OUV 요소 모두 포함. 구역설정에 대한 원칙 마련 후 조정</li> <li>- 법적보호: 관련 법규의 적용과 소유권 현황 등을 도면, 표에 명확히 제시</li> <li>- 보호관리: 구역조정에 따른 방재계획 등 조정, 서원·지역주민 참여. 해설 및 관리계획, 서원에 대한 고고학적, 무형자원 연구 방향 설정</li> <li>- 유산명칭: 유산의 성격을 반영하는 간결한 명칭(제목) 권장</li> </ul>
2차 추진	2018.09.	현지실사	9개 서원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대한 소유권
	2018.11.	보완자료 1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원별 특성 설명(매핑 요소)</li> <li>② 비교연구(병산서원)</li> <li>③ 완전성/진정성: 도동 터널 공사, 돈암 담장 철거 및 홍살문/하마비 이전</li> <li>④ 보존관리(서원관리단 기능)</li> </ul>
	2019.02.	보완자료 2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등재기준 (iv) 근거 강화</li> <li>② 서원 주변 경관과 완충구역 바깥 경관 보호 대책 등 보존관리 체계 미흡</li> </ul>

			③ 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부재 ④ 9개 서원의 통합해설 및 교육 방안 부재
WHC	2019.07.	권고사항	① 서원의 포괄적인 관리계획 작성을 완료할 것 ②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

표 1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이코모스 주요 권고 내용

이와 같은 단계적 보완과 엄격한 국제적 검증 과정을 통해 '한국의 서원'은 연속유산으로서의 논리적 완결성과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약 10여 년에 걸친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거둔 소중한 결실로 평가된다.

### 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서원(書院, Seowon)은 중국에서 유래한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리학 전통 속에서 독자적으로 정착·발전한 교육기관이다. 이는 성리학의 이념과 사회적 실천을 확산시킨 핵심적인 문화적 장치이자, 그 가치를 입증하는 탁월한 유산이다. 이들 서원은 대부분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입지하고 있으며, 공간 구성은 기능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제향(祭享, Veneration) 공간: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행하는 공간
- 강학(講學, Learning) 공간: 교육과 학문 탐구가 이루어지는 공간
- 유식(遊息, Interaction) 공간: 교류와 휴식,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
- 지원 공간: 서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간

이러한 건축적 배치는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리학적 가치관과 자연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단일유산이 아닌 9개 서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이다. 이는 개별서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선시대 서원의 본질적 특성과 전체적인 가치를 보다 온전하게 증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등재 결정문에서는 국내외 비교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음의 핵심 속성(Attributes)들을 등재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서원의 교육체계 및 제향 활동(Learning system and veneration activities of Seowon)
- 서원의 입지 및 공간 배치(Setting and layout of Seowon)
- 서원의 경관(Landscape of Seowon)
- 서원의 건축물(Buildings of Seowon)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각 서원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제도적 기원을 보여주는 사례
2. 함양 남계서원(濼溪書院): 향촌 사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건립된 초기 서원의 전형
3.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탁월한 교육 내용과 체계적인 장서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서원
4.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이황의 학문을 계승하며 영남 사림의 중심지로 발전한 서원
5.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서원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과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
6. 대구 도동서원(道東書院): 성리학적 실천윤리와 엄격한 학풍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서원
7.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사림의 공론 형성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장한 사례
8.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성리학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를 교화한 중심지 역할 수행
9.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기호 유학 예학(禮學) 논의의 중심지로서 학문적 전통 계승

이처럼 한국의 서원은 개별서원의 특수성과 서원 전체의 통합적 가치가 결합된 유산으로서, 동아시아 성리학 전통의 전개와 지역사회 속 실천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p>① 영주 소수서원 (1543, 회헌 안향)</p>	<p>② 함양 남계서원 (1552, 일두 정여창)</p>	<p>③ 경주 옥산서원 (1572, 회재 이언적)</p>
		
<p>④ 안동 도산서원 (1574, 퇴계 이황)</p>	<p>⑤ 장성 필암서원 (1590, 하서 김인후)</p>	<p>⑥ 달성 도동서원 (1605, 한훤당 김굉필)</p>
		
<p>⑦ 안동 병산서원 (1613, 서예 류성룡)</p>	<p>⑧ 정읍 무성서원 (1615, 고운 최치원)</p>	<p>⑨ 논산 돈암서원 (1634, 사계 김장생)</p>

표 1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구성하는 9개 서원

#### 4.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추진 전략

‘한국의 서원’은 2010년 등재 추진을 시작으로 2011년 잠정목록 등록을 거쳐, 약 10년에 걸친 치열한 준비 끝에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보았다. 2015년 9개 서원을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6년 1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로부터 ‘반려(Deferral)’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코모스는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잠재력은 높지만 평가하면서도 논리적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4월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전면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관계 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2018년 1월 신청서를 재제출하였으며, 현지실사와 보완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 최종 등재를 확정 지었다.

세계유산 등재는 서원이 소재한 지역의 위상과 인지도를 비약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14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였고, 지역주민 또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보존과 홍보 활동의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연속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하나를 위한 아홉, 아홉을 위한 하나(Nine for One, One for Nine)’라는 인식이 모든 관리 주체에게 공유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는 장기간의 준비와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기에 그 자체를 최종 성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는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유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서원’이 거둔 성과는 다수 기관과 전문가, 지역사회의 협력이 축적된 결과이며, 등재 이후에도 이러한 협력 체계의 공고한 유지가 필수적이다.

현재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등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유산 제도의 본질은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데 있다. 등재를 국가 경쟁력 강화나 지역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근거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입증, 즉 등재 기준 설정, 진정성 및 완전성 확보,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은 필수 요건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등재가 불가능하므로 심도 있는 사전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보 접근의 한계로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등재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운영지침과 관련 지침서들을 면밀히 분석한 논리적 구성 능력이 필수적이다. 현지실사는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유산 및 완충구역 설정과 보존 관리상태 등 현장 준비와 신청서의 완결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은 특정 전문가의 개별 작업이 아닌, 이해 관계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코모스의 자문 및 자문실사(Advisory Mission) 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류 전체의 공동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등재는 국가적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광인 동시에, 인류 공통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정부와 서원 관계자, 전문가, 주민 모두가 협력하여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본 발표문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실질적인 경험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유산 관리의 경험치가 향후 등재를 준비 중인 유산, 특히 '호남 누정원림'과 같은 신규 대상의 준비 과정에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1. 대한민국(문화재청),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2019.
2.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2020.
3. 박진재,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4. \_\_\_\_\_, 연속유산의 등재 준비와 추진상 애로사항, 세계유산 등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문화재청, 2017.
5. \_\_\_\_\_,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전략」, 『2019 서울 백제역사유적 국제학술회의』, 서울시·백제학회·한성백제박물관, 2019.
6. \_\_\_\_\_,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OUV 속성 도출과 보호 활용」, 『2023년 제2회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7.6.)』, 문화재청·UNESCO WHIPIC, 2023.
7. \_\_\_\_\_,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이 되기까지」, 『季刊 영주문화』 86, (사)영주문화연구회, 2024.
8. WHCenter,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25.
9. \_\_\_\_\_,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 Second Edition, 2011.
1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http://whc.unesco.org>)
11.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신청서 작성 과정에 대한 토론

백옥연(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I. 발제의 요지 및 의의

박진재 실장님의 발제문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진행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입체적으로 복기한 실무 기록입니다. 본 발제의 의의는 단순히 최종 등재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유산 제도가 요구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입증과 연속유산 선정 논리의 정교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코모스(ICOMOS)의 '반려' 권고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문실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신청 논리를 전면 재구성한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현재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호남 누정원림' 사업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토론자는 이 발제를 통해 확인된 핵심 논점들을 호남 누정원림 추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몇 가지 질의와 쟁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II. 발제문에 대한 주요 질의 및 쟁점

#### 1. 연속유산 구성의 논리적 완결성과 대상지 선정 기준

발제문에 따르면, 「한국의 서원」은 전국에 분포한 9개 서원을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때 핵심은 각 서원이 전체 OUV 입증에 어떤 기능적·역사적 기여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등재 결정문은 소수서원을 제도적 기원의 상징, 남계서원을 향촌 사림의 자발적 설립과 운영, 옥산서원을 교육 체계와 장서 관리, 도산서원을 영남 사림의 중심, 필암서원을 경제 기반과 운영 구조, 도동서원을 성리학적 실천윤리의 공간 구현, 병산서원을 공론 형성, 무성서원을 향촌 교화, 돈암서원을 기호 유학과 예학의 중심으로 각각 의미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연속유산 논리의 핵심이었으며, 9개 구성 요소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전체 서원 제도의 전형을 완성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이 보여주듯, 이러한 논리는 처음부터 완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신청 당시 이코모스는 왜 하필 이 9개 서원이어야 하는지, 각 구성 요소가 비교사적 관점에서 어떤 대체 불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돈암서원은 1881년 수해 이후 원래 입지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고 일부 건축 부재

의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무성서원 역시 평지 마을 내부에 자리한 입지, 그리고 무성祠에서 서원으로 전환된 역사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비칠 수 있다는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등재가 가능했던 것은, 개별 요소의 약점을 은폐하지 않고 연속유산 전체의 논리 속에서 재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필암서원 역시 기산리·증이리·해보리로 이어지는 이전의 이력이 있었으나, 수해라는 불가피한 이전 사유가 기록으로 분명하고, 담장과 구릉을 활용하여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의 시각적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문중의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관리가 이어져 왔다는 점이 무형적 진정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발제문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측은 지자체 조례 정비, 경관 정비 계획 수립, 완충구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별 서원의 취약성을 통합 보존 체계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호남 누정원림 추진에서 더욱 중요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누정은 서원보다 대상 수가 많고 유형도 다양하며, 원형 훼손이나 중수·이전의 이력도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어떤 누정과 원림을 연속유산의 구성 요소로 채택할 것인지, 개별 요소의 보수 이력과 주변 개발 현황을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고 선별할 것인지, 그리고 일부 요소의 한계를 전체 유산의 서사 속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위치 지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발제자께서는 대상지 선정의 핵심 판단 기준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보시는지, 또한 잠재적 취약 요소를 사전에 어떻게 관리 논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2. '건물군'을 넘어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의 범주 확장

발제문에 따르면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제향 기능을 가진 건물군(Group of Buildings)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보완 과정과 등재 결정문의 표현을 보면, 실제 평가의 초점은 개별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코모스는 서원의 핵심 속성으로 입지와 배치, 배후 산지와 전면 수계가 만들어내는 경관, 그리고 완충구역 외부까지 이어지는 시각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2019년에도 서원 주변 경관과 완충구역 바깥 경관 보호 대책이 보완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서원이 비록 형식상 건물군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유산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지점은 호남 누정원림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호남의 누정과 별서정원은 건축적 장식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유산이 아니라,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조망과 차경, 수계와 식생, 시문과 강학, 풍류와 은일의 문화를 통합적으로 구현한 공간입니다. 소쇄원의 담장과 계류, 식영정에서 바라보는 들과 산, 환벽당의 입지와 주변 자연은 건물과 경관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문화적 실체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호남 누정원림의 경우, 서원처럼 건물군 중심의 범주로 접근하기보다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가치 입

증에 더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경관으로 접근할 경우 경계 설정과 관리의 난이도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차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가시권과 역사적 이용권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현대 개발로 인해 단절된 경관 요소를 어떤 수준까지 복원 가능성의 범주로 볼 것인지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경관 범주가 가치 입증에는 유리하더라도, 관리 가능성까지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발제자께서는 서원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호남 누정원림이 초기에 건물군과 문화경관 가운데 어느 범주를 중심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범주를 절충하는 방식의 신청 전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통합 보존관리 체계의 실효적 운영

발제문은 14개의 지자체와 9개 서원을 포괄하는 통합보존관리단 운영이 등재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유산 심사가 개별 유산의 보존 상태뿐 아니라, 연속유산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중시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발제문 속 서원 사례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 주체가 '하나를 위한 아홉'이라는 원칙 아래 조정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개별 서원과 문중, 해당 기초지자체는 저마다의 역사와 자긍심, 예산 우선순위, 지역 현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유산의 독자성만을 앞세우지 않고, 9개 서원 전체의 공동 서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낸 것은 행정적 리더십과 지속적 소통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남 누정원림 역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초광역 사업입니다. 누정과 원림은 서원보다 소유 관계와 관리 주체가 더욱 다양할 수 있고, 관광 활용과 지역 개발의 이해관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큼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합 의사결정 구조, 공통 데이터 기준, 해설·홍보의 표준화, 경관 관리의 공동 원칙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 서원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신 가장 실질적인 조정 원칙, 예컨대 갈등을 완화했던 의사결정 방식이나 지자체 참여를 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었던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향후 호남권 추진단 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Ⅲ. 사업 추진의 전략적 통합: 별서정원·누정원림·서원의 유기적 연계

#### 1. 사전자문 사업과 누정원림 사업의 연속유산 통합 추진

발제자는 결론에서 등재를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 토론자는 이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현재 광주광역시 추진 중인 별서정원 및 원림 문화경관 사전자문 사업과 장기적인 호남 누정원림 세계유산 추진을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기보다,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하나의 전략적 로드맵 속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전자문 대상이 된 환벽당, 식영정, 소쇄원은 조선 중기 호남 사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 공간이며, 무등산 자락과 담양 창평 일대의 원림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선도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송강 정철, 하서 김인후, 면앙정 송순 등과 연계된 시가문학과 성리학적 사유의 현장이기도 하여, 단순한 정원이나 누각의 범주를 넘어선 역사문화적 층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선도유산을 별도로 먼저 등재 추진할 경우, 장차 호남 누정원림 전체를 연속유산으로 추진할 때 가치의 중복과 차별성 입증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유산 심사에서는 유사 가치의 반복 제시보다, 서로 다른 구성 요소가 어떻게 하나의 더 큰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자문 과정에서 도출되는 이코모스의 질문과 권고, 경계 설정 방식, 비교연구의 범위, 속성 정리의 방법론은 특정 3개 유산에 한정된 성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호남 누정원림 전체의 학습 자산으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잠정목록 단계에서부터 별서정원·누정·원림을 포괄하는 단일한 연속유산 또는 문화경관의 큰 틀을 설정하고, 선도유산은 그 핵심 구성 요소로 위치시키는 전략이 보다 실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2. '조선 사림 문화'의 입체적 완성: 서원 확장 등재와 누정원림의 연계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서원과 누정원림을 각각 별개의 유산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선 사림 문화라는 보다 큰 역사문화 체계 속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등재된 서원이 강학과 제향의 제도적 공간을 보여준다면, 누정원림은 은일과 교유, 자연 속 수양과 문예 창작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서원이 사림의 공적·제도적 기반이라면, 누정원림은 그들의 일상적 실천과 심미적 세계를 드러내는 사적·경관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조선 사림 문화의 전모가 입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으로는 서원의 확장 등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9개 서원이 조선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향후에는 월봉서원, 자산서원, 심곡서원 등 조선 유학의 사상적 역동성과 지역적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서원들을 통해 성리학적 사유의 심화 과정까지 확장적으로 조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대상지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등재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비교연구와 논리 재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누정원림을 병렬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유산 체계로 구상하는 것은 향후 한국 유교문화 유산의 국제적 서사를 한층 풍부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IV. 결론: 상생과 통합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

박진재 실장님의 발제는 세계유산 등재가 중앙정부나 일부 전문가만의 과업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 과정은 학술적 논증, 현장 조사, 제도 정비, 주민 소통, 국제 자문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작업이며, 이코모스의 자문과 자문실사를 적절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신청서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발제문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기초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첫째, 현장 데이터의 체계화입니다. 개별 유산의 보존 상태, 중수 및 이건 이력, 소유와 관리 구조, 주변 개발 현황, 역사 기록과 시각 자료를 정밀하게 축적함으로써 국가유산청과 연구진의 신청서 논리 구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의 가교 역할입니다. 문중과 주민, 전문가와 행정,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연결하여 유산이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는 살아 있는 전통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서원」 사례에서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관리 전통이 중요한 설득 근거가 되었듯이, 호남 누정원림 역시 무형의 운영 관행과 지역 사회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 논리로 제시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합 관리 체계의 선제적 구축입니다.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경험을 참고하여, 가칭 호남 누정원림 통합관리센터와 같은 상설 협의체를 조기에 준비하고, 지자체 간 공동 기준과 공동 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유해 주신 「한국의 서원」의 등재 경험은 호남 누정원림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줄 매우 구체적인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속유산의 선정 논리, 문화경관적 접근, 통합 관리 체계, 그리고 사전자문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네 가지 교훈을 충실히 계승한다면, 호남의 누정과 원림 또한 지역적 명소의 집합을 넘어 인류가 공유할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뜻깊은 발제를 준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논의가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